2030년을 예측한다

식량전쟁

이철호 저

자본주의의 종말을 앞당길 뇌관

식량전쟁을 말하다

KFSAF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도서출판 식안연

식량전쟁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도서출판 식안연(食安硏)

식량전쟁

초 판 인 쇄:2012년 03월 20일
초 판 발 행:2012년 03월 26일
전자책발행:2015년 04월 28일

지 은 이 :이철호
펴 낸 이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www.foodsecurity.or.kr)
펴 낸 곳 :도서출판 식안연
전 자 우 편:foodsecurity@foodsecurity.or.kr
주 소:서울시 성북동 안암동 5가 1번지, 생명과학관(녹지) 206호
전 화:02-927-2751
팩 스:02-927-5201

편집디자인 :제이앤씨 커뮤니티
신 고 번 호: 제307-2011-69호
I S B N: 978-89-967826-1-2
전자책ISBN: 979-11-863962-3-0

전자책 가격 10,000원

이 전자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ll rights are reserved. Produced in Korea.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publisher.

본 콘텐츠는 PDF형식으로 서비스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창세기 41장 54절

식량전쟁

머리말

신은 우리들에게 공기와 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마음껏 사용하게 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공기는 4분 정도 호흡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게 된다. 물은 4일 정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다. 음식은 40일 이상 금식기도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으니 아마도 그 정도가 한계인 것 같다. 그런데 인간은 신이 준 이들 생명물질들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고 있다. 공기오염이 심해 산소를 통에 넣어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 온실가스를 턱없이 방출해 지구온난화까지 자초하고 있다. 지상에서 흐르는 물을 퍼먹지 못하고 페트병에 든 지하수를 사먹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농경지의 급속한 사막화로 육지의 반이 물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신은 우리들에게 식량을 얻기 위해 일하고 고통을 감내할 것을 요구했다. 식량은 공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식량을 얻기 위한 수고와 노력, 전쟁과 노략질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인간의 숙명적

인 굴레 속에서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다. 풍요의 극치로 부풀어 오른 뚱보족과 지독한 배고픔으로 뼈만 남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양극화된 세계 속에서 인류는 사활을 건 식량쟁탈전에 돌입하고 있다.

국제안보전문가이자 군사지정학분석가인 귄 다이어(Gwynne Dyer)는 그의 저서 기후대전(Climate wars)에서 기후온난화에 의한 지구의 종말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1세기 중반이 되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2~3도 높아지고 세계적인 사막화로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시대가 된다. 유럽연합은 붕괴되고 남부 유럽에서 밀려드는 굶주린 난민들을 막느라 비상사태에 빠지고, 남부 유럽은 사막화로 삶의 근거를 잃고 몰려드는 아프리카 난민들로 사실상 국경이 없어진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진다. 미국은 멕시코와 남미 대륙에서 식량부족으로 밀려오는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거대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필사적으로 넘어오는 난민들을 무자비하게 사살하는 장면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더스강 지류의 물 분쟁으로 핵전쟁을 벌인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세계 역사는 세계화, 자유무역,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가진자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는데 몰입했던 기간이었다. 비교우위 경제이론으로 세계 각 나라를 분업화하려는 서방 자본주의의 의도가 현실화되었고, WTO 무역자유화 세계에서 부의 편중현상이 극

에 달했다.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되었고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위기에 빠진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에 입각한 자유방임원칙을 신봉했던 미국의 자만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투자은행체제의 관리부실과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통화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동산 거품과 과도한 성장위주 정책이 은행들의 줄도산과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다. 금융회사들은 망했지만 관계자들은 떼부자가 되어 투기자본의 소유주가 되고, 99%의 국민은 일생을 금융 빚을 갚는데 바치는 소위 '자본주의 신노예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는 우려와 '자본주의4.0'이라는 재포장으로 견뎌보려는 마지막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부문화를 늘려서 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것으로 '공생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로 병들은 지구촌을 살리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 틀은 여전히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기존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의 대부분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커피와 카카오와 설탕을 생산하는데 동원되고, 실상 그들의 식량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식량 속국으로 허덕이게 된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의 고민은 그동안 누려온 세계 초강대국의 위치를 어떻게 유지해나가는가의 문제였다. 중국의 14억 인구와 인도의 12억 인구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 미국의 인구는 3억 8천만으로 크게 늘지 않는다. 이것은 유럽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의 인구는 통틀어 2억인데 앞으로 줄지 않으면 다행이다. 2020년 중국과 인도의 인구를 합치면 38억 인으로 세계 인구의 반을 차지하게 되는데, 미국은 4억 인, 유럽은 2억 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 구매력이나 정보창출 능력에서 서양을 대표하는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이 아시아를 이겨낼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구촌화(Globalization) 또는 글로벌정부의 탄생이다. 세계 금융질서와 자유무역 그리고 개발과 환경보존까지 책임지는 '세계정부'가 만들어지면 미국은 계속적으로 세계의 리더로 군림할 수 있다. 유엔미래예측보고서는 줄기차게 글로벌정부의 탄생을 주장하고 있다. 2009년 12월에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세계정부(World government)의 출발이 공식 언급되었다. 그러나 회의 결과는 실패였다.

이제 무력으로는 세계를 제패할 수 없음을 세계는 알고 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무엇인가? 식량이다. 아시아에서 급증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게 된다. 지구상의 식량생산 증가율은 소비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곧 식량부족의 시대가 가시화된다. 아시아에서만 10억의 인구가 식량부족으로 기아상태에 있다. 그중에서 중국의 식량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중국은 21세기 초에 이미 식량수입국이 되었고 동물성 식품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콩과 옥수수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 된다. 물량으로 따지면 중국은 단연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이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0년 1억 5천8백만 톤이었으나 서북지방의 사막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2025년에는 1억 4천만 톤으로 줄 것

으로 예상된다.(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기후변화에 따른 경작지 감소 등으로 1980년부터 2010년 사이 약 2천3백만 톤(3.3%) 줄었다) 2025년 중국의 연간 옥수수 수입량은 8천만 톤에 달하게 된다. 콩의 수입도 크게 늘어 2010년 4천3백만 톤 수입하던 것이 2025년에는 6천만 톤을 수입해 세계 수출물량의 80%를 쓸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연 1억 톤의 쌀을 생산하였으나 기후온난화로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 2천5백만 톤의 쌀을 수출했으나 2025년부터 쌀 수입국이 될 것이다. 기온 상승으로 인도의 밀 생산량도 현저히 줄게 된다. 2010년 7천8백만 톤의 밀을 생산하던 것이 2025년에는 7천만 톤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 동안 인도의 인구는 12억에서 중국과 맞먹는 19억으로 늘게 된다.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으로서는 환경문제를 내세워 식량으로 세계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식량수출국이다. 옥수수 수출 세계 1위, 세계 총 옥수수교역량의 57%, 콩 수출 세계 1위(44%), 밀 수출 세계 1위(21%), 쌀 수출 세계 4위(11%)로 사실상 세계 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북아메리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캐나다는 식량생산이 증가한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과제이며 지구의 앞날을 위해 이보다 더 중요하고 정당한 일은 없다. 미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000년 수준으로 낮추는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는 식량수출을 제한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식량수출을 제한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동한다. 그러나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중국을 비롯

한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들은 이에 필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식량의 자유로운 수입은 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식품학자로서 40여 년의 식품학 연구를 통해 얻어진 식견과 통찰력으로 세계의 미래를 진단한 것이다. 유엔미래예측보고서는 정보화시대를 강조하면서 세계 통일을 역설하지만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세계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키워드는 식량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다. 식량전쟁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자본주의의 종말을 앞당길 뇌관이라는 사실을 이 소설을 통해 증언하려고 한다.

2012년 3월

광릉숲 솔개마을에서 저자 씀

목차

머리말 _004

I. 전쟁준비 _013

시베리아의 밀밭을 막아라 _014
우루과이 라운드 _025
식습관을 우리쪽으로 길들여라 _036
아프리카 가나의 이야기 _046

II. 미친소들의 광란 _053

소를 미치게 한 사람들 _054
인간 광우병 _061
광우병에 놀란 사람들 _064
한미 쇠고기협상 _073
IT강국의 스마트몹 식량대란 _076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_090
폭풍이 쓸고 간 자리 _107

Ⅲ. 종자전쟁 _119

유포브의 음모 _120
공룡 농업기업의 출현 _125
몬산토 BT면화가 인도에서 한 일 _133
공룡과 싸우는 캐나다의 한 농민 _135
한국의 종자시장 _144

Ⅳ. 전쟁의 서막 _151

2008년 세계 곡물파동 _152
2010/11년 기상이변 _160
계속되는 기상이변 _168

Ⅴ. 2015년 뚱보세(稅) 청문회 _179

1차 청문회 _180
2차 청문회 _191
비만세(稅) _204

Ⅵ. 2030년 식량전쟁 _205

미국과 유럽의 2030년 _206
중국의 2030년 _210
식량무기화의 종말 _214

Ⅶ. 타고르의 예언 _219

2030년 출애굽기 _220
한국의 세계 비전 _227

I. 전쟁준비

시베리아의 밀밭을 막아라

우루과이 라운드

식습관을 우리쪽으로 길들여라

아프리카 가나의 이야기

시베리아의 밀밭을 막아라.

1995년 10월, 조지타운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소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실에 정막을 깨트리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스티븐슨 박사는 어지럽게 널려 있는 서류 더미를 헤치고 다소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최근 그는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유전자 재 조합의 한 실마리를 찾아냈던 것이다. 겨울에 얼지 않는 실파의 염색체에서 냉해에 견디는 유전자를 추출해 밀의 게놈에 접합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네, 스티븐슨입니다."

"아, 네에, 제 연구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궁에서 브리핑을 요구한다구요?"

"네, 잘 알았습니다. 곧 준비하겠습니다."

스티븐슨 박사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비행기가 대통령궁이 있는 수도를 향해 서서히 하강하고 있다. 상공에서 보는 도시의 모습은 여느 도시와 다름 없이 해변에 위치한 넓고 펑퍼짐한 터전에 자갈을 뿌려놓은 듯 건물들이 널려 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둥근 돔을 대감님의 관모처럼 위엄 있게 쓰고 있는 웅장한 국회건물과 이 건물을 중심으로 U자 모양으로 늘어선 국립박물관 건물들, 그리고 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변에 늘어서 있는 행정부의 각 부처 건물들이 의미 있게 보인다. 이 나라 국립박물관 콤플렉스는 박물관이라 부르지 않고 연구소라는 명칭을 달고 있다.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과학관, 우주항공박물관, 미술관, 세계문화박물관들이 국회 건물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이 박물관 콤플렉스를 연구소라 이름하는 것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간다. 박물관 건물들은 대개 4~5층 건물로 아래 2~3층은 전시실이고 그 위의 1~2개 층은 박물관 연구사(큐레이터)들이 연구하는 연구실로 꽉 차있다. 이들이 이 나라의 역사, 문화,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을 모아놓은 장소이고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국회와 행정부가 모여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지식과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나라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궁 소회의실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농무부 장관, 대통령 과학기술특보, 스미스대학 농과대학장, 역사박물관 연구원 등 10여 명이 중후해 보이는 갈색 마호가니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캘빈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렇게 모신 것은 최근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내냉성 밀 종자의 개발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대통령께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스티븐슨 박사의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븐슨 박사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노트북 컴퓨터를 열어 발표 슬라이드를 스크린에 올린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유전자재조합에 의한 내냉성 밀 품종 개발 경위'라는 제목이 씌어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결과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전자 재조합기술로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콩이나 병충해에 잘 견디는 옥수수 종자의 개발은 이미 실용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여러 해 동안 세계 각처에서 식용으로 사용한 결과 아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그 재배와 사용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콩과 옥수수는 서양사회에서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곡물이라는 점에서 이를 주식으로 사용하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사람들의 의혹을 받아 온 게 사실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 사용하는 밀에 대한 유전자 재조합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추위에 잘 견디는 내냉성 밀의 개발에 착안한 것입니다. 내냉성 밀을 개발하면 캐나다 북부와 러시아의 한랭 초지로 남아있는 황무지에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 식량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영하의 온도에 견디는 실파의 유전자에서 내냉성 인자를 분리 추출하여 밀의 유전자에 도입함으로써 재배한계온도를 3~4℃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신품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난 2년 동안 실시하여 화학분석시험, 효소반응시험, 실험쥐를 사용한 1년 이상의 장기 사양시험 모두에서 기존의 밀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 신품종은 식용 실파에서 유전자를 도입한 것이므로 기존의 다른 종, 예를 들면 세균이나 비식용 생물체의 유전자를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소비자협회 쥬디 메이슨 회장이 육중한 체구를 옮겨 놓으며 버릇처럼 그녀의 가슴 위에 길게 늘어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문을 열었다.

"유전자조작(생명공학기술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은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변형 (GM)기술을 유전자 조작이라고 말한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거부감이 아직 팽배해 있는데 우리의 주식인 밀까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크게 불안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 한 맥주회사가 유전자조작 쌀을 원료로 쓰려고 했다가 소비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이 일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학이 완전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만에 하나 이 기

술로 만든 식품이 먼 훗날에 인체에 이상을 일으킨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옥수수나 콩은 시럽을 만들거나 기름을 짜내고 나머지는 사료로 사용하므로 한 번 걸러서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밀은 제분하여 그대로 다 먹는 주식이니 여기에 유전자 조작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이러한 식재료의 생산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쥬디 메이슨 회장은 다소 흥분된 어조로 말을 마쳤다. 잠시 침묵이 흐른 장내를 허드슨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허드슨 교수는 명문 노우리치 대학의 분자생물학 교수로 국립 생명공학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분으로 얼핏 보아도 권위 있는 교수님의 인상이 풍긴다.

"생명공학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수없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전 세계 과학계가 그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거친 식품에 한한 것입니다. 특히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생물체에서 유전자를 도입할 때에는 더욱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작물은 인체 영향은 물론 환경에 대한 영향까지 철저히 조사된 것으로 각 나라마다 정해진 안전평가 기준을 통과한 후 수입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완전무결한 식품이란 없습니다. 과학은 95% 확률에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

지 분명한 것은 유전자재조합 곡물이 개발된 이래 세계 거의 모든 연구실에서 실험쥐의 사료로 GM 옥수수와 콩을 사용해 왔고 지금까지 수십 세대를 이어 이들 사료를 먹이고 있으나 이상 징후를 나타낸 동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이며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GM 신품종들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생명공학식품의 안전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온 국민이 신품종 옥수수와 콩을 먹고 있습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남미와 멕시코인들의 주식인 타코를 비롯한 옥수수 가공품들이 대부분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수요가 대단히 큽니다.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이 먹는 두부와 콩 가공품들이 대부분 유전자변형 콩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아무 거부감 없이 모두 먹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재래 품종과 다른 아주 미소한 느낌이라도 있었다면 절대로 먹지 않을 겁니다."

앤더슨 상공부장관이 얼른 맞장구를 친다.

"그렇습니다. 유전자변형 곡물의 안전성에 관한 논쟁은 사실상 끝이 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이 그동안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입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유통과정에서 표시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전문가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문제는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남미의

대규모 곡물생산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옥수수와 콩의 수입을 막기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논란을 이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유전자변형 작물의 자국 내 재배와 생산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공학 식품의 세계적인 이용은 기정사실이며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세계 식량부족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한 길은 생명공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던 역사박물관의 큐레이터 테리 슈나이더 박사가 신중하게 입을 연다. 슈나이더 박사는 역사학 박사로 생명공학의 발전이 이 나라의 농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석학이다.

"스티븐슨 박사님의 연구는 정말로 대단하고 시의적절한 연구입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 식량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내냉성 밀 신품종이 보급되어 시베리아 황무지 벌판이 밀밭이 되고 캐나다의 북쪽 초지가 밀밭이 되면 우리나라의 밀농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연 2천8백만 톤의 밀을 일본,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으로 세계에서 거래되는 옥수수의 반 이상인 연 5천2백만 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대 콩

수출국으로 연 3천5백만 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곡물은 우리나라 부의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식량은 부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각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무엇보다 강력한 수단입니다. 만약 내냉성 작물이 개발되어 시베리아의 황무지가 밀밭이 되고 옥수수밭이 되면 우리의 농업은 어디로 가야 하며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련연방이 붕괴된 페레스트로이카도 빵 부족에서 시작된 것이며 우리의 곡물 교역정책이 큰 몫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좌파세력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식량 공급의 줄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도적 차원에서 내냉성 밀의 개발은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용화하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생명공학 기술에 대하여 우리 농업이, 더 나아가 우리의 외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전략이 마련된 뒤에 이들 신품종이 실용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장내에 심각한 기류가 확 퍼졌다. 역사학자의 이 한마디가 모인 사람들 생각의 틀을 바꿔 놓은 것이다. 앞으로 20년, 50년 후 생명공학 발전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준비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생명공학 기술 발전의 득과 실을 내 나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기술 발전의 완급을 국가이익에 따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전혀 새로운 고민에 빠

진 것이다.

로버트훌 농무부 장관이 약간 상기된 얼굴로 말을 받았다.

"슈나이더 박사님의 예리한 통찰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이때까지의 유전자변형 작물 개발은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의 곡창으로서 대규모 영농 시스템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농업구조에서 제초제에 피해를 입지 않고 병충해에 견디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 품종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비행기로 농약과 제초제를 뿌리는 거대 농장 경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 제1의 곡물 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옥수수를 발효시켜 알코올을 만들어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옥수수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의 농산물은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세계의 곡물가격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잉여농산물이 쌓여서 곡물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걱정하던 시대는 지나고 생산자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생산자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 농촌에서 땅값이 오르고 있으며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냉성 생명공학 품종들이 시장에 나와 시베리아의 황무지가 밀밭이 되고 옥수수밭이 된다면 우리의 농업이 크게 타격받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

다. 이 나라의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부 콘벨트 중심에 있는 캐나우어주 출신 하원의원 밥 도얼이 그의 육중한 체구에 어울리는 굵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저는 오늘 이 회의가 유전자변형 밀의 안전성과 소비자 반응에 대한 논의인 줄 알고 왔는데 의외로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이라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가 세계 식량 공급자로서의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좌파세력들이 힘을 잃어간 것도 우리의 식량원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쌀을 주식으로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식량 지배력에서 다소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서구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밀과 옥수수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으며, 더욱이 경제성장으로 동물성 식품의 소비가 늘어 우리의 육류와 사료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식량이 지배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시베리아의 황무지가 밀밭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더 다른 말이 나올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캘빈 비서실장은 재빨리 회의의 마무리 발언을 서둘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내냉성 밀의 개발과 상용화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인지하시겠지만 내냉성 밀의 상용화는 여러 면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섭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대통령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홍 코너, 체중 150킬로그램, 수퍼 아메리칸 챔피언, 톰 맥도날드!"

와! 와! 관중의 열기가 대단하다.

다시 "청코너, 체중 60킬로그램, 팬 아시아퍼시픽 챔피언, 마이클 리!"

장내는 조용했다. 청코너의 리 선수는 누가 봐도 피죽도 못 먹은 삐쩍 마른 체구에 겁먹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이상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체중도 맞지 않고 싸울 의사도 없어 보이는 선수를 세워 놓고 권투시합을 하고 있다. 관중석은 대부분 홍코너를 응원하는 기름지게 살찐 서양 사람들이고 문간에는 삐쩍 마른 유색인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성거리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땡!" 공이 울려 1회전이 시작된다.

1회전은 탐색전, 두 선수 모두 신중하게 링을 돌며 상대의 허점

을 노리고 있다. 그것도 잠시 상대의 체구를 본 맥도날드 선수 어퍼컷으로 일격을 가한다. 리 선수 벌렁 나자빠진다. 심판이 달려와 리 선수를 일으켜 세워 시합을 계속하게 한다. 이렇게 수없이 맞고 자빠진 리 선수 8회전까지 견디다 완전 KO되어 들것에 실려 퇴장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보고 풍자한 어느 외신기자의 꽁트이다.

전후 세계 경제질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질서는 미국의 주도로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유럽전선과 아시아 태평양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발전과 국제교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매진했다. 2차 대전 말기인 1944년에 이미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었다. 1945년 미국은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언'을 발표하고 국제무역기구(ITO)의 창설을 주장했다.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 일명 아바나헌장이 채택되어 국제무역에 관한 제반사항과 각국의 정책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정해 놓고 실시기관으로서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지나치게 이상적인 내용을 담아 당

초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마저 비준을 거부당하고 말았다.

다른 한편,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이 제안한 관세인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23개국 대표가 모여 다각적인 관세교섭을 벌인 결과 모든 참가국에 평등하고 무차별로 적용될 '관세양허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국제무역기구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첨가함으로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만들어졌다. 가트(GATT)는 이렇게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잠정적인 협정으로 만든 것이나 국제무역기구헌장의 결렬로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수입제한의 완화, 차별대우의 폐지 등 사실상 국제무역기구가 수행하려고 했던 2차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질서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트는 IMF와 함께 전후 미국 주도의 세계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수출경쟁이 격심해 지고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유럽공동시장(EC) 등 지역별 경제 블록화,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 등으로 미국의 절대적 우위에 기초한 국제 경제질서가 붕괴되고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이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 등으로 다극화되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 미국은 농업공황, 제조업 쇠퇴, 서비스산업 팽창이라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를 맞아 무역구조를 새롭게 개편해야 하는 상

황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농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교우위를 무기로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하려고 가트(GATT)를 통해 세계 무역구조의 개편을 시도한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UR)'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준비한 나라들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가트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시작된다.

UR협상 이전에 가트는 7차례에 걸친 대규모 국제 무역협상을 했다. 50년대 말까지 4차례의 협상을 했는데 모두 관세협상으로 수입상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을 없애 나가자는 논의였다. 1960년부터 2년 동안은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딜런의 이름을 따서 '딜런 라운드' 협상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은 국가별 및 상품별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세계무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 방법으로는 관세인하 실현 폭이 너무 적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1964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관세 일괄 인하방식'이 제창되어 이후 3년간 '케네디 라운드'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교섭 참가국은 일률적으로 평균 35%의 관세를 인하할 것에 합의했다. 한국은 1967년 가트회원국이 되었다.

1973년 일본 동경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도쿄 라운드'는 종래의 관세 일괄 인하방식을 바꾸어 여러 나라 사이의 관세율 격차를 조정하는 조화방식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들 7차례 국제협상은 주로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방안에 관한 것이었는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업무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나 책의 무단복사를 금지하는 지적재산권보호의 필요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UR 협상이 1994년 4월에 협상이 타결되어 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기까지 8년여에 걸친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게 된 것은 농산물에 대한 무역 개방에 대하여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과 EU의 싸움이었으나 140여 회원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가와 저개발국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피해 당사자로 버려지게 된 것이다. 어떤 면에서 8년에 걸친 협상기간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한 유럽 국가들의 준비기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영국과 독일 등 전통적으로 곡물을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강력한 국가지원으로 필요한 곡물을 자급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75년도에 각각 64%, 80%에 불과하던 영국과 독일의 곡물자급률이 85년도에는 114%와 95%로, 90년에는 116%와 114%로 급격히 높아져 먹고 남을 정도의 곡물

을 생산하게 된다. 일본은 이 기간 동안 식량자급률을 더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 1980년도까지 급격히 하락하던 곡물자급률이 1990년대 이후 30%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1999년에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을 45%까지 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농산물 무역 개방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대로 WTO 무역자유화 체제를 맞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다. 한국은 6.25 동란 이후 극도의 빈곤국으로 전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으나 식량을 사올 돈이 없었으므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에 의존하여 살았다. 미국에서 보낸 밀가루와 탈지분유를 받아 멀건 우유죽을 끓여 연명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곡물 자급률 변화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미 국	111	174	157	173	142	129
캐나다	132	171	181	202	223	172
프랑스	141	152	178	204	210	181
영 국	59	64	**96**	**114**	116	114
독 일	72	80	91	**95**	**114**	113
태국(쌀)	–	–	–	146	138	218
중 국	–	98	92	94	100	94
일 본	46	40	33	31	**30**	30
한 국	81	76	**54**	48	**40**	**28**

대부분의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우유를 먹지 않았던 민족이므로 우유에 들어 있는 당질인 락토오스를 분해할 능력이 없어 우유죽을 먹으면 처음에는 모두 설사를 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달리 먹을 것이 없었으므로 매일 희멀건 우유죽을 줄을 서서 받아먹었고 이러는 과정에서 몸속에서 유당분해효소가 만들어져 더 이상 설사를 하지 않게 된다. 우유를 먹지 못하던 민족이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우유를 먹는 민족으로 바뀐 것이다.

한국은 1970년대 초까지 식량부족으로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으나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식량을 처음 수입하게 된다. 그 이후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으로 모자라는 식량을 수입할 뿐아니라 고기와 우유의 소비가 급증하여 사료곡물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 81%였던 곡물자급률이 75년도에는 76%, 80년도에는 54%, UR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90년도에는 40%, WTO가 출범한 95년도에는 28%로 정신없이 내려갔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이와 같이 급격하게 하락한 원인은 80년대에 일어난 동물성 식품의 급격한 소비 증가가 주원인이었으나 UR협상으로 인한 농산물의 무차별 수입 개방도 크게 작용하였다. 비교우위 경제이론에 근거를 둔 산업화 수출 정책은 농업분야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UR협상기간 동안 선진국들은 앞으로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식량증산에 힘썼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국가적인 노력을

들인 반면 한국은 아무런 준비 없이 WTO체제를 맞게 된다. 우리가 한 일은 고작 애꿎은 농민대표들을 협상장에 보내 머리 깎고 데모하게 한 것이 전부였다.

WTO 자유무역체제가 개발도상국에 미친 영향

한국은 UR협상 기간 동안 식품과 농산물에서 1,420종의 무역자유화 대상품목 중 1,117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을 허용했다. 이들 품목은 교역량이 극히 미미한 것들로 한국의 농산물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들이었다. 그러나 1995년 WTO 출범 이후부터 진행된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한국의 농업 인프라와 식량안보에 눈에 띄게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95년에 개방된 166품목 중에는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사과, 포도 주스, 치즈, 고추, 마늘, 참깨, 밤, 잣 등 한국의 주요 식량자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해에는 포도, 사과 주스, 버터, 농축우유, 피넛버터 등 15품목이, 97년도에는 돼지고기, 닭고기, 꿀, 오렌지, 감귤, 오렌지 주스 등 사실상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식품이 개방되었다.

한국은 쌀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농산물의 개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았다. 조삼모사의 술수로 언젠가는 피할 수 없이 쌀시장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덫을 걸어 놓은 것이다. 그것이 최소시장접근방식(MMA)이다. WTO가 시작되는

1995년에 국내 쌀 소비량의 1%만을 수입하고 이어 매년 0.25%씩 추가하여 2004년까지 수입량을 4%로 확대한다는 조건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당시 그 정도야 감수해야지 하고 조인하였으나 2014년에는 연 소비량의 8%에 해당하는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 즉 국내에서 생산한 쌀이 남아도는데도 연간 40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이다. 40만 톤이면 10톤짜리 트럭 4만 대에 해당하는 양이다. 더 이상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1999년 1월 일본 동경에서 아시아생산성본부(APO)가 주최한 국제 워크숍이 열렸다. 회의장 앞에는 '무역자유화 이후의 아시아 각국의 식량안보'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30여 개국에서 각 나라의 농업부 국장급 인사를 대표로 하는 참석자들과 몇몇 교수와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100여 명이 모인 자리였다. 이곳에서 각국 대표들이 WTO 이후에 일어난 자기 나라의 식량문제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들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아시아에는 3가지 유형의 나라들로 구분되었다.

일본, 한국, 대만은 선진국 또는 신흥 공업국에 속하는 높은 경제력으로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수입하여 먹을 수 있는 나라이나 농산물 교역 자유화로 자국의 농업 인프라가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

는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비교우위 경제이론에 밀려 점차 쇠퇴하여 식량자급률이 낮고, WTO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농업에 대한 보호장벽이 무너지면서 농업 대국들의 값싼 농작물이 마구 쏟아져 들어와 국내 농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성토하고 있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식량 종속국이 되어 몇몇 식량대국에 목줄을 매이는 비참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여 농민의 생활이 보장되고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금 등 농산물 교역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명목의 지원체제가 잘 되어 있으므로 WTO의 규정을 피해 국가가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나, 이들 신흥 국가들은 WTO의 규제에 묶여 농업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 조건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농산물 이외의 공산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해서 성공적으로 경제성장하는 나라들이므로 이러한 농업분야의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무역자유화 세계 경제질서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은 국가경제를 위해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전쟁의 냉혹한 전선에 알몸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한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국가들은 WTO가 별로 싫지 않은 기색이다. 이들 국가들은 식량자급률이 비교적

높고 일부는 쌀을 2모작 혹은 3모작까지 하여 수출하고 있으므로 무역자유화로 쌀의 수출이 늘어났다고 반기고 있다. 이들은 세계 무역 활성화를 위해 보호장벽을 없애야 하고 일본과 한국이 쌀시장을 하루속히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시아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들은 식량도 부족하고 사올 돈도 없어 국제기구와 자선단체를 통해 식량 원조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WTO 체제에서는 국제 교역을 왜곡할 수 있는 무상원조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나라들의 무역전쟁에 끼어서 굶주리도록 버려진 애처로운 신세가 된 것이다.

이 회의는 애초에 아시아 국가들의 식량안보 상황을 듣고 어떤 공동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국제사회에 권고할 계획이었으나 각 나라들의 입장이 너무나 상이하게 드러난 관계로 현황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식습관을 우리쪽으로 길들여라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318호 강의실. 비교음식문화 대학원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 오늘의 주제는 '식습관의 형성과정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토론이다. 첫 번째로 발표하는 이진숙 학생은 3자매의 어머니로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 외국생활을 하다 귀국하여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맹렬여성이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우리들의 식습관 또는 음식 기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논의로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첫아이를 출산하고 2개월 만에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갔습니다. 말단 공무원의 월급으로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았죠. 모유를 먹이다 생후 5개월경부터 이유식을 제가 직접 만들어 먹였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보니 살코기 값은 비쌀 뿐만 아니라 질겨서 아직 아이가 먹기에는 적당치 않아 보여 영양 많고 값싼 소간을 사서 당근, 감자, 쌀 등과 함께 끓인 후 믹서에 갈아 먹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집에서 간전을 만들면 첫

째가 한 접시를 혼자서 비웁니다."

"간전을 만들 때 아무리 좋은 기름을 써도 소간의 특유한 냄새가 나서 비위가 상하는데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걸 좋아하죠?" 김유림 학생이 예쁜 얼굴을 찡그리며 한마디 거든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의 경우를 보면 더 재미있답니다. 둘째는 미국에서 임신하여 출산하였는데 저의 친정 어머님이 오셔서 돌봐주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스턴은 바닷가재 랍스터로 유명한 곳이어서 가끔 살아있는 랍스터를 스팀에 쪄서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있는 우리 둘째에게 어미 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먹이듯 랍스터 살을 발라 아이의 입에 넣어주곤 했죠. 그런데 요즘 우리 집에서 게를 삶아 놓으면 둘째가 어찌나 수선스럽게 먹는지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할 정도에요."

"임신부가 게를 먹으면 애기가 옆으로 걷는다는데..." 뒤에서 어느 남학생이 익살스럽게 끼어든다.

"제가 이유식이 성장 이후의 음식 기호와 습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셋째 아이의 경우를 보고 확실해 졌습니다. 셋째는 미국에서 임신하여 서울에 돌아와 출산하였습니다.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세아이들과 시어머님을 모시고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셋째 애를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모두 모유로 키웠는데 셋째도 이유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이면서 가장 손쉽게 구하고 조리할 수 있었던 것이 계란이었습니다. 쌀죽에 계란을 섞어 으깬 것이 셋째의 한국형 이유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지금도 계란요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계란말이 하나면 한 끼 밥을 아무 소리 없이 먹어치웁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이 젖을 떼면서 처음 접하는 음식 즉 이유식이 성장 이후의 음식 기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줄에서 열심히 듣고 있던 최병진 학생이 손을 들어 코멘트를 한다. 최병진 학생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유가공회사 연구개발실에 근무하면서 대학원 과정에 들어온 주경야독형 학생이다.

"이진숙 씨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조하는 이유식에 김치맛을 아주 약하게라도 넣으면 아이들이 커서 김치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 주부들 사이에는 어린아이가 김치를 먹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치가 몸에 좋은 것은 아는데 아이들이 먹지 않으니 안타까운 거죠. '우리 회사 이유식을 먹이면 아이들이 김치를 좋아하게 됩니다.'라고 선전하면 대단히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회사의 제품개발 기밀을 말해버렸군요."

최병진은 멋쩍게 앉아 버린다. 학생들이 하하 웃는 동안 교수님

이 일어나서 가볍게 코멘트를 한다.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렸을 때 밥상에서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이 김치를 물에 씻어 쪽 쪽 찢어서 어린아이의 밥숟갈에 얹어 먹여온 전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그런 전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학생의 발표는 실로 공감이 가는 실증적 추론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동물실험이나 분석실험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결과를 얻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식품학의 많은 연구는 궁극적으로 사람에게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오늘 이진숙 씨의 발표는 대단히 가치 있는 장기간의 인체 반응 시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우진 학생이 나와서 발표하세요."

장우진 학생은 비교적 작고 왜소한 체구에 약간 여성스러운 외모로 조심스럽게 발표를 시작하였다.

"저는 저 자신의 식습관과 식품기호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저의 어머님과 대화를 통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는 1967년생인데 그때 저의 어머님은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시절 서울의 젊은 어머니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거버나 하

인츠 이유식을 아이에게 사 먹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병에 토실토실하게 살찐 서양 아이가 밝게 웃는 거버 제품을 보면 보릿고개를 겪는 한국의 어머니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약국이나 고급 백화점에나 가야 살 수 있었고, 비교적 싸게 살 수 있었던 방법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피엑스 아줌마들을 통해서 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이런 이유식을 정식 무역을 통해 수입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사실 국내에 퍼져 있던 이유식 제품들은 대부분 미군부대를 통해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식을 아주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햄버거, 켄터키 프라이드치킨, 포테이토칩 등 서양음식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번 조사에서 깨달은 것은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서양음식을 좋아하는 데는 이들 서양 이유식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거버 이유식 뚜껑을 열면 강한 버터향과 고기국물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햄버거나 치즈 요리는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는 음식이 됩니다.

1960~70년대에 미군부대를 통해 불법으로 유출된 이유식 제품의 양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부유하지도 않은 저의 집에서도 이 제품으로 아이를 키웠으니 말입니다. 피엑스 직원들이 도둑질하듯 빼내 시중에

나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한국인의 식습관을 바꾸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중에서 거버나 하인츠 이유식을 먹었던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교수님은 일어서서 학생들을 둘러본다. 20여 명 학생 중에 반 정도가 손을 든다.

"장우진의 발표는 대단히 흥미롭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와 6 · 25 동란의 아픈 역사를 경험하면서 많은 민족적인 수난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도움이 컸고 오늘날 우리가 민주 자본주의 국가로 번영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쟁 중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한국인에게 밀가루와 탈지분유로 연명하게 하였습니다. 혹자는 그때 미국의 남아도는 잉여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한국전쟁이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너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시각입니다. 물론 미국이 밀가루를 무상원조할 때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PL480협약에 따라 우리는 전쟁 후 밀의 수입을 미국에서만 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 협약은 90년대 중반에 해지되어 그 이후에야 호주나 캐나다에서 밀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 중의 기아선상에서 우리 국민의 식습관은 크게 변하였습니다. 쌀과 보리를 주식으로 하던 한국민이 밀가루와 우유를 주식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이 보급되면서 온 국민이 하루에 한 번은 먹을 정도로 밀가루 음식이 주식처럼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우유를 꼭 먹어야 되는 것으로 교육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영양학 교수들이 음식의 서구화가 곧 영양 개선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서양사람들의 주식인 우유와 고기를 더 먹는 것이 60~70년대의 영양개선운동, 식생활 개선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80년 이후 5년 동안 우리 국민의 식생활은 크게 변하여 1인당 1일 동물성식품 섭취량이 98g에서 183g으로 5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성식품의 폭발적인 소비증가에 맞추어 축산진흥정책이 세워졌고 젖소를 수입하고 사료용곡물을 대량 수입하면서 곡물자급률은 50% 아래로 떨어집니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동물성 식품의 소비증가는 필연적으로 성인병의 증가를 가져왔고 당뇨병, 고혈압, 암 환자가 급속히 늘어났고 어린아이들의 비만율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결국 식습관의 서구화는 식량자급률을 낮추어 해외종속형 식량공급구조를 만들었고 좁은 땅에서 무분별한 축산경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했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순환 구조 속으로 한국사회를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 말에 박은수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한다.

"교수님, 그러면 이러한 서구화의 부작용이 한국에서만 유독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화의 물결은 비단 한국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향이고 특히 신흥 산업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으며 우리보다 경제력이 낮은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도 서구화 바람은 거셉니다. 잘사는 것, 편안한 것,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상정입니다, 서구화 바람, 특히 식습관의 서구화는 서방 선진국에게는 대단히 유쾌한 일입니다. 그들의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을 전후하여 유엔 산하에 단백질자문그룹(PAG)이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로 식품영양학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세계의 단백질 부족 현상을 규명하고 각 나라의 단백질 식량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부족 상태가 심각했고 특히 단백질 부족에 의한 질병이 만연했던 것

입니다. 이 위원회는 식품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백질 식품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후진국을 다니면서 권고하였습니다. 단백질 식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동물성 식품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동물성식품을 더 먹으려면 선진국에서 수입해 오던지 사료를 수입해 축산을 늘려야만 합니다. 과연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이 위원회는 새로운 단백질 자원, 예를 들면 단세포단백질의 생산이나 콩 단백질의 이용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세포단백질 생산은 연구수준에서 끝났고 콩의 이용은 콩을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동북아시아지역 이외에서는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일한 것입니까?

70년대 초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식품 대기업 간부들을 만나면 자기 집에서는 아침에 빵을 토스트해서 양식으로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아침에 꼭 쌀밥을 먹이라고 권장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쌀의 식미, 다시 말하면 밥맛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쌀이 일본인에게 가장 선호되는 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경제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크게 보면 국가경

제와 식량안보를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양보 없는 경쟁과 치열한 교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식량은 하루도 거를 수 없는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이런 식량을 남의 손에 맡기고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서구사회의 선진국은 하나같이 식량자급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현명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도와주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식습관의 형성과정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토론에 참여한 여러분,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토론이 우리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이야기

아프리카 서쪽 해변에 위치한 가나(Ghana) 공화국은 골드코스트로 유럽에 잘 알려진 아름다운 나라이다. 서쪽으로 코트디부아르, 동쪽으로 토고와 접하며 남쪽으로는 대서양과 맞닿아 있다. 일찍이 유럽 노예시장의 가장 큰 피해자로,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네델란드의 식민지로, 그 이후에는 영국의 식민지로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아프리카 서쪽해변에 위치한 가나공화국

인구 2천4백만의 농업국으로 주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며 카카오 재배가 위주이고 옥수수와 벼가 주요 곡물이다. 수출총액의 60%를 카카오가 차지할 정도로 카카오 재배가 중요하다. 지난번 유엔 사무총장 코피아난을 배출한 나라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나라이다. 그만큼 선진국에 협조적이며 그들의 조언을 잘 따라온 나라이다. 이러한 가나가 최근 심각한 식량안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가나는 전통적으로 확고한 식량자급 정책을 가지고 정부의 농업 지원으로 식량증산에 힘을 기울여 왔던 나라다. 주식인 쌀, 토마토, 닭고기의 생산이 충분해서 식량에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서서히 나빠졌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구조조정 정책이 가시화되었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비교우위 경제이론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세계의 이름난 경제 전문가들마다 후진국들은 값싼 식량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업대국에서 수입하고 국가의 재원과 노동력을 각 나라의 주요 수출품 생산에 주력하여 교역을 늘여야만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UR협상과 WTO는 후진국들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중단하고 비료와 농기구 등 농업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점차 줄이

고 관세를 낮추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가나는 충실하게 따랐다. 비료 지원은 중단되어 비료가격이 크게 치솟았고 정부의 농산물 시장 개입과 가격지지 정책도 없어졌다. 쌀과 밀에 대한 최저가 지지 정책도 중단되었다. 또한 농업진흥공사와 종자배급소도 폐지되고 금융지원도 중단되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고정관세 99%는 20%로 인하되었다. 정부의 지원이 끊어진 가나의 농민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엄청난 정부지원으로 값싸게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1970년대 가나의 쌀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2002년도 쌀 수입량은 전체 수요의 64%에 달했다. 쌀 자급률이 36%로 떨어진 것이다. 1978~80년의 가나 북쪽지방 쌀 생산량이 평균 5만 6천 톤이었는데 2003년도 가나 전체의 쌀 생산량은 2만 7천 톤에 불과했다. 2003년 미국은 가나에 11만 1천 톤의 쌀을 수출했다. 같은 해 미국 정부는 미국내의 쌀 생산 농가에 총 13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불했다. 미국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57%의 미국 쌀 재배 농가들이 적자를 보았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2002/3년의 미국의 쌀 생산 및 도정 비용은 정백미 톤당 415달러였으나 수출 가격은 생산비의 66%에 불과한 274달러였다고 한다.

토마토는 가나 농업에서 효자 종목인데 특히 동부 고지대의 주산품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토마토 통조림 공장들이 개인에게 팔렸으나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 상품에 견디지 못해 모두 문을 닫아야만 했다.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는 유럽연합의 토마토 산업들이 가나 시장을 파고든 것이다. 이로 인해 가나의 토마토 생산 농가와 통조림 공장의 노동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게 되었다. 토마토 페이스트의 수입량은 1994년의 3,200톤에서 2002년도에는 24,000톤으로 증가하였다. 토마토 생산은 1995년 이래 저조한 상태로 남아있다. 유럽의 토마토 가공 제품들이 대량으로 아프리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04년에만 토마토 가공업자에게 2억 9,800만 유로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수출교부금, 생산자조합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수백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나의 닭고기 산업은 1950년대에 시작되어 순탄하게 성장하였으며 80년대 말에는 최고 수준에 올랐으나 90년대에 와서 급격한 사양길에 떨어졌다. 이 산업의 급격한 몰락은 정부지원의 중단과 수입 닭고기에 대한 관세인하에 의한 것이었다. 1993년부터 2003년의 10년 동안 닭고기의 수입량은 144%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엄청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럽산 제품들이다. 2002년도에 유럽의 15개국이 아프리카에 수출한 닭고기 양은 90억 톤, 9억

2천 800만 유로에 달하며 톤당 가격으로는 평균 809유로를 받았다. 유럽에서 수출된 닭고기에 대하여 유럽 각국 정부가 지출한 지원금은 톤당 254유로로 추산되고 있다. 무역자유화 이후 서아프리카에 대한 EU 닭고기 수출량은 8배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가나에서는 50만 양계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1992년까지만 해도 이들은 국내 닭고기 시장의 95%를 공급하였지만 값싸게 판매되는 수입 닭고기에 밀려 2001년에는 시장점유율이 11%로 하락하였다.

2003년 가나 의회는 수입 닭고기 관세를 20%에서 40%로 올렸지만, 고정관세율 99%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IMF는 가나 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혀 새 관세율을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나 주재 IMF 대표의 말에 의하면 IMF가 가나정부에 관세를 올리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지적했더니 가나 정부가 거기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가나의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후진국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도하(Doha) 협상에서 WTO는 선진국들의 국내 농업 지원을 대폭 삭감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미국과 EU는 그들의 전반적 교역간섭지원(OTDS)을 고정수준으로는 내리겠지만 적용수준으로 내리지는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농업

지원금을 현재수준에서 더 내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OTDS 최고수준은 130억~164억 달러 수준이며, 2007년도에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70~80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가나의 예는 사실상 대부분의 약소국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국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카카오, 커피, 설탕 등을 후진국에서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다. 가난한 후진국에서 정작 필요한 곡물과 육류 등 기초 식량은 선진 농업대국에서 값싸게 공급받고 선진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커피, 카카오 등 지역 특산물 생산에 집중하여 국부를 이루라고 충고한다. 이들이 말하는 비교우위 경제이론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고, 더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말이다.

선진국의 기호품으로 사용되는 이들 지역 특산물은 아열대지방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생산한다면 2-3배 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 특산물을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물가안정을 위해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이들 기호품은 비싸면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다. 그러나 곡물을 비롯한 기초 식량은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한 필수품이다. 이것을 남의 손에 의탁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 이들 후진국 국민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논리가 자명한데도 후진국들은 선진국의 충고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선진국들의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후진국 자체의 문제가 더 크다. 후진국 정치 지도자들과 부유층에게 지역 특산물 수출은 그들의 부의 원천이다. 더 많이 생산하고 국제가격에 맞게 수출하기를 원한다. 식량을 생산할 땅에 그들이 먹지 않는 특산물을 재배해야 하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난하고 무지한 노동자들과 아이들까지도 커피, 카카오 농장에 대거 투입해야 한다. 결국 선진국 국민들의 끝없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 후진국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수탈하고 있으며 후진국 국민들은 점점 더 가난과 굶주림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 WTO 무역자유화는 이렇게 세계 식량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착한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후진국의 국민 수탈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제품을 구입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II. 미친소들의 광란

소를 미치게 한 사람들

인간 광우병

광우병에 놀란 사람들

한미 쇠고기협상

IT강국의 스마트몹 식량대란

폭풍이 쓸고 간 자리

소를 미치게 한 사람들

1990년 5월 영국 농업부장관 존 검머 씨가 TV에 출연해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쇠고기 햄버거를 먹는 장면을 연출한다. 그는 "광우병이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조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영국의 쇠고기는 안전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의 팔에 안겨 있는 네 살베기 브론즈머리 소녀의 해맑은 미소가 TV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감과 안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5년 후 영국의 19세 청년 스테판 처칠이 광우병과 같은 증상으로 사망했다. 인간에게 나타난 광우병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이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영국은 패닉상태에 빠졌고 정부를 믿고 쇠고기를 계속 먹었던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미 10명의 광우병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야 스티븐 도렐 영국 보건부 장관이 96년 3월 20일 "광우병과 인간의 악성 치매증인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사이에 의학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의회에서 공식

시인했다. 이 발표로 전 세계는 경악하였으며 세기 말의 대재앙으로 간주되었다. 영국의 식당들은 문을 닫을 지경이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쇠고기 수출은 중단되었고 소나 양을 재료로 해서 만든 사료나 의약품도 대부분 폐기되거나 수출이 중단되었다. 영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광우병의 공포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조심해야 했다.

광우병은 학술명칭으로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이라고 하며 소에게 발생하는 만성 진행성 질병으로 소의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입어 수개월 이내에 폐사하는 신경질환이다. 주로 4-5세의 다 자란 소에서 발생하는데 뇌에 구멍이 생겨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 및 난동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광우병이라고 부른다. 초기 증세는 빛, 소리와 같은 조그만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흥분하여 뛰어다니며, 울음소리가 이상해지고 불안한 동작을 취하며, 침을 흘린다. 골반과 뒷다리의 이상으로 보행장애, 후구마비, 근육진전 등 신경증상을 나타내며 체중 감소와 젖분비 감소도 관찰된다. 말기에는 기립불능과 전신마비 등으로 결국 폐사하게 된다.

폐사체의 뇌조직이 스펀지모양으로 변형된다고 하여 소해면상뇌증(BSE)이라고 한다. 광우병이 식품위생 안전에 중요한 질병으로 위

협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병이 다른 종류의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병은 인간을 포함하여 소, 양, 염소, 사슴, 밍크, 고양이 등에 전염될 수 있으며 소와 사람의 경우 동물의 사체를 먹음으로써 원인 물질이 전이된다. 그래서 이 병을 총칭하여 전염성 해면상뇌증(TSE)이라 한다. 소해면상뇌증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B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소해면상뇌증과 스크래피(scrapie)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TSE가 최초로 알려진 것은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73년 유럽에서 면양에 발생한 경우가 기록되어 있으나 1936년까지 이것이 전염성 질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광우병의 감염 경로는 스크래피에 걸린 면양이나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육골분이 함유된 사료를 섭취하면 발생한다. 영국에서 이 질병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스크래피에 감염된 면양의 내장과 골분을 이용한 동물성 단백질을 초식동물인 소의 농후사료에 혼합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원래 면양을 많이 사육하는 나라로 소 사육두수의 4배의 면양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도살한 후 엄청난 양의 도체 폐기물(뼈, 머리, 내장 등)이 생산되는데 이들을 가열, 건조, 분쇄하여 육골분(MBM)으로 만들어 가축사료로 써왔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 소의 단백질 급원으로 널리 사용하여 왔다. 또한 도축장에서 나오는 소의 머리, 뼈, 내장 등 폐기물(specified bov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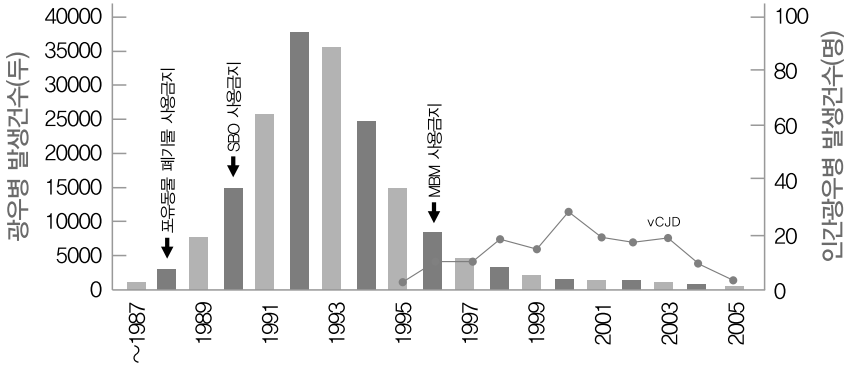
offals, SBO)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사료로 사용하여왔다.

1984년 12월 초 영국 서섹스(Sussex)의 한 농가에서 소들이 이상행동을 하여 그 뇌 샘플을 영국 중앙수의과학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BSE로 판명되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영국의 광우병이 세계에 처음 알려졌다. 처음에는 이 병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이 병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우병 감염 소가 빠르게 늘어나 87년까지 446두가 발생하자 1988년 영국정부는 소에게 죽은 양고기 사료를 먹이는 것을 금지하였고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모두 도살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3년까지 영국에서 122,324두의 소가 광우병으로 죽었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인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스위스에서도 1989년과 1990년부터 발생되기 시작하여 2001년까지 647두, 602두, 391두가 각각 발생되었으며, 프랑스에서도 1991년부터 시작하여 344두가 발생하였다. 1996년 영국과 유럽연합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도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96년 5월 3일 광우병에 감염됐거나 감염의 개연성이 높은 8만 마리의 소가 처음으로 도살되었으며, 이후 수조 원의 비용을 들여 수백만 마리의 소가 유럽 전역에서 도살되었다.

광우병의 발병이 양이나 소의 도축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

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국정부는 1988년 7월 포유동물의 폐기물을 소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치로 소에서의 프리온 잠복기 3~5년이 지난 1993년부터 영국의 광우병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도축장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의 사용을 금지한 후에는 1996년부터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1996년에는 사료에 모든 육골분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2005년 영국의 광우병은 일단 잡혔다고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료 관리를 잘하면 소의 광우병은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친환경주의자인 영국의 찰스 왕

영국의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 발생추이



1986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최초로 발생되었으며 이후
1992년 영국전역에 걸쳐 발생이 정점을 이루고 그 후 점차로 감소했다.

세자는 "인간이 대자연의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받게 된 보복"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발생 이후 유럽의 축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물을 가두어 두고 농후 사료를 먹여 고기와 우유 생산을 최대로 하는 기업형 축산을 지양하고 생태 친화적인 방식으로 축산업을 전환하고 있다. 농가의 가축 사양 두수도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농지면적에 따라 사육두수를 정해주는 철저한 축산업 허가제를 EU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전부터 한국에는 미친 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소가 늙고 일에 지치면 주저앉는다고 한다. 일어나지 못해 쩔쩔맬 때 뱀장어를 하나 입에 넣어 주면 이걸 먹고 벌떡 일어난다고 한다. 장어 맛을 본 소는 틈만 있으면 논 뚝 개울에서 장어를 잡아먹는데 엄청 힘이 세어져 고삐를 끊고 내달린다고 한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소 여물을 끓일 때 절대로 고기국물을 넣지 못하게 한다. 구수한 고깃내도 풍기지 말라고 하신다. 고기국물을 먹으면 소가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광우병을 알고 있었다.

산업화 대량생산 시대가 되면서 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던 소를 우리에 가두고 고단백질 사료를 주어 빠르게 살찌우는 일이 과학적

축산으로 정착되었다. 도살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고온에서 찌고 말리고 분쇄한 단백질 사료 육골분을 소에게 먹이기 시작한 것이다. 동물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경제적인 자원 활용 방식이다. 그러나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동족의 살을 먹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이다. 신이 있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인간 광우병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전염성 해면상뇌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식인종에서 나타나는 구루(Kuru), 유전적 변이에 의한 GSS병, 보통 크로츠벨트 야콥병(CJD), 그리고 감염된 소에서 전이되는 변형 크로츠벨트 야콥병(vCJD) 등이다. 보통 크로츠벨트 야콥병은 변형된 단백질인 '프리온'이 중추신경에 축적되어 뇌에 광범위한 손상을 일으켜 다양한 신경증상을 보이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대부분 산발성 CJD이며 인구 100만 명당 0.5~2.0정도 발생한다. 대개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퇴행성 돌연변이로 발생하며 초기에 치매증상을 보이다 대개 1년 이내에 사망한다. 미국은 연간 400건, 일본은 150건, 한국은 20건 내외의 CJD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변형 크로츠벨트 야콥병은 '인간 광우병'이라고도 하는데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특정부위를 섭취해서 감염되는 질병이다. 보통 CJD와 달리 젊은 사람에서 많이 발생한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일

부를 사람이 먹고 나서 오랜 무증상기(잠복기)를 거쳐 변형 크로츠벨트 야콥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환자가 1년, 모두 2년 이내에 급속히 진행하는 치매로 인해 사망한다.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기억력이 상실되고 이상행동을 보이며 정신지체 및 치매가 생기고 수족의 무의식적 운동 등을 보이다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괴로움으로 소리를 지르며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간다. 죽은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면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병에 대한 치료제가 전혀 없다. 더구나 다른 감염병과는 달리 잠복기가 너무 길어 5~40년이나 지난 뒤에 증상이 나타나며 드물게는 유전된다고 한다.

변형 크로츠벨트 야콥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몸에 축적된 변형 프리온(prion) 단백질이 사람으로 전이되어 발생한다. 프리온은 1982년 미국의 신경과 의사인 스탠리 프루시너(Prusiner)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변형된 단백질로 동물이나 인간의 신경세포막에 존재하는 당단백질로서 프리온 단백질 자체는 병을 일으키지도 않고 감염력도 없다. 그러나 프리온이 중추신경에 축적되면 뇌에 광범위한 손상을 일으킨다. 프루시너는 프리온병의 정체를 밝힌 공로로 1998년 노벨의학상을 받았다.

1995년 영국의 스테판 처칠(19)이 광우병과 같은 증상으로 인간에

게 나타나는 변형 크로츠벨트 야콥병으로 사망한 이래 다음 해에는 영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고 같은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0명으로 늘어났다. 2000년에는 사망자수가 영국에서 70명을 넘어서자 광우병 공포가 유럽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였다. 2008년까지 전 세계 11개국에서 208명의 변형 CJD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영국에서 167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23명, 아일랜드 4명, 미국 3명, 스페인 3명, 네델란드 2명, 포르투갈 2명,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여기에는 수혈로 인해 감염된 사례가 4건 포함되어 있다.

광우병은 2년 이상 된 늙은 소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30개월 이상 된 도축 소의 광우병 감염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우병의 감염소로 알려진 고위험 부위(SBO)인 뼈, 머리, 내장 등의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의 뇌조직, 척수, 안구, 췌장, 림프절, 비장, 편도, 태반, 뇌척수액, 부신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뼈가 섞인 고기와 고위험부위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뿐만 아니라 소의 혈액이나 장기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광우병에 놀란 사람들

1996년 광우병이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유럽 국가들은 경악했고 영국산 쇠고기의 수출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이때는 유럽 통합 운동이 일면서 유럽 국가들 간의 수출입 개방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던 때였다. 1988년까지 영국 소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되었으며 영국산 쇠고기 역시 유럽 각 나라에 팔리는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80년대 말부터 광우병이 사람에게도 전이될지 모른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영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영국 농축산물과 경쟁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아직 광우병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영국의 광우병 사태는 영국의 농축산물 수입을 막는데 아주 좋은 구실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나타나자 유럽 연합은 영국의 쇠고기 수출 금지를 즉시 결정하게 된다. 영국

내에서도 쇠고기 소비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영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쇠고기 메뉴를 애써 피했고 외교관이나 상사 직원들은 자국에서 쇠고기를 공수하여 먹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아일랜드,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고 독일에서도 '97년에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견되자 영국의 쇠고기 금수조치는 설득력을 잃어 갔다. 또한 뼈가 없는 쇠고기는 안전하며 머리, 내장, 척추 등 특정 위험부위만 제거하면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이될 위험은 크지 않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유럽연합 내에서 영국의 쇠고기 수출 금지 조치는 2년 8개월 만에 해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광우병은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유럽 사람들이 겪는 괴질로 생각되었다.

광우병이 전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것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2001년에 일본, 2003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각각 발생하면서이다. 광우병이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 나타난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1년 한해에 3마리의 소가 광우병 판정을 받았다.

2001년 9월 일본 지바현에서 발생한 젖소 1두가 영국 수의검사소의 정밀검사 결과 BSE로 확인됨으로써 아시아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례가 되어 소 사육농장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비상이 걸렸

다. 다케베스토무 농림수산상은 "광우병은 뇌나 척수, 안구 등을 통해 옮겨지는 것이므로 그 부분만 먹지 않으면 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였으나 설득력을 잃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쇠고기 소비량은 42% 감소하였다. 일본 정부는 2001년 10월 육골분의 소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도축우의 BSE 검역을 강화했다. 300만 두의 소에 대한 BSE검사를 수행했으며 그중 16건의 양성반응을 발견하였고 특히 2건은 21개월과 23개월 된 젊은 소에서 나타났다. 일본은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하여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법을 통과시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수검사하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의 전수검사 배경은 설령 광우병이 일본에 퍼진다 하더라도 소라는 소는 모두 조사하니 식탁에 올라가는 쇠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국민 안심용이고 또한 국제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이다. 그러나 전국 100여 개의 검사시설에서 전수검사에 드는 비용과 인력은 엄청나며 세계에서 쇠고기 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다.

2003년 5월 캐나다 북 알버타주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 다행히도 이 소는 광우병 진단을 받기 전인 1월에 잘 걷지 못하는 병에 걸린 소로 도살되어 식품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육골분으로 처리되어 반추동물 이외의 동물사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소는 캐나다에서 출생한 6~8년 된 소로서 죽기 6개월 전 80마

리의 소와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두 개의 가축 공급라인을 통해 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연관이 되는 2,700마리의 소가 도살 폐기되었으며, 이중 연령이 24개월을 넘는 2,000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추가로 감염된 소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캐나다 식품검역처(CFIA)는 30개월 이상 된 소의 도축부산물 중 위험부위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것을 포함하는 식품의 판매와 광우병 발생지역에서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소의 이력 추적시스템을 강화하고 연간 캐나다에서 도축되는 전체 325만 두의 도축 우 중 BSE 검사 두수를 현행의 8,000두에서 3만 두로 강화했다.

이 사건으로 캐나다의 소 값은 8주 사이에 100kg당 107달러에서 30달러로 급락하였으며 미국의 캐나다 쇠고기 금수조치로 연간 11억 파운드에 달하는 미국시장에 대한 쇠고기 수출 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캐나다는 국내생산 쇠고기의 50%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중 70~80%가 미국시장에 수출해 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5년 1월에 제2 및 제3의 광우병 감염소가 캐나다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중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육골분의 소사료 사용을 금지하기 전인 1996년에 출생한 것이며 다른 한 마리는 금지 1년 후에 출생한 것으로 광우병의 위험이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미국 농무부는 2003년 12월 23일 워싱톤주 모세레이크의 도축장에서 12월 9일 도살한 한 소에서 BSE 양성이 나왔다고 발표하였다. 다음날 미국 식품안전검역원을 이 감염소와 함께 도축된 쇠고기 10,410파운드를 시장에서 회수하였다. 이 뉴스는 미국 CNN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세계 각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잇달아 금지하는 등 파장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미국 CNN은 미국의 2003년 쇠고기 수출액은 모두 35억 달러이며,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손실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미국시장에서의 쇠고기 값은 처음 다소 떨어졌으나 곧 정상을 회복하였다. 그것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의존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는 문제의 광우병 감염소가 2001년 8월에 캐나다 알버타에서 수입해 들여온 소라고 발표하였다. 이 소의 연령이 6.5세였으므로 1997년 캐나다에서 육골분의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 출생한 것으로 밝혀져 오염 육골분 사료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4년 7월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식품안전검역원(FSIS)은 광우병 위험부산물, 기립불능증 소, 검역받지 않은 모든 소, 기계적 뼈 발름한 쇠고기의 식품이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미국의 광우병 발생 보도가 나온 다음 날 한국 정부는 "현재 수입

돼 검역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소의 살코기와 척추 뼈 · 내장 및 육가공 제품에 대한 출고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미국산 소의 내장과 척추 뼈 등은 판매를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올 들어 지난 24일까지 미국에서 내장 · 등뼈 · 소머리 등 '광우병 위험부위 '를 포함한 소 부산물 4만 4,300톤이 수입됐으며, 이 중 광우병 소가 발견된 워싱턴주에서는 5,500톤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미국산 '광우병 위험부위'가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국내에서 소비되는 쇠고기 가운데 미국산이 44%에 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에 따라 국내 쇠고기 공급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상황은 뜻밖이었다. 광우병에 놀란 소비자들은 수입 쇠고기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를 사용하는 식당과 패스트푸드점들도 손님이 뚝 그쳐버린 것이다. 광우병 파동을 맞은 시장의 풍경을 당시의 신문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 서울 시내 한 할인점 수입육 코너가 광우병 파동 이후 찾는 손님이 크게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광우병 발생 이후 유통 업체들의 수입육 판매는 60%가량 줄었다. 추석과 함께 일 년 중 유통업계의 가장 큰 대목인 연말이 어

느 때보다도 썰렁하기만 하다. 올 한해 매출 부진에 시달려 온 유통 업체들은 12월 들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으로 '최악의 연말'을 맞고 있다. 백화점들은 매출 만회를 위해 이달 내내 송년세일 사은행사 경품행사를 열었지만, 생각처럼 고객이 늘지 않아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백화점보다는 매출이 괜찮았던 할인점들도 연말 '육류대란'으로 확보해놓은 미국산 정육을 호주산으로 서둘러 대체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광우병 파동 1개월 '마장동 牛시장' 하루 1~2개 점포 문 닫아 … 돼지고기 판매로 전업도. "예전엔 하루 10톤 팔았는데 요즘은 1톤도 안 돼" 적자만 쌓여 … 갈비탕 · 설렁탕집까지 한파. 28일 낮 12시 서울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600여 미터에 이르는 티(T)자형 대로와 이를 중심으로 잔가지처럼 얽혀 있는 골목에 크고 작은 점포가 4,200여 개 들어서 있지만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겼다. 팔리지 않아 수북하게 쌓인 애꿎은 사골을 이리저리 뒤적이는 상인들만 눈에 띌 뿐이다. 이 시간이면 도 · 소매상들이 잔뜩 고기를 싣고 가다 족발가게에서 요기를 하거나, 육회를 안주로 소주 한두 잔이 돌아야 하지만 시장은 쥐죽은 듯 조용해 어쩌다 틀어놓은 트로

트 선율만 쩡쩡 울렸다. 서울시와 수도권 일대에 육류 총 공급량의 65%를 차지해온 이 쟁쟁한 마장동 우시장이 광우병 파동으로 맥없이 주저앉은 것이다. 10년째 쇠고기와 소뼈를 팔고 있는 소(小)도매상 양○○(여 · 59)씨는 단골마저 뚝 끊겨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돼지 머리고기를 팔고 있다. 한 달 내내 단 사흘만 개시했을 뿐 다른 상인들과 '가게를 비울지, 어쩔지' 신세한탄으로 한나절이다. 대형 도매상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Y축산유통의 박모(38) 사장은 '절대판매 금지(미국산 곱창)'라고 써 붙인 냉동고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 따라놓은 소주잔을 들이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15년 만에 도매상 업계 최악이에요. 예전엔 하루 10톤 나갔는데, 지금은 1톤도 안 나가요. 믿어져요? 그 중 뼈 매출이 30%였는데, 내장뿐 아니라 뼈도 하나 안 팔리거든. 예전엔 한 달 매상 6000만 원이었는데, 직원 한 명당 인건비 250만 원에, 가게 세 · 세금에다 고기값도 올라 요즘은 한 달째 적자가 4000만 원이오, 4000만 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동안 유럽의 광우병에 대하여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고, 2001년 1월에는 농림부의

'광우병 방역 중장기대책'이 발표되어 한바탕 쇠고기 불매 사태를 겪었던 것이다. 농림부는 광우병의 감염을 유발하는 육골 분말사료를 소와 양 등 반추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들이 김포공항에서 압류된 불법 휴대 육류들을 광우병을 예방한다며 소각하고 있는 장면이 보도되자 국민들의 광우병 공포가 폭발하게 되었다. 매스컴에서는 광우병의 위험과 유럽의 실태를 연일 보도했고 농림부가 관세청과 합동으로 EU 등 30개국으로부터 소, 양은 물론 그 생산물과 부산물의 반입 중단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국제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과 승무원이 휴대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도 검색작업을 벌이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1998년 IMF 이후 자원 재활용과 사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일제히 설립됐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 만든 사료를 소, 양 등 반추동물에 먹이지 말라는 방역당국의 지시가 연일 보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매스컴을 통해 간간히 보도되어 먼 외국의 일로만 여겨져 왔던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우리 옆에 실제로 성큼 다가선 것 같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한미 쇠고기협상

2005년 6월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후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뜻을 밝혔다. 그리고 2006년 9월 11일, 2년 10개월 만에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승인되었다. 그리고 2007년 5월 25일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2등급 평가 판정을 받는다. 광우병 위험통제국이 되면 30개월 미만 소의 위험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측에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2007년 7월 29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에서 위험부위 등뼈가 검출되어 검역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정부의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국 측 해명을 들은 후 8월 23일 수입재개를 결정했다. 같은 해 10월 5일 2차로 수입쇠고기에서 등뼈가 검출되어 검역이 다시 중단되었다. 이후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회에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는 문제와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월령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10월 12일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1차 협상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참고로 일본은 미국의 2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대만은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2007년 12월 19일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는 앤디 그로세타 미국 축산육우협회 회장이 참석하는 등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가 한껏 증진되었다. 2008년 3월 5일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무역보고서에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한국 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겠다"며 한국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8년 4월 9일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자 미국의 쇠고기 협상 재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한국 정부는 4월 10일 쇠고기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했고, 11일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2008년 4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19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날에 한미 쇠고기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 4월 11일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시작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동물성 사료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에 협상은 타결됐고, 합의 내용은 당초 우리 측 입장을 대폭 양보한 결과가 된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IT강국의 스마트몹 식량대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아예 폐쇄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미니홈피에는 29일 하루만 10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폭주해 방명록에 수만 개의 욕설과 항의성 글을 남겼다"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미니홈피를 관리하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이 29일 밤 10시쯤 방명록과 일촌평 등 글을 남길 수 있는 기능들을 폐쇄했다"고 했다.

'안티 이명박' 네티즌들은 각 포털사이트에 동영상, 패러디물, 블로그뉴스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맹렬히 공격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 청원방이 개설된 지 3주 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서명이 12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자존심 따위 갖다 버리신 대통령님, 이런 대통령은 우리는 계속 인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29일 밤에 방영된 MBC 문화방송의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다. PD수첩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미국 동물보호단체가 보여준 주저앉은 다우너 소를 도축하는 장면과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의심되는 22세의 여성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 등을 심층 취재해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의 대통령 탄핵 서명은 30일에 20만 명을 넘었으며, 1일 오후에는 33만 6천 명, 2일 새벽에는 47만 명을 넘어섰다. 일부 언론은 '쇠고기 수입 반대, 사이버 민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인터넷에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는 미국 내 쇠고기와 다르다.' '티본스테이크에 30개월 이상 등뼈 들어갈 수 있다.'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 걸린다' '한국인의 유전자는 광우병에 약하다.' '소의 신체 일부로 만든 과자, 화장품, 기저귀도 위험하다.' '치매환자 중 상당수가 드러나지 않은 광우병 환자다.' 등등 자극적인 괴담이 인터넷을 메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카페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촛불문화제 '미친 소, 너나 처먹어라!!' 제하의 집회가 5월 2일 저녁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열린다고 올려진 것이다.

2008년 5월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는 1만여 명이 모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한 카페 회원 수백 명이 참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시민들이 속속 몰려들어 주최 측이 준비한 1만 개의 초가 금방 동이 났다.

참가자들은 주로 퇴근길 시민들인 20~30대 젊은 층이었지만 교복을 입은 중고생들도 적지 않았고 중장년층도 눈에 띄었다. 인터넷의 가공할 위력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인 한국에서 최초의 SNS 정치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광우병 소를 몰아내라', '이명박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나눠준 촛불을 들고 청계천 주변 인도와 차도에 앉아 "미친 소 먹고, 미치기 싫어" "굴욕적인 대미 외교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현장에는 '한국인 감염률 95%, 에이즈보다 무서운 광우병 감염 경로'라는 제목의 A4용지 크기 전단지가 뿌려졌다. 이 전단지는 화장품 · 떡볶이 · 어묵국물 · 과자 · 팥빙수까지 광우병 위험 제품이라는 내용이었다.

오후 10시쯤 집회는 평화적으로 끝나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촛불문화제에 앞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정부는 각종 '미국산 쇠고기 괴담'의 확산을 막기 위해 5월 2일 오후에 관계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긴급히 마련했다. 기자회견은 언론과 정부 간 치열한 공방전 분위기로 진행됐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서둘러 개방한 배경 등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정부 측 참석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2일 밤 10시 청계광장

그러나 사태는 점차 정치적인 목적으로 번져나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시위집회는 다음날 주말인 3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만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5월 6일에 결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에는 소비자단체와 네티즌 외에 참여연대, 다함께, 환경정의, 평통사, 전국민중연대 등 1000여 개 단체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날 저녁에 또다시 시민 1만 2천여 명이 서울 청계광장과 여의도에서 각각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인터넷 모임 '미친소닷넷'의 주최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에서는 3천여 명의 시민이 촛불을 밝히고 쇠고기 전면수입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날 학생들의 참여를 자제하도록 한다는 교육당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청계광장에 모인 시민들 가운데 초·중·고교생들이 4분의 1 가량 됐다. 학생들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청계천에서 시위할 때 한 사람이라도 모이면 힘이 된다'는 내용의 글을 봤다. 더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학원에 가느라 못 왔다"라고 말하며 "광우병 위험이 큰 쇠고기 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렇게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논란은 같은 해 8월 중순까지 석 달 넘게 대한민국을 미친소처럼 들끓게 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5월 7일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제2차관, 농업통상정책관, 축산정책단장, 동물방역팀장, 식품산업본부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과 검역검사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청문회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 조치를 공포한 시점에서 월령 제한을 푼 것에 대한 문제점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 추궁했다. 한국의 검역주권을 상실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 이후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 불가론에서 조건부 재협상론으로 물러섰다. 대통령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4월 18일 한 · 미 양측이 서명한 합의문을 거스르는 내용이다. 합의문 4조와 5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를 낮추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철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하는 의무만 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욱 확대되어 촛불문화제가 거의 매일 밤 열렸다. 촛불문화제에는 트럭 위에 설치된 자유발언대를 중심으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광우병 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십 명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유발언대로 올라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발언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선 시민들도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네티즌 모임인 2MB 탄핵투쟁연대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미 쇠고기 수입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미친소닷넷'도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5 · 17 청소년행동 공동준비모임'이라는 청소년 단체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중고교생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구호를 외쳤다.

한편 국내 최대 보수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5월 18일 서울광장에서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하였으며, "광우병 괴담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자 현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국민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에 밀어닥친 광우병 공포는 시장 바닥의 뜬소문이 과장되고 비과학적 선동으로 국민들을 몰아넣었기 때문"이라고 해 반정부 시위대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 협의를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추가협의 내용은 사실상 야당과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레첸 해멀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이 같은 한국정부의 발언에 대해 "부정확하다"면서 "한국과 진행된 협상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국민여론은 악화되었으며 지금까지 광장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돼 왔던 촛불집회가 5월 24~25일 이틀 연속 서울 도심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됐다.

한국 정부는 5월 29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한 후 연일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다. 수만 명의 시위자를 강제해산하기 위해 물대포가 등장했고 경찰의 강제진압과 시위대들의 과격 충돌이 몸싸움과 부상자를 내는 난장판이 매일 벌어졌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6월 5일 오후 72시간 연속 철야 시위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광

장에서는 전사자 위령제를 지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측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려던 시민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시민 4명이 중 · 경상을 입었다. 7일 새벽에는 서울 신문로 구세군회관 옆 2차선 도로에서 전경버스로 된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부 시위대가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었다. 경찰은 절단기로 밧줄을 끊으려 했다. 그러자 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절단기를 빼앗아 경찰이 타고 있는 버스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다.

이러는 와중에 광우병 불안의 핵심인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해법으로 한미 양국은 '추가협상'은 피하고 '민간 자율 규제'를 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국 정부는 후속 대책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적인 조치'는 양국 정부 차원의 재협상이 아니라,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민간자율 규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민간자율 규제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일부 여론에 대한 대응조치로 나온 것이다.

민간자율 규제 방식으론 크게 두 가지가 협의되고 있었다. 미국

수출업체들이 쇠고기 월령을 30개월 이상 · 미만으로 구분 표시해 수출하는 방식은 거의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법만으로도 사실상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소비자의 불매운동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의 민간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거래하지 않도록 결의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이상을 수출하지 않고, 우리나라 수입업자들도 30개월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 방법은 양국에서 반대하는 업체가 몇 곳이라도 나오면 지켜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6 · 10 민주항쟁 21주년에 맞춰 10일 대규모 촛불시위가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시작됐다. 주최 측 추산 70만 명, 경찰 추산 8만 명의 기록적인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세종로 사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시위 진압용 대형 컨테이너를 겹겹이 쌓아 광화문 쪽 진행을 전면 차단했다. 세종로 사거리부터 태평로, 덕수궁을 거쳐 삼성 본관 앞까지 이르는 도로를 가득 메운 시위대는 어두워 지자 "청와대로 향하자" 며 종로1가를 거쳐 안국동 방향으로 나갔다.

대규모 촛불집회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부산, 광주, 전남, 강원, 춘천등 도내 10개 시 · 군 14곳에서 촛불집회가 열

렸다. 또한 곳곳에서의 '100만 촛불대행진'은 흡사 '대동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집회와 거리시위 내내 곳곳에서 노래와 춤, 자유로운 토론의 마당을 형성하면서 폭력시위에 대한 우려를 기우로 만들었다.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105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소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촛불로 보여줄 것은 충분히 보여줬기에 이제는 촛불을 끄고 냉정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서울 도심에서 연일 벌어지는 촛불 시위를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미 워싱턴 포스트(WP)를 비롯한 AP · 로이터 등 외신들은 한국의 대규모 시위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WP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한국 각지에서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쇠고기 문제로 시작된 시위가 점점 변질, 좌파 성향의 단체와 노조가 보수주의적인 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장으로 변했다"고 보도했다. 중동 뉴스 전문 위성채널 알자지라는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를 매시간 정시 뉴스를 통해 긴 시간을 할애

해 가장 먼저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한국의 분노'라는 제목의 이 보도에서 "출범 4개월째인 이명박 정부의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발표했는데도 한국 국민은 오늘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도했다.

중국 언론은 6.10 항쟁 21주년을 맞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치러진 촛불집회를 상세히 보도하고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는 국제면 톱기사에서 한국에서 쇠고기 위기가 고조돼 내각이 총사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언론은 6.10 항쟁 21주년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 벌어진 촛불시위를 크게 보도하면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상파울루에서 발행되는 유력 일간지 가운데 하나인 폴랴 데 상파울루는 국제면 1개 면을 거의 전부 할애해 태평로를 가득 메운 촛불행렬 사진과 함께 "수십만 명의 촛불시위대가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주요 외신들은 서울 거리를 메운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시위가 흔한 한국 기준에서도 이례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넘어 아시아 4위 경제를 우려하는 진단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뉴스분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 결정이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면서 촛불시위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반미감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도심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머리를 조아

릴 필요는 없다' 는 한국 내 민족주의적 정서의 표출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 인파가 참여했던 '6.10 항쟁' 21주년 촛불집회가 정권 퇴진 운동이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촛불시위를 이끌어왔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20일까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 정부퇴진운동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3일 집회에도 예상을 뛰어넘은 규모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기세를 재확인했다. 이날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 · 미선양의 6주기이기도 해 국민대책회의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37번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대책회의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쇠고기 반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일괄 반대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천명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인 15일에도 서울시청 광장에서 제39차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갔다.

한편 자유시민연대 등 4개 보수단체는 13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회원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쇠고기 재협상요구 중단과 정부의 법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촛불시위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흔들기나 마찬가지"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나라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편파 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문화방송(MBC)에 난입을 시도했다.

광우병 대책회의가 투쟁 의제를 반정부 운동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촛불집회 참여 인원이 대폭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동맹휴업을 벌였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앞으로 정치이슈를 다루는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008세계석학초청' 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미 코넬대 일본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집회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며 "촛불집회는 참 한국적인 재미있고 희한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우병이란 게 한국에서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의아해했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미국 쇠고기 수입 졸속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촛불 저항이 결국, 정부의 검역주권 회복과 미국 내수 · 수출용 쇠고기 간의 SRM(특정위험물질) 동등성을 확보하는 추가협상을 이끌어냈다. 미 무역대표부는 6월 12일 성명을 통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더 아비주(Arvizu)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비주 부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에서 미·일 관계 청문회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쇠고기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상호 이해에 맞는다"고 말했다. 아비주 부차관보는 또 청문회에서 일본이 2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불공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미 장관급 추가협상이 6월 13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측은 30개월령 이상의 소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30개월 미만인 소에서 나온 살코기만 수입이 허용되던 2007년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살코기라는 사실을 EV를 통해 수출 검역증에 표시해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정부가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EV를 동원할 경우 자율규제에 미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지난 4월 한국과 체결한 수입조건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협상 첫날인 13일 김종훈 본부장은 3장의 사진을 협상 테이블에 꺼내 놓았다. 촛불시위 최대 인원을 기록한 6월 10일 광화문 일대를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슈워브 대표에게 "이 사진을 봐라. 과학만으로 설명될 사진이냐"고 말했다. 이 말은 미국산 쇠고기의 과학적 안전성만으로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잠시 뜸을 들인 뒤 김 본부장은 굳은 표정으로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신은 한 · 미 관계를 망친 장본인으로(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은 당초 추가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촛불시위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자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다.

청와대가 워싱턴으로 급파한 김병국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측과 추가 협상의 물꼬를 텄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동맹 이슈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에 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이 시작된다는 보고를 받고 최대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슈워브 대표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슈워브 대표는 협상 이틀째인 14일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프로그램이라는 협상안을 제안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검역 권한 강화에 대해선 완강하게 반대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다음날인 15일 김 본부장은 협상 결렬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귀국하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하고 뉴욕발 대한항공에 탑승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백악관은 비상이 걸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테니 김 본부장의 귀국을 만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때부터 김 본부장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한 · 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타결된 19일 워싱턴 외교가에는 "끝없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김 본부장과 '한국의 주장을 가능하면 들어주라'는 백악관의 지침에 끼어 협상 주도권을 상실한 슈워브

대표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30개월령 이상의 소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는 공정증명(PV) 또는 품질제도평가(QSA)를 거친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출 검역증을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더 나아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도 머리뼈 · 뇌 · 눈 · 등뼈 속 신경 등 4개 부위도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양국 정부는 합의했다. 이 부위들은 30개월 미만 소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입을 안 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쟁점인 30개월 이상 수출금지 기간에 대해, 추가협상에선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혹은 '한국 수입업계가 수입을 요청할 때까지' 등의 문구로 표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쇠고기 수입조건 시행 후 90일 이후에는 미 정부 단독으로 수출 작업장을 정하도록 돼 있는 점이 이른바 '검역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작업장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수입조건 부칙에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4 · 18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특정한 작업장을 지정해 점검할 권리가 없고 그 작업장에 반드시 제재를 주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할 권리도 없었다. 그러

나 이번 추가협상에선 미국 내 작업장들 가운데 특정한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 정부가 작업장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리 측이 미국에 협의를 요구하고, 4주 안에 적합한 조치가 합의되지 않으면 우리 측은 해당 작업장의 수출물량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19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내용으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발표되었다. 정부는 추가협상 결과를

21일 관계부처장관 회의, 고위 당정협의를 거친 후 오후 4시에 공식 발표했다.

미국 축산업 중심지인 몬태나주 상원의원으로 '미스터 쇠고기'로 불리는 맥스 보커스(Baucus)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추가 협상을 비판했다. 그는 21일 AP통신 등에 보낸 성명에서 "추가 협상이 실질적으로 4월 18일 체결한 협정을 변경했다"며 "이번 협정의 의미는 한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미국 쇠고기 교역에서 불행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미국 농업 전문 매체인 '애그웹(AgWeb)'은 23일 "이번 한미 양국 간 쇠고기 합의는 양국 정부가 재협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재협상이었다"면서 "이번 합의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중립적 시민단체인 '시티즌 아웃리치'의 더그 밴도우(Bandow) 부회장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왜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폭스 TV에서도 일부 강경파 인사들이 시사 토크쇼에 출연,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화당의 색스비 챔블리스(Chambliss) 상원의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아직도 관리무역체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데 실망했다"고 미국 쇠고기의 전면 수입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장기적 경제 이득을 포기하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P. AFP.로이터 등 외신들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무기한 수입금지를 골자로 한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 발표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에 위기를 초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한 · 미간 추가 협상이 타결됐으나 대규모 '촛불집회' 등 반대 시위가 진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미국과 영국의 주요 신문들은 한국과 미국의 추가 쇠고기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혹은 미

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게 될지 협상 이후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인터넷판에서 "이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고 참모진 교체와 내각 개편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시위는 쇠고기 문제를 넘어 이 대통령의 통치력 전반에 걸쳐 반대하는 모양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반대하는 '48시간 국민행동돌입' 촛불집회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 발표 이후, 촛불 시위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특히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나 중고생들의 참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 줄어들지 않는 것은 특정단체들의 깃발들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촛불집회 참여를 끝내기로 선언했다. 박사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쇠고기 재협상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갔고, 국민적 요구를 90% 이상은 채울 것"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해 '그만해야 한다'(58.5%)는 의견이 '계속돼야 한다'(35.5%)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부산항 냉동 컨테이너 야적장과 경기도 지역 냉동창고 등에서 출하 저지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 세종로 사거리 일대에는 시위대의 불법과 폭력이 난무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쇠파이프를 들고 나왔다.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가 격렬해지자 경찰은 살수차를 앞세워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다.

시위대는 호텔 등 민간기업의 시설물과 재산을 훼손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다. 6월 27일 새벽 한 여성은 시위대가 코리아나호텔 유리창을 깨는 것을 보고 "외국인이 드나드는 호텔문을 왜 부수느냐"고 말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하려고 나섰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공동대표 고진광씨도 폭행을 당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 조선 · 동아일보 노동조합은 조선 · 동아일보 기자가 광화문을 점거한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폭력을 외치던 촛불시위가 언론사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민간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양상으로 변질됐다. 시위 현장엔 촛불을 든 다수의 시민 대신 복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벽돌과 새총, 물병을 든 사람들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시위를 주도했던 일반 시민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소수 그룹이다. 촛불집회가 반정부 운동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곡괭이와 망치가 등장하는 등 갈수록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었다.

7월에 접어들면서 종교단체들이 촛불집회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시국미사' 촛불 집회와 거리행진을 열었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30여 개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목회자 일동'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목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에 대한 폭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이어받아 촛불시위를 벌였다.

7월 4일에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불교 시국법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국민주권수호 권력참회 발원 시국법회'가 열렸다. 법회에는 스님과 신도,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 등 만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7월 7일자)는 폭력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촛불시위를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인해 권위주의시대의 습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돈 오버도퍼(Oberdorfer) 소장은 한

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시위는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보수정권에 대한 진보그룹의 정치적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7월 4일 방한한 국제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입국 첫날 경험한 집회에 대한 소감을 "위대한 민중의 힘이다. 굉장히 평화롭고 잘 조직돼 있다. 동아시아 담당관으로 어디에서도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촛불집회는 보는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되고 있었다.

촛불시위에 지친 국민들

'도와주세요! 거리 시위로 음식점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시위는 이제 그만! 죽어가는 음식점 경기를 살려주세요!' 7월 1일 세종로의 이순신 동상 앞에 50여 명의 중년 남녀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어깨에는 '음식점 영업에 피해를 주는 시위 자제합시다'라는 띠를 두르고 있었다.

광화문, 촛불반대시위

촛불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이견으로 사회 전체가 첨예하게 양분되는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종교계가 '시국미사'

'시국기도회' '시국법회'라는 명목으로 촛불시위에 뛰어들어 대립의 한 당사자로 나서자 대학 총장들과 변호사들은 '호소문'과 '시국성명'을 내고 법치 회복과 촛불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대학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 회복을 호소하고, 촛불집회 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문과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라이트코리아와 6 · 25남침피해유족회 등 보수단체 소속 회원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퇴진을 외치면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정부투쟁으로 변질된 촛불시위에 동참한 것은 성직자의 본분을 벗어난 일이므로 거리시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종교단체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스스로 철거했으나 진보 성향의 정당과 단체들은 서울시에 의해 천막을 강제 철거당했다.

두 달 넘게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66%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67.6%는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단식기도를 멈추고 사목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도 예정한 시국법회

를 보류해 종교계가 촛불 시위에서 한발 물러섰다.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등 12개 불교단체는 성명을 내고 촛불시위를 주도한 뒤 천막농성 중인 7명의 수배자에 대해 조계사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불교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실체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허상만 보고, 고유가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과 촛불시위로 피해받는 우리의 소중한 기업들에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 주동자들을 불교계의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경찰을 폭력경찰로 몰아세우고 오히려 전경 수백 명에게 부상을 입힌 시위 주동자들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보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주말마다 대규모로 열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에서 "사회 불안정에 따른 투자 감소 등 거시경제적 비용이 1조 3,520억 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이 5,708억 원에 이르는 등 총 국가적 손실이 1조 9,22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인근의 효자동 및 삼청동 일대 상인 120여 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

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바른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 촛불시위로 인한 영업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부시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미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다. 부시 대통령이 방한한 5일 서울 도심에서는 300여 미터를 사이에 두고 방한 반대 집회와 방한 환영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인 8월 15일 만여명의 촛불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해산 명령을 거부하는 시위대에 물대포와 사복 체포조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고, 일부 시위대는 복면을 쓴 채 경찰방송차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 양상을 보였다.

한편 2008년 8월 12일 MBC PD수첩은 광우병 보도 관련 시청자 사과 방송을 하고, 엄기영 MBC 사장은 제작진 2명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했다. 사과방송 내용은 아래와 같다.

"PD수첩이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 오역과 진행

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 사람보다 인간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이...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 도축장 실태, 캐나다 소 수입, 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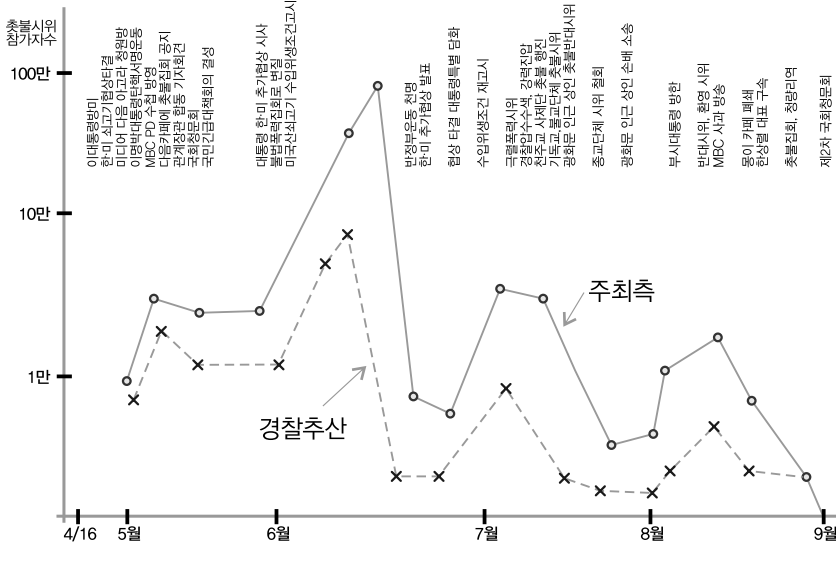
촛불집회 1회(5월 2일)부터 100회까지 꾸준히 참여해온 '미친소를 몰아내는 10대 연합' 운영자 '몽이'는 8월 17일 홈페이지에 '10대 연합 해체 및 카페 폐쇄'라는 글을 올리고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했다. 해체 이유는 시위 결과에 대한 깊은 회의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월 17일 촛불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대표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 5월6일부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집행부와 공모해 태평로와 세종로 일대 등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두 달여 동안 58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나모(48)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보도에 따르면 아고라에서 '권태로운창'이라는 ID로 활동해온 나씨는 시위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고 집회 장소를 공지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해왔다는 것이다.

100회째를 넘어선 촛불집회는 저조한 참가 속에 사실상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광우병 대란의 여진은 8월 말을 지나도록 한동안 계속되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사회포럼 등 시민단체 관계자 300여명은 8월 30일 오후 청량리역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뒤 '촛불 집회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로써 4개월 동안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쇠고기 대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반대 촛불집회 일지



미국산 쇠고기 어떻게 되었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되면서 전체 쇠고기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급증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식당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본격화되었다. 7월 9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된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465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세관을 통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수입된 쇠고기 3,954톤의 11.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이후 한국 수입 쇠고기 시장을 주도해 온 호주산 쇠고기의 통관 실적은 같은 기간 2,745톤(69.4%)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8월에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국 쇠고기 가운데 미국산이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섰다. 8월 1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실시간 검역 통계'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이날까지 검역에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4,439톤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한 나라는 4개 국가이며, 전체물량 21,184톤 중 호주산이 12,753톤(6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산 4,439톤(20.9%)이 뉴질랜드(17.7%)·멕시코(1.1%)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2008년 6월26일 수입 재개 이후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2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月齡)·부위에 상관없이 수입되던 2003년의 경우 한국은 연간 쇠고기 공급량 43만 5천 톤 중 국내산이 14만 1천 톤(32.5%), 수입산이 29만 3천 톤(67.5%)이었으며, 이중 미국산이 19만 9천 톤으로 전체 수입물량 중 67.9%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금수조치가 취해진 후 3년간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았다. 이 기간 중 캐나다산 쇠고기도 수입 금지되었으므로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 주로 수입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쇠고기 소비가 눈에 띄게 감소하여 전체 쇠고기 공급량이 2004년에 27만 7천 톤으로 급감했고 2005년 29만 5천 톤, 2006년에 33만 7천 톤으로 서서히 회복되었다.

광우병 쇠고기파동이 일어난 2008년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전체 수입쇠고기의 23.8%에 해당하는 5만 3천 톤으로 빠르게 한국 쇠고기 시장을 회복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체 수입물량의 36.9%인 9만 톤의 쇠고기를 미국에서 수입했다.

폭풍이 쓸고 간 자리

시청 앞 잔디광장이 바로 앞에 내려다보이는 호텔 커피숍. K는 멍한 눈으로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11월의 끝자락 낙엽들이 힘없이 뒹굴고 있다. 마치 지난여름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고 밟힌 촛불 종이컵마냥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다. 무엇이 그토록 미치게 만들었을까? 그 수많은 함성과 분노와 촛불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시름없는 상념을 깨트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형, 먼저 와 있었네."

"어엉, 황기자, 어서와. 오랜만이야. 일은 끝냈나?"

"네. 요즘은 그놈의 촛불 중계가 없어 한결 나아요. 그쪽은 어때요?"

"말도 말어. 정치부야 항상 개싸움 판이지. 또 책임론이야. 당연한 수순이지. 이판에 한목보자고 서로 이전투구야. 곧 개각이 있을 거구, 야권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끼고 서로 논공행상에 여념이 없어. 촛불시위의 본래 의미는 온데간데없고 살점 뜯어갈 상어떼들

만 득실거리는 거지."

"사실 촛불집회가 이렇게 큰 회오리를 치고 갈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어느 정치세력도 의도적으로 이런 사회동요를 일으키진 못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더 이상 후진국의 굴욕외교를 용납할 수 없다는 순수한 시위였죠. 그랬기 때문에 중고생과 유모차 부대까지 나타난 거죠. 여기에 정치세력들이 끼어들어 판을 흐려놓으니 배가 산으로 올라간 거죠."

"더 위험했던 건 이 사회에 대한 불만그룹들이 때를 만난 듯 분출했던 거야. 밤마다 세종로와 청계광장이 노숙자들의 천지가 되었던 건 소름끼치는 일이었지. 그들이 폭력시위에 앞장서 평소의 불만을 카타르시스적으로 해소시켰던 거야. 물론 이들을 이용한 보이지 않는 불온세력들이 더 위험한 존재들이긴 하지. 어! 저기 박기자가 오네."

"김선배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변방으로 간 5년 만에 처음 만나 뵙습니다. 그동안 중앙은 별일 없죠?"

"자네야말로 광우병 투사로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하더만. 요즘은 어떤가?"

"사실 좀 허전하고 힘이 빠집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국내 유일의 인터넷 정론지로 5년 전부터 광우병의 위험에 대해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중앙 매체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 PD수첩 팀에서 우리 수습기자가 쓴 외신 보도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왔을 때에도 여느 때처럼 언론의 관심 밖으로 흘러가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위력으로 터진 겁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온갖 종류의 '광우병 괴담'이 떠돌았고, 결국 진실과 괴담이 뒤섞여 버렸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곧 시들해 버리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10대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우고 유모차를 끈 아줌마들이 나서는 걸 보고 놀랐어요. 오랫동안 우리 신문에서 경고해온 광우병의 위험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이토록 관심을 들어낸 것에 대해 짜릿한 전율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촛불문화축제라고는 하지만 굴욕외교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바닥에 깔렸음을 보았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라는 지극히 보편적이 요구에 불이 당겨진 겁니다. 처음엔 순수했고 누가 봐도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재를 정치권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지요. 사회 불만세력에게도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사태는 폭력과 반정부 구호가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었고 과격한 공권력으로 응수하는 싸움터가 된 거죠.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글쟁이들이 그러라고 글을 써 왔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 문제의 밑바닥에는 강대국에 빌붙어 살아온 우리 정치권력의 역사적 속성이 아직도 조금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데

있어. 조공을 갖다 바치고 황제를 알현하던 구태를 3공화국, 5공화국, 문민정부, 참여정부 할 것 없이 신물 나게 봐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거지.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하고 올림픽에서는 5위권에 도전하고 월드컵에서는 16강에 들어가는 오늘의 한국인에게 권좌에만 오르면 미국에 비굴해지는 지도자들을 이제는 더 봐 줄 수 없다는 국민의 강력한 메시지인데 그걸 애써 외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야. 이건 반미 감정도 아니고 종북 세력도 아닌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인데 이걸 건드린 정치인들의 낡은 관념이 고쳐지지 않는 거야."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취재할 때도 그런 광경을 자주 목격했어요. 초기에는 촛불참가자들이 "좌파운동권 빠져라"라고 외치는 소리가 자주 들렸지요. 그러다 야권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자 촛불참가자 수가 급격히 줄기도 했죠."

"우리 인터넷 신문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같은 선상에 있었던 거죠. 두 정권이 몹시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정권을 잡으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야권이 되면 이를 반대하는 웃지 못할 기현상을 보인 겁니다. 어제까지 한미FTA를 체결하고 쇠고기 수입 허용을 위해 애쓰던 사람들이 정권을 잃자 한미FTA 반대, 쇠고기 수입반대로 돌아선 겁니다. 또 한쪽은 어제까지 한미 FTA 반대 입장을

취하다 정권을 잡으니까 한미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이 얼마나 철면피하고 웃기는 코미디입니까? 국민을 완전 치매환자로 아는 거죠. 그러면 왜 정권을 잡으면 한미FTA를 성사시키려 할까요? 여기에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동차와 철강을 수출하는 대기업과 영미식 질서에 익숙한 일부 엘리트집단과 금융 자본가들이 그들입니다. 이들과 결탁한 권력집단을 통틀어 소위 '광우병 동맹'이라고 합니다. 결국 쇠고기 촛불시위는 재벌과 노동자, 엘리트그룹과 평민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회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촛불시위에 대한 평가를 크게 다르게 하고 있지. 김대중 대통령은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한 반면, 고려대 최창집 교수는 '촛불시위가 새로운 민주주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촛불이 만든 결과는 너무 허망하다' 고 말하지 않나. 아무튼 먼 훗날 역사가 오늘의 촛불시위와 미국쇠고기 수입 논쟁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네."

밖은 어둠이 짙게 깔렸고 광장 위에는 주변의 고층 건물에서 현란하게 비춰지는 불빛이 가을 낙엽을 덮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린 이번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 같아. 우선 외교 통상능력이 그동안 너무 형편없었던 거야. 세계 10대 교역국이라면서 우리의 국제협상 능력은 6~70년대의 가난한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고 안에서 큰소리를 치고 있으나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가 없는 게 우리 정부의 현실이야. 국제사회의 업무절차와 접근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공무원이 별로 없으니 국제협상에서 망신치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이젠 그걸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말이야."

"맞습니다. 가끔 국제회의에 취재차 나가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황기자가 젊은 혈기를 들어내며 열변을 토한다.

"어떨 때는 정부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이 회의 내용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은 회의를 준비하는 수개월 동안 오가는 문서들과 질의 답변들을 성실하게 읽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 가지고 나오는데, 한국대표들은 수백장의 회의자료가 쌓여 있는 걸 그 자리에서 처음 보니 읽어볼 엄두도 못 내고 구경만 하다 옵니다. 그리고는 회의에서 결정된 보고서를 들고 와 '이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들이미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은 자국의 국익을 수호하려고 머리통이 깨지게 싸우는데 우리는 구경꾼으로 놀다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놀러 가는 특혜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10여 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열린 호주곡물공사 리셉션에 초대받아 갔는데 일본의 곡물에이전트들이 많이 참석한 자리였지. 미쓰이상사, 미스비시상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자기들의 고객이라며 반기는 거야. 그래서 '아니, 한국에 삼성물산도 있고 큰 기업이 많은데 어째서 당신네 회사가 한국에 곡물을 공급하느냐'고 반문하자 한국에는 그 일을 할 선물거래 전문가가 없다는 거야.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동안 정부나 대기업에서 동료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파견되면 주변에서 하는 인사가 '한 2~3년 구경 잘하고 오시오'였지. 그러나 일본은 한번 파견되면 정년 할 때까지 그곳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하게 되는 거야. 이 차이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줄인 식량을 일본의 손에 의탁하는 참혹한 처지로 몰고 있는 거야. 이러한 문제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절실히 느끼고 내일처럼 고쳐나가야 하는데 이런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국제화 시대에 외교통상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박기자도 할 말이 많은 듯 끼어들었다.

"국제회의에 나가면 예전에는 가난한 약소국에서 온 대표이니 한국대표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표이니 회의 도중에 한국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한국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보통 망신이 아니지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이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의 구조적 문제가 더 커요. 공무원들이 보직순환제로 1년이 멀다하고 자리를 옮기니 담당업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86년 시작되어 8년여 계속된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기간 동안 농수산부 담당 국장이 일곱 번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담당 서기관과 사무관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20년 이상 된 전문 관료들이 계속적으로 파견되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책임지고 투쟁하는 판에 한국의 협상자세는 수준 이하였던 겁니다. 선진국들은 이 기간 동안 회의의 흐름을 읽고 앞으로 전개될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비하여 식량증산에 힘써 자급률을 높이고 협상타결 후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웠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WTO체제를 맞게 된 겁니다.

1996년 5월부터 2년 3개월간 진행된 신 한일어업협정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일본은 수산청 위주의 노련한 수산전문 실무관료들로 협상단을 구성한 반면 우리는 외교통상부의 고위직 관료를 중심으

로 협상단이 구성되어 전문적 현안문제를 다루는데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더구나 한국 측 협상대표가 두 번이나 교체되고 담당과장도 한번 바뀌었으니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결국 쌍끌이어업 문제를 빠뜨려 우리 주변 어장의 씨를 말리고 독도 영유권마저 포기하는 기막힌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1997년 12월부터 2년 10개월간 진행된 한중어업협정에서도 우리 측 협상대표가 두 번 교체되었고 담당과장도 두 번 교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쯔강 수역에서 우리의 조업권을 빼앗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들 문제는 사후에 국회에서 맹렬히 질타를 당했으나 말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광우병 쇠고기 파동도 이런 풍토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이었겠지요. 국제화 시대에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걸려 있는 국제협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세계 최하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박기자는 잔뜩 흥분된 어조로 할 말이 더 있는 듯했다. 김선배가 고조된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리려는 듯 한마디 거들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이런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치는 패

거리 싸움만 하고 정부는 아마추어도 못 되는 무능함으로 갈 길을 막고 있으니... 무엇보다 외교통상 전문가를 키우는 특수 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해요.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함양한 젊은 인재를 키우는 일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 길 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또 하나 이번 사건에서 깨달은 것은 사람이 먹는 식량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계산이든 집단의 이익이든, 개인의 공명심이든 간에 식량은 신성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식량을 얻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 인접 국가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도 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서 시작되었고 러시아 혁명도 배고픈 민중을 이용한 정치 변혁이었죠. 지금 우리는 급작스런 경제성장으로 단군이래 처음 맞는 풍요로움을 구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쌀이 남아돌고 냉장고에는 먹을 게 쌓여 있고 슈퍼에는 먹을 것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어 굶주리던 이 나라 백성들이 이처럼 무례하고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버리는 사람들로 바뀐 것이 놀라울 뿐이지요. 식품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커다란 사회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이번에 광우병 괴담이 돌 때에는 정말 놀라웠어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유해론이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지니깐 이건 핵폭탄 같은 위력이었어요. 한번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 백약이 무효한 거죠. 과학계가 나서고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사실을 얘기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것이 가져온 피해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황기자는 취재 현장에서 느낀 전쟁 같은 공포감을 그대로 들어내었다.

"사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식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찌들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하는 조미료 MSG 유해론을 들고 나오고, 화학간장에 양잿물을 넣는다고 말해 온 국민을 기절하게 만드는 나라죠. 그 유명한 우지라면 사건은 한국 근대 식품사에 빠질 수 없는 해프닝이었지요. 검찰의 무지로 터진 사건으로 슈퍼에서 라면을 내다버리고 국내 최대 식품기업이 졸지에 부도가 났는데 9년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식품회사가 무죄한 것으로 승소했으나 "아니면 말고"식으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끝나버리는 나라입니다. 번데기 통조림 포르말린사건으로 수많은 통조림업자들이 무고하게 도산당하고, 불량만

두사건으로 양심적인 식품업자가 자살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나라. "아니면 말고"식의 피해자 없는 식품위생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나 국민을 이유 없이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는 오늘의 잘못된 국가경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광우병 사건은 이러한 사회 풍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광우병 소가 발견된 적이 없고 인간 광우병의 발생은 더더욱 관련이 없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세계가 놀랄 일 아닙니까?" 인터넷신문 기자답게 박기자의 표현은 거침없이 명쾌했다.

시청 앞에 꽉 막혔던 차들이 어느새 많이 풀려 시원스레 흐르고 있었다. 창밖에 보이는 시청 앞 잔디밭은 회청색 네온사인 불빛에 초겨울의 찬바람을 느끼게 했다. 어둠이 깔린 늦은 밤 광장에서 굴러다니는 가로수 잎이 한가롭다 못해 처량하게 느껴졌다.

III. 종자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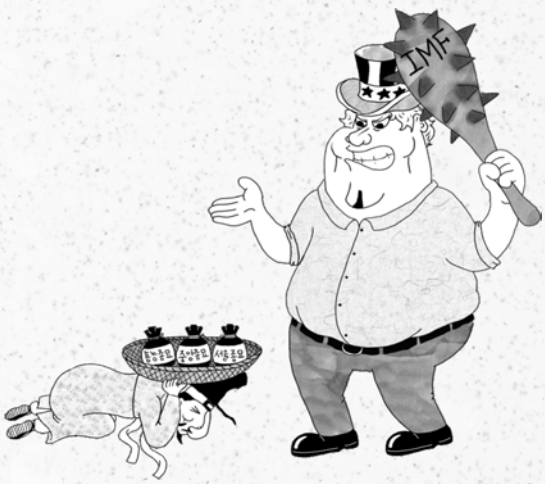
유포브의 음모

공룡 농업기업의 출현

몬산토 BT면화가 인도에서 한 일

공룡과 싸우는 캐나다의 한 농민

한국의 종자시장



유포브의 음모

한국인의 속담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꾸러미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농부에게 종자야말로 내일의 희망이고, 죽을 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들의 치열한 삶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데 농민의 생명과 같은 종자가, 씨앗이, 농민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2010년 10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이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건물 앞에서 유럽 전역에서 모인 농민단체 사람들과 국제농부협회(La Via Campensina)가 시위를 벌였다. 이날은 유포브가 50주년을 기념하는 날로 한국이 의장국이 되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시위자들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유포브)이 농민들이 수천 년 동안 선별하고 비축해온 원천 종자를 육종자들이 빼앗아가게 한다고 주장했다. 육종자들은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종자를 부분적으로 개량하여 신품종을

만든 후 특허를 받고 판매하면서 농민들이 자기가 재배하고 수확한 씨앗을 비축하여 다음 해에 사용하거나 이웃과 나누어 쓸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물육종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1930년 미국이 '식물특허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고, 1953년에는 독일이, '57년에는 프랑스가 특별법인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식물 신품종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 후 1961년 파리에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UPOV 조약)'이 체결되어 1968년에 발효됨으로써 식물신품종 보호제도가 국제법으로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로써 식물의 신품종을 개발하는 육종가의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를 보호받을 수 있어 식물 육종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신품종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종래의 유포브조약은 같은 종류의 식물에 대한 특허법과 특별법으로의 이중 보호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1991년 유포브조약 개정시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주장이 관철되어 이중 보호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구속력이 한층 강화되어 육성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대상작물이 사실상 모든 식물로 확대되었다. 우루과이협

상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 TRIPs) 이행을 5년간 유보 받았으나 그 기간이 경과한 2000년 1월 1일부터 특허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식물 신품종의 보호제도를 시행해야만 했다.

한국은 2002년 1월 7일 유포브의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이스라엘, 한국, 싱가포르, 요르단, 베트남이 가입되어 있으며, 2011년 7월 현재 페루를 마지막으로 7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유포브에 가입한 나라들은 가입 일자로부터 10년 후에 모든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들 씨앗을 사용할 경우 농민들은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2012년 부터 외국의 식물 신품종을 사용시 로얄티를 내야 하며, 향후 10년간 국내 농가가 해외에 지불해야 할 종자 로열티가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자 비용은 재배 원가의 약 10%에 이르고 있어 농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유포브는 겉으로 보기에는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품종 개발에 투여한 노력과 비용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 현대사회의 보편적 합리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보여 진다. 사실 1960년대 유포브가 처음 태동할 때에는 그 의도가 순수했다. 육종가에게 최소한의 권리주장을 인정하여 연

구개발 의욕을 높이고 인류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하면서 선진국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지적재산권 강화로 나타났으며, 1991년 유포브 회의에서 일부 선진국들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종자산업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유포브에 가입해야 했고 그들의 규약에 따라 가입 후 10년 후에는 모든 종자 신품종에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로열티를 내야만 된다. 10년간의 유예기간은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미끼이다. 후진국들은 대부분 정권이 불안하고 국제협약에 10년 동안이나 책임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쉽게 미끼를 문다.

유포브가 요구하는 식물 신품종에 대한 로얄티 지불 의무는 오늘날 세계적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는 지적재산권으로 볼 때 타당해 보이나, 농민이 경작하여 생산한 씨앗을 다음 해에 종자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물론 대부분의 종실은 유전형질의 퇴화로 반복하여 채종하여 심으면 품질열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종 교배로 일어나는 잡종강세 교배종(F1)을 사용하게 되며 농민은 이들 교배종 씨앗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농민이 생산한 씨앗을 다시 사용하든지, 아니면 새 씨앗을 구입하여 쓸 것인지를 농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뺏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을 강탈하는 행위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된다. 더욱이 신품종의 형질이 당대에만 나타나고 수확한 씨앗에서는 없어지게 하는 소위 터미네이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야비한 행위라는 것이다. 인간사회가 과학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과학자를 존경하는 것은 인류 번영을 위해 공헌하는 공익적 기능 때문이다. 신이 준 유전자에 극히 일부를 조작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전체를 못 쓰게 하는 야비한 행동을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과학기술을 이용한 지적재산권의 이름으로 자연을 송두리째 강탈하려는 음모가 시작된 것이다.

1985년 미국의 실용특허에 관한 하이버드 판례를 보면 식물 전체를 특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물의 개별 구성요소 즉 씨앗, 식물조직과 그 배양체, 세포, DNA배열까지도 특허대상이 된다, 또한 특허종자에서 수확한 씨앗의 재 파종도 금지하고 있다. 이제 유전자의 극히 일부분만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신이 인간에게 준 먹잇감을 특정인이 송두리째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공룡 농업기업의 출현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종자의 중요성에 일찍부터 눈을 떴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후 제일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조선미㈜ 품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수집이었다. 그들은 1911~1912년 사이에 총 1,142종의 쌀 품종을 수집했는데 그중 논벼 멥쌀이 876종, 찹쌀이 384종, 밭벼가 192종이었다. 이 많은 쌀 유전자원을 식민지시대에 도둑맞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호시탐탐 침략한 것이 최상의 품질로 손꼽히는 조선미를 약탈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하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남만주와 한반도에서 자생하던 콩이 중국을 통해 서양에 알려진 것은 1739년 프랑스의 선교사가 중국에서 콩 종자를 담은 봉투를 하나 가져와 파리식물원에서 재배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는 아편전쟁(1840~1842)이후 중국이 서양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미국의 농학자들에 의해 주로 수집되어 갔고, 1854년 일본을 개항

한 미국의 페리제독도 일본 콩 씨앗을 수집해 갔다고 한다. 미국은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식물 종자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했고 세계 각처에서 종자를 수집해 왔다. 기록에 의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1770년에 쓴 편지에 그가 영국에서 콩씨를 집에 보냈다고 쓰여있다. 제3대 미국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1743~1826)은 전 세계에서 종자를 수집한 일로 유명하다. 1929년에는 오리엔탈 농업탐사원정대를 파견하여 아시아의 종자수집에 나서기도 했다. 이때 한국, 일본, 중국에서 4,451종의 콩 종자를 수집했는데 그중에서 3,500종이 한국에서 수집한 것이었다. 미국은 현재 65만 종의 종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종자보유국이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 있는 대두유전자원센터에는 2만여 종의 콩 종자가 수집되어 있는데 이중 한국 토종콩이 4,000여 종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할로야' '오케이' '땡큐'하면서 내준 콩 종자가 오늘날 미국콩의 조상이 되었다. 미국의 육종가들은 콩의 수형을 바꾸어 기계화 수확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단보당 수확량도 획기적으로 높여 미국을 세계 최대 콩 생산국으로 만들었다. 이제 더 나아가 유전자재조합기술로 제초제에 견디는 GM콩을 만들어 세계 콩 종자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 종자시장의 괴물로 나타난 미국의 몬산토사는 1901년 식품

첨가물회사로 시작하여 1950년대에는 삭카린을 합성하여 큰돈을 벌었다. 세계대전 기간 중에는 화학무기 신경가스를 생산했고 베트남전에 사용한 고엽제 다이옥신을 생산한 회사이다. 이 회사는 전후 화학무기의 수요가 없어지자 농약 생산에 주력하였으며 제초제, 살충제 생산으로 농업분야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생명공학 혁명에 빠르게 진입하여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초제 라운드업에 내성을 가진 라운드업레디 GM콩을 개발하여 꿩 먹고 알 먹는 장사를 하고 있다. 몬산토는 세계 유전자재조합 종자산업의 선두주자로 특허를 받은 GM 콩, 면화, 옥수수 등으로 세계 전체 GM 작물 재배면적의 87%를 장악하고 있다.

특허권을 행사하는 식물종자산업의 세계규모는 2007년 현재 미화 220억 달러 규모이며 이것은 세계 전체 종자시장의 82%에 해당한다. 몬산토가 1위로 2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듀폰(15%), 신젠타(9%) 등이 함께 가고 있다. 이들 상위 3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거의 반(47%)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 옥수수 종자의 65%, 콩 종자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개 회사가 세계 특허종자시장의 2/3를 장악하고 있다.

세계 종자시장이 이들 몇 개의 대기업 수중에 들어간 것은 20세기 말의 무차별적인 기업 인수합병에 기인한다. 한국은 IMF 구제

세계 상위 10위 특허종자회사 목록 (2007년 기준)

순위	회사명(국적)	매출액(백만달러)	시장점유율(%)
1	몬산토(미국)	4,964	23
2	듀폰(미국)	3,300	15
3	신젠타(스위스)	2,018	9
4	그룹리마그렌(프랑스)	1,226	6
5	랜드오레이크(미국)	917	4
6	KWS AG(독일)	702	3
7	바이엘 크롭 사이언스(독일)	524	2
8	사카타(일본)	396	<2
9	DLF-트리폴리움(덴마크)	391	<2
10	타키이(일본)	347	<2
	합계	14,785	67

금융 기간 동안 5대 종자회사 중 4개 업체가 외국기업에 팔려나갔다. 1997년 노바티스는 3,809만 달러에 서울종묘를 인수했고 노바티스는 다시 신젠타에 합병되었다.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1998년 멕시코의 종자회사인 세미니스에 1억 6,689만 달러에 팔려나갔다. 같은 해 일본 종자회사인 사카다가 청원종묘를 1,047만 달러에 인수해 갔다. 농부가 굶어 죽어가면서도 껴안고 붙들고 있는 종자를 IMF기간 동안 모두 팔아넘긴 것이다. 이래놓고도 IMF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쩌면 한국을 IMF 사태로 몰고 간 것은 이들 종묘회사를 탈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흥농종묘, 중앙종묘, 서울종묘, 이들 3대 종자회사가 국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었다. 흥농종묘는 인수합병 당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연간 1,000만 달러의 종자를 수출하는 우량기업이었다.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인도 등에 무, 배추, 고추 등 채소종자를 주로 수출했다. 흥농종묘는 러시아 야생참외와 일본산 은천참외를 주축으로 한 교잡으로 17년간의 육종 노력 끝에 금싸라기참외를 개발하여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회사이다. 중앙종묘는 1983년 아삭거리는 맛을 가진 제주 재래종 고추에 매운맛과 내병성이 강한 베트남 고추를 교배하여 한국 고추품종의 대명사가 된 청양고추를 개발한 회사이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종자회사들이 IMF 기간 동안 줄줄이 팔려나간 것이다.

세계적인 거대 농업기업들이 한국의 종묘회사에 눈독을 들인 것은 시장 규모보다는 한국 종자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가능성 때문이었다. 일본 종자회사들의 채종지 역할을 하던 한국은 일본의 기술과 종자를 바탕으로 무, 배추, 오이 등 채소류의 육종에 상당한 기술력을 쌓아왔다. 1970년대부터 일본산보다 더 좋은 맛의 무, 배추 종자를 개발하여 일본에 역수출하기 시작했다. 서양의 싼 종자들 때문에 재래종 채소의 특성이 사라진 중국에서도 한국산 채소 종자는 큰 호응을 받았다. 인도에 들어간 한국산 고추

종자는 생산단가를 낮추고 수확량을 높여 인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다. 외국의 거대 종자회사들은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종자회사들을 비싼 값을 내더라도 사들여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농약회사에서 출발한 몬산토는 1980년대부터 미국의 데칼브와 애스그로 등 곡물종자회사들을 인수합병 했고, 2005년 14억 달러를 들여 세계 1위 채소종자 회사인 세미니스를 인수했다. 이로써 세미니스에 팔려간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몬산토의 소유가 된 것이다.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세계 종자업계는 대대적인 인수합병으로 다국적 거대 농약회사들의 소유물로 재편되었다. 세계 최대 농화학 기업인 독일의 바이엘은 세계 7위 종묘회사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2위 농약회사인 스위스 신젠타는 세계 3위 종자회사이기도 하다. 세계 1위 종자회사로 등극한 몬산토는 세계 5위 농약회사이며, 세계 2위 종자회사인 미국의 듀폰은 세계 6위 농화학 기업이다. 이와 같이 농약과 종자가 이들 몇몇 기업의 손에 들어가면서 세계 농업은 자연에서 벗어나 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수십억 인의 세계 농민을 새로운 형태의 노예로 만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 공룡 기업들은 기업 합동에 의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독점방지법을 서슴없이 위반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 간의 기술 카르테르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무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한 국가나 국제협약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007년 3월 세계 최대 종자회사인 몬산토와 세계최대 화학업체인 바스프가 가뭄에 잘 견디는 다수확 옥수수, 면화, 카놀라, 콩의 육종을 위해 15억 달러의 공동 투자 연구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이와 같은 공동연구는 농민들에게 다수확 품종을 제공하기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몬산토와 다우 아그로케미칼은 공동으로 새로운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개발하고 있으며, 몬산토와 신젠타는 특허권 공유협약(cross-licensing agreements)을 맺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농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것은 몇몇 거대 농업회사들이 세계농업을 지배하려는 연합전선 구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최근 종자회사들이 유통 가공회사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몬산토는 세계 최대 곡물메이저인 카길과, 신젠타는 ADM사와, 듀폰은 콘아그라식품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다. 이들 곡물메이저들은 제휴 종자기업들이 생산하는 특정 품종을 생산할 것을 농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특정 기업의 값비싼 종자를 사야 하며, 그들이 생산하는 농약과 제초제를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세계의 농업은 특정 종자회사

가 개발한 한두 가지 품종으로 통일되고 있으며 재래 토종 품종들은 사라져 종의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인류는 종자의 단일화로 인한 대재앙을 여러 번 겪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47년 아일랜드가 겪은 대기근이다. 남미에서 도입한 감자가 다수확 신품종으로 크게 유행하여 모든 농가에서 이 감자를 심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잎마름병이 돌자 잎마름병에 약한 아일랜드의 감자가 전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해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으며 300만 명이 미국 이민으로 고향을 떠났다.

공룡 종자기업들이 시장확대를 위해 시도하는 특허종자의 세계화는 인류 생존에 대단히 위협적인 일이며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다. 이들이 농약회사와 유통회사까지 연합하여 농민의 자유 선택권을 빼앗아 가면 농민은 사실상 공룡기업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공룡기업들이 지시하는 품종을 경작하고 그들이 결정한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노예제도가 정착되는 것이다.

몬산토 BT면화가 인도에서 한 일

인도 비다르바 지역의 면화밭은 그 지역 주민들의 오랜 생활터전이며 소득의 근원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자살한 농민이 수없이 많다. 원인은 몬산토가 개발한 BT면화를 재배하면서 큰 손실을 보고 빚더미에 올라 자살로 몰린 것이라고 인도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 많은 농민들이 파산하였으며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 몬산토 BT면화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이 품종은 수확량이 높고 해충에 저항성이 높아 농약이 필요 없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BT면화를 심으면 농부들은 큰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농부들이 BT면화로 바꾸고 몇 년 지난 후 농부들은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몬산토가 선전한 것처럼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농약의 소비가 점점 더 늘었다. 농약회사가 만든 종자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BT면화와 함께 들어온 외래 해충 밀리버그의 피해가 심각했다. 밀리버그는 보통 농약으론 잘 죽지 않아 일일이 손으로 잡아 죽여야 했고

다른 작물에도 퍼져 이 지역의 농업을 초토화했다. 종자가격도 처음에 킬로그램 당 5루피 하던 것이 매년 올라 3,200루피로 올랐으며 이 중 2,400루피가 몬산토에 로열티로 지불된다고 한다.

인도 농민들이 이 함정에서 쉽게 벗어나올 수 없었던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BT면화 종자만을 사용했으므로 시장에서 재래종 면화씨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재래종 면화를 심지 않으니 면화씨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농민들은 종잣값이 비싸고 경작비가 많이 드는 BT면화를 계속 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농민들은 곧 빚에 몰리게 되었고 많은 농민들이 농약 먹고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다행히 인도의 BT면화 재배 농민들은 몬산토의 지나친 욕심으로 일찍 파산상태에 도달해 그 피해가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몬산토의 굴레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인도의 토종 종자보존을 위한 나부다냐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인도 토종 종자를 모으고 증식하여 농민에게 나누어 주는 운동이다. 인도의 여성 환경농민운동가 반디나 시바 여사가 중심이 되어 나부다냐 종자은행을 설립했고 2,000여 종의 벼 종자를 수집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있다. 면화종자도 이곳에서 수집하여 도탄에 빠진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토종 면화 종자가 확산되면서 농약 없이도 다시 큰 수확을 거두고 있다.

공룡과 싸우는 캐나다의 한 농민

미국과 캐나다의 농민들은 요즘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그들이 사오는 씨앗 포대 겉면에 "이 씨를 재배하여 수확한 종자는 재파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특허법에 저촉된다"고 써있다. 농민이 농작물을 경작하여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자식의 뉘를 볼 수 없는 물건들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는 농민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퍼시 슈마이저와 몬산토의 법정공방은 세인의 흥밋거리였다. 퍼시 슈마이저는 캐나다 사스카체완(Saskatchewan) 주 브루노(Bruno)에서 50년 이상 부부가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다. 슈마이저는 모험심이 강하고 그 지역의 정치적 활동도 활발한 사람이다. 그는 1950년대부터 카놀라를 경작했다.

몬산토는 이 농민에 대해 몬산토가 개발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제초제 '라운드업'에 내성을 가진 라운드업레디 카놀라의 유전인자와 세포와 종자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판매하

였다고 주장했다. 이 카놀라 종자는 캐나다 특허번호 1,313,830으로 등록된 것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슈마이저는 1997년에 그의 밭에서 수확한 이 종자를 1998년에 파종하여 수확하였다.

온타리오주 미시소가(Mississauga)에 있는 몬산토 캐나다는 미국 미조리주 센트루이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몬산토사의 캐나다 지사이다. 미국 몬산토는 1993년 2월 이 종자의 특허를 획득했다. 이 특허로 몬산토는 이 종자의 생산, 제조, 사용, 판매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며 특허기간은 2010년 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다.

슈마이저에 대한 1심 재판은 1998년 8월에 시작되었다. 몬산토는 종잣값으로 에이커당 15달러씩 1,030에이커에 15,450달러, 손해배상으로 105,000달러, 벌금으로 25,000달러, 도합 145,450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슈마이저는 자기 밭에 이 종자를 심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제초제에 살아남는 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 유전자변형 카놀라는 다른 농약에는 죽지 않으므로 카놀라 이외의 다른 작물을 그 밭에 심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종자는 걷잡을 수 없이 그의 밭에 퍼져 나갔으나 몬산토는 이를 방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먹는 생명체에 특허를 걸고 농토에 마음대

로 번져나가게 해 놓고 그게 밭에 있다고 특허침해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캐나다의 식물육종가권리법에 의해 신품종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슈마이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는 많은 식물에서 생육에 필요한 특정 필수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효소를 저해함으로써 식물을 사멸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제초제를 식물에 뿌리면 식물은 죽게 된다. 몬산토 과학자들은 카놀라의 DNA에 전이벡타를 이용하여 RT73이라는 유전인자(plasmid)를 끼워 넣음으로써 글리포사이트에 내성을 가진 변종 카놀라를 만든 것이다. 식물 세포의 DNA에 이 유전인자를 끼워 넣으면 식물의 줄기, 잎, 종실 모든 부위가 이 변형 유전자를 갖게 되어 제초제에 내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들 식물에서 얻은 종실은 다음 해 싹이 트면 그 변형된 형질을 그대로 가져 글리포사이트에 내성을 가진다.

캐나다에서는 유채가 오래전부터 소규모로 경작되었는데 몬산토가 개발한 라운드업레디 카놀라를 심으면서 그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6년에 600명의 농부가 5만 에이커 정도 이 종자를 경작하였으나, 2000년에는 2만여 농가에서 4.5~5백만 에이커를 경작하여 캐나다 카놀라 생산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

작된 GM카놀라는 식용유 생산과 동물사료에 사용되는데 캐나다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작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몬산토와 슈마이저의 1심 재판 기록에 의하면 슈마이저는 브루노 지역의 관행대로 자기 밭에서 수확한 카놀라의 일부를 종자로 남겨두었다가 다음 해 파종해 왔다. 1993년부터 '99년까지 슈마이저는 이와 같이 종자를 사지 않고 자기 농장에서 생산한 씨를 썼다. 그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에 잘 견디는 우수한 종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재래종 아르헨티나 카놀라를 심어왔고 밀과 완두로 일부 윤작을 하거나 가끔씩 휴경을 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카놀라를 연속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하면 수확량이 다소 늘었다고 한다. 또한 밭을 갈지 않고 파종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질병이 덜 발생하고 수확량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다른 농장보다 우수한 카놀라 종자를 직접 생산해서 사용한다고 했다.

슈마이저는 화학적 제초제를 가급적 적게 쓸려고 노력하며 꼭 필요할 때만 쓴다고 증언했다. 그는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초제를 쓰지 않고 이른 봄에 땅에 뿌리는 제초제를 쓰는데 이렇게 하면 땅속에 있는 잡초의 싹을 죽여 효과적이며 땅의 수분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런 제초제는 약 3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전신주 주변이나 도로변 수로에는 라운드업 제초제를 쓴다고 했다. 그는 카놀라 밭에 라운드업을 뿌리면 땅속의 유용 세균을 죽여 연작의 수율을 낮추고 뿌리썩음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로변 수로와 전신주 부근에만 사용하였다고 했다.

슈마이저는 밭을 9개 구역으로 나누어 경작하는데 1996년에 구역 1,4,6,7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총 370에이커에 카놀라를 심었으며, 1구역에서 수확한 씨를 다음 해인 '97년에는 구역 4,7,9를 제외한 모든 밭 총 780에이커에 파종하였다. 1998년에는 제2구역에서 수확한 씨를 전 면적 1,030에이커에 파종하였다. 1996년 인근에 있는 5개 농장에서 몬산토의 라운드업레디 카놀라를 사서 심었는데 슈마이저가 '97년에 채종한 구역 2와는 5마일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인근 주민 휴버씨의 증언에 의하면 라운드업레디 품종을 심은 그의 밭과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인접한 슈마이저의 밭은 북서쪽에 있는 구역 6인데, 1996년 말에 많은 수확물들이 휴버씨 밭에서 슈마이저의 밭으로 날아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1996년에 6구역에서 다음 해에 쓸 종자를 채종했다는 증거는 없다. 몬산토의 증언에 의하면 1997년 이후 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라운드업레디 수확물은 밀폐된 트럭으로 분쇄공장에 수송되었다고 한다.

1997년 여름 사설 조사기관인 로빈손 검사소가 사스카치완지역

에 불법으로 몬산토 종자를 사용한 곳이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 그 결과 슈마이저 농장이 불법으로 라운드업레디 카놀라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슈마이저의 증언에 의하면 제초제 라운드업 내성 카놀라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97년도에 구역 1,2,3,4에 있는 전주 주위와 도로변 수로에 라운드업 제초제를 손으로 뿌렸을 때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구역들은 포장도로의 동편에 붙어 있는 밭으로 제초제를 뿌리고 며칠 후에 가보니 상당 부분의 식물이 제초제에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다시 제2구역에서 제초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뿌려보았다. 며칠 후에 보니 약 60%의 식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데 길가에 것들이 밀집해서 자라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낮아졌다.

슈마이저는 이 구역2에서 라운드업에 살아남은 길가의 것을 포함한 카놀라 씨를 수확하여 브루노에 있는 그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다음 해 봄에 홈볼트제분회사에서 종자처리를 한 후 비료와 혼합하여 1998년에 그의 밭에 파종하였다.

1997년도 가을에 로빈손 조사소가 슈마이저 농장의 구역 2와 5에서 채취한 종자를 사스카치완대학 곡류과학과에서 재배 시험한 결과 제초제 내성 라운드업레디 품종임이 확인되었다. 계속된 시험을 통해 2000년 다우니 박사는 슈마이저의 밭에서 채종한 카놀라

는 꽃가루 이동이나 재래종과 특허종의 자연교잡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몬산토의 종자를 재배하여 얻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조사를 맡은 로빈손씨는 법정에서 1998년 3월 그가 슈마이저를 만나 자기는 몬산토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으로 슈마이저가 전해에 뿌린 종자가 몬산토 종자라는 것을 통보하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슈마이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고, 다음에는 로빈손씨에게 말하는 것을 녹음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그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998년 3월 말 몬산토 대리인은 슈마이저가 훔볼트제분회사에서 종자처리를 한 사실을 알고 제분회사에서 보관 중인 슈마이저의 종자시료를 줄 것을 요구했다. 슈마이저는 제분회사가 종자처리 의뢰한 시료의 일부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제분회사는 슈마이저의 동의 없이 이 시료를 몬산토에 제공했다. 이들 시료는 둘로 나뉘어 하나는 유전자검사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만니토바대학에서 재배시험에 들어갔다.

1998년 8월 몬산토는 슈마이저 농장에 들어가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몬산토는 법원을 통해 시료 채취 명령을 받아냈고 슈마이저는 본인이 참관하는 앞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조건으로 수락했다. 그러나 막상 몬산토 사람들이

시료 채취하러 갔을 때 슈마이저는 참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채취한 시료를 둘로 나눠 하나는 몬산토 본사에서 유전자 실험을 했고 나머지는 재배실험을 했다. 실험결과는 특허 유전자가 포함될 확률 95~98%로 나왔다.

도로변에 수송 중인 몬산토 카놀라 종자가 떨어지거나 새나 곤충에 의해 씨가 이전되고 바람에 날려 혼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로 인해 슈마이저의 밭에서 관찰되는 밀도의 특허 카놀라가 생육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슈마이저가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그의 밭에서 몬산토의 제초제 저항성 카놀라를 생산한 것은 불법이며 특허법 위반으로 몬산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슈마이저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였다.

2002년 슈마이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그가 제출한 17개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캐나다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2004년의 대법원 항소심에서도 패하여 몬산토와 슈마이저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다윗의 완패로 끝났다.

법원의 판결은 이와 같이 끝났으나 슈마이저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슈마이저의 부인은 한 인터뷰에서 몬산토는 9명의 변호사를

써서 엄청난 힘으로 밀어붙이니 1명의 변호사를 쓴 우리가 당해낼 수 없었다고 말한다. 슈마이저는 농민 환경운동가 그룹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자주 강연에 나서고 있다. 점차 대형화되고 카르텔을 형성하여 세계 농업을 지배하려는 다국적 거대 농업기업들의 횡포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이와 같이 미약하지만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종자 시장

IMF 구제금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생색을 내며 축제분위기를 만들었으나 10여 년이 지난 후에 따져보면 엄청난 국부를 잃었음을 알게 된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넘겨 4조 원을 눈뜨고 탈취당하게 한 당사자들은 언젠가는 이완용 못지않은 매국노로 역사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종자산업의 해외 매각에서 일어났으나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한국의 종자산업을 대표했던 흥농종묘, 서울종묘, 중앙종묘, 청원종묘를 좋은 값을 받고 팔아넘긴 회사 소유주들의 단견과 이기적인 행동에도 아쉬움이 있으나, 더 큰 질책은 IMF 당시 한국의 농정을 책임 맡았던 사람들의 무지와 무책임에 있다.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인의 생명줄이요 자존심인 토종 종자산업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4개의 토종 종자기업들이 외국의 대기업에 인수합병되면서 국내 채소 종자의 70% 이상이 외국기업에 의해 공급되게 되었다. 종자주권을 상실한 것이다. 종자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한국의 재래 원종과 유전자원들이 외국기업의 소유가 된 것이다. 종자는 농업 비용의 약 1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이다. 이 종자가 외국의 손에 있으면 가격 조작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품종을 얻기도 어려워진다. 우리가 외국을 상대로 종자전쟁을 치를 무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셈이다. 대부분의 토종 종자를 역수입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제주산 감귤, 완도산 김, 익산산 블루베리 등 모두 한국 땅에서 한국 농부들이 재배한 농산물이지만 2012년부터 국내 농가들은 이런 작물을 생산해 판매할 때마다 외국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99%가 일본 종자인 감귤을 재배하는 제주의 농가는 묘목 수대로 일본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2012년부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이 전 작물로 확대돼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로열티 부담에서 제외됐던 딸기, 감귤, 나무딸기,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등) 등 6개 품목도 로열티를 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외국산 종자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로열티 적용 대상이 되는 감귤, 해조류 등 6개 품목의 경우 일본산 종자에 대한 의존도가 최대 99%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내산 종자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딸기의 경우 2005년만 해도 국내산 종자 사용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61%까지 높아져 성공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몇몇 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작물은 여전히 국산화율이 초라한 수준이다. 채소나 화훼류는 그나마 육종 기간이 짧아 교배 개량 등이 용이하지만, 묘목류나 과수류는 한 번 심어 열매를 얻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므로 신품종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 우리나라는 포도(98%), 표고버섯(60%), 장미(82%), 카네이션(99.8%) 등 인기 작물의 종자를 상당 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귤에 대한 로열티 적용을 앞두고 최근 일본 종자업계 관계자들이 제주 지역을 돌며 나름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 농가의 외국 로열티 지급액은 2001년 5억 5천만 원에서 2005년에는 183억 6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2010년에는 218억 8천만 원에 달했다. 2012년 유포브 전면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국내 농가의 종자 로열티 부담은 7,9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총 8,149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종자 역량을 강화하고 2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추진 여건은 만만치 않다. 10년간 투입되는 8,149억 원이라는 예산은 세

계 종자업계 1위 다국적 기업인 미국 몬산토사의 1년 치 연구비보다도 적은 돈이다. 현재 세계 종자 시장의 70%는 10대 글로벌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장성 있는 종자 육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등 5대 작물에 대해서 정부보급종자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이들 종자는 수출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면 배추, 무, 고추 등 주요 채소는 토종 종자회사를 인수 합병한 외국기업에 의해 대부분 공급되고 있다. 또한 시금치, 당근, 양파, 토마토, 딸기 등의 채소 종자는 80% 이상이 일본산이었다. 허지만 국경 없는 종자전쟁시대에 무엇이 국산이고 수입산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종자는 한국종자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수입종이냐 토종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육종가가 국내에 있느냐 없느냐다. 외국의 육종가가 만들어낸 품종은 한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지 2년간 수입 적응성 실험을 해야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통과하면 수입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종자라도 한국의 육종가가 만들어냈다면 토종으로 분류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여 농촌진흥청은 배추, 고추, 마늘 수박은 100%, 무는 95%, 양파, 토마토는 80% 이상 국산품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다. 안이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상이다.

2010년 현재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는 300억 달러(약 30조 원) 정도이다. 세계 종자시장에서 10대 다국적기업의 점유율은 1996년 14%에서 2007년 67%로 높아졌다. 다국적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의 듀폰은 강풍에도 꺾이지 않아 단위면적당 산출량이 두 배에 이르는 옥수수 종자를 개발 중이다. 종자전쟁에서 뒤지면 다국적기업의 씨앗을 비싸게 사오거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다행히 동부한농종묘와 농우바이오 종묘회사가 인수합병을 거부하고 살아남았다. 농우바이오에도 인수제의가 들어와 인수금액 1,000억 원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농우바이오 고희선 회장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자는 미래에 물려줄 유산이니 못 버티면 차라리 국가에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그 외에도 팔려간 종자회사의 몇몇 연구자들이 종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퇴사하여 개인 연구소에서 새로운 종자개발에 심혈을 쏟았다. 팔려나간 회사의 종자를 대체할 새로운 한국 종자 개발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이다. 나라가 외국의 침입을 받아 경각에 이를 때 국가의 녹을 받아먹은 관군들은 모두 도망가 자취를 감추고 민초들이 일어나 나라를 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그랬다. 이것은 비단 국방만의 일이 아니다. 오늘의 한국을 먹여 살리고 유지하는 것도 민간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IMF 이후 '한국인의 식탁이 외국종자에 점령됐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다. 국내 채소종자의 반 이상이 신젠타, 몬산토 등 한국의 토종 종묘회사를 인수한 외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남은 토종기업들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는 개인 육종가들이 서서히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거의 전량 일본 종자에 의존하던 딸기묘는 국내 연구진의 노력으로 국산화율이 2010년 60%를 넘어섰다. 표고버섯, 당근도 각각 40%, 30%의 국산화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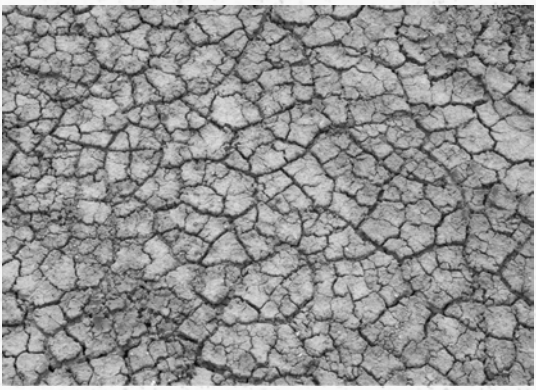
한국의 채소 종자시장 규모는 약 1,500억 원이다. 토종 기업으로 살아남은 농우바이오가 2010년 국내매출 318억 원을 달성하여 시장 점유율 23%로 종자부문에서 1위 고지를 탈환했다. 인수 합병되면서 흥농종묘를 떠나 시드텍 코리아를 설립한 이왕영 사장은 연구용 비닐하우스 3,000평에서 직원 6명을 데리고 밀레니엄 킹 꿀수박, 신혼 꿀 수박, 백두대간 여름 무, 남한강 쥬키니호박, 한여름 김장고추, 청풍명월 김장고추 등 다양한 종자를 생산하고 있다. 2010년 매출액 8억 4,000만 원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5% 탈환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IV. 전쟁의 서막

2008년 세계 곡물파동

2010/11년 기상이변

계속되는 기상이변



2008년 세계 곡물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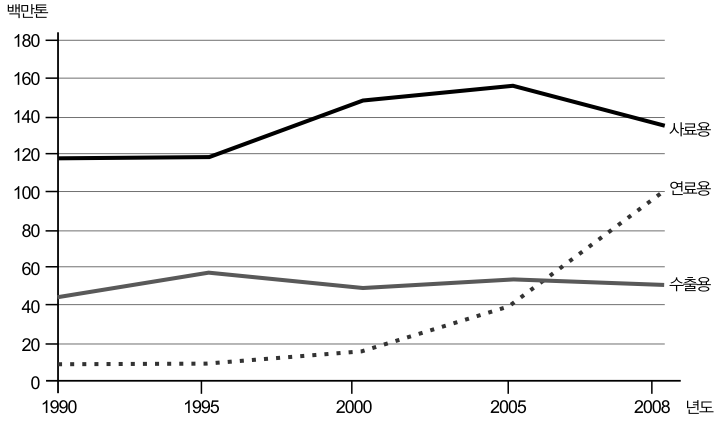
한국에서 광우병 쇠고기로 정권이 뒤집어질 것 같은 난리가 나는 동안 세계의 곡물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한국인들이 수입 쇠고기를 놓고 배부른 투정을 하는 동안 세계 각처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빵을 달라며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세계 30여 개국에서 식량부족으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이티에서는 식량값이 폭등하자 일주일째 시위가 이어져 6명이 사망하고 자크 에두아르 알렉시스 총리가 사임했다. 파키스탄의 제1도시 카라치에서는 3개월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3배가 뛰어 돈이 있어도 빵을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생필품 가게 앞은 빵을 사려는 사람들로 매일 난투극이 벌어졌다. 식량수출국이었던 파키스탄은 WTO 이후 인구의 반이 식량부족으로 시달리는 실정이며 식량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주식인 옥수수의 품귀로 일명 '또르띠아 폭동'이 일어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콩 부족으로 식품회사들이 공장 가동을 중지하

자 노동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2006/07 옥수수 국제가격이 전년의 톤당 100달러수준에서 170달러로 급등했고 2008년에는 280달러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소맥도 2007년의 톤당 200달러 수준에서 2008년에는 440달러로 2배 이상 뛰었다. 대두 가격은 2007년의 톤당 280달러에서 다음해 560달러로 2배로 뛰었다. 옥수수 값이 오르면 농민들은 대두 밭을 줄여 옥수수를 더 심게 되니 콩 값이 연쇄적으로 뛴다. 이와 같은 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유가격이 바렐당 100달러를 넘으면 옥수수를 발효시켜 얻은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 석유의 국제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2006년부터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도에 바이오에탄올 생산으로 1,800만 톤의 옥수수가 사용되었으나 2005년에는 4,000만 톤, 2008년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1/3에 해당하는 1억 톤의 옥수수가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바이오연료의 생산 증가는 석유가격의 폭등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으나 이와 더불어 기후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저탄소 노력을 빌미로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바이오에탄올 생산 산업에

미국의 옥수수 용도별 이용량 변화 추이



투입한 결과이다.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헨리포드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석유 가격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 휘발유를 사용하게된 것이다. 사탕수수가 풍부한 브라질에서는 1930년대부터 바이오 에탄올과 휘발유를 혼합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1975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과 이용이 촉진되었다. 2006년부터는 바이오 에탄올 20%를 혼합한 휘발유가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옥수수를 발효하여 얻은 바이오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섞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에탄올 10%를

혼합한 휘발유를 어디에서나 살 수 있고 이런 혼합 휘발유를 넣어도 이상이 생기지 않는 자동차 엔진이 보편화되어있다. 1990년대부터 바이오에너지 비율이 0~85%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FFV(flexible fuel vehicle) 자동차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옥수수 1톤당 336.9리터의 에탄올을 회수할 수 있으며, 1헥타(3000평)의 땅에 옥수수를 심으면 2,132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다.

바이오연료의 사용은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 제4차 보고서 등에서 이산화탄소 저감화 방법의 하나로 권장된 사항이다.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에 의해 당질을 생산한다. 이 당질로부터 에탄올을 만들어 연료로 태워 대기 중에 방출해도 식물 성장과정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을 넘지 않으므로 이산화탄소 중립이라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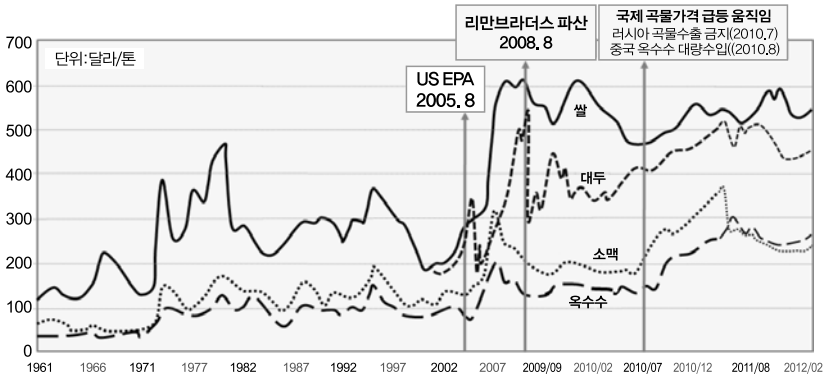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지구 온난화 방지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종류 온실 기체의 법적구속력을 가진 배출감소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 15개국이 중심이 되어 인준하였으나 미국은 부시정부가 비준을 거부하였고, 한국은 2002년 11월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는 없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바이오연료의 사용이 필수적인 사항이 된 것이다.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유채와 팜 등 유지작물의 생산이 확대되어 식량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있다. 2020년에는 세계 곡물의 13%, 식물성 기름 생산의 15%, 사탕수수의 30%가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옥수수와 밀의 국제가격이 요동치자 각 나라들이 자국의 식량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식량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 했다. 특히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우크라이나 등 곡물 수출국들이 식량 수출을 중지하거나 제한하자 거의 모든 식량 가격이 폭등했다. 2008년에 들어와서 쌀값의 변화는 거의 폭발적이어서 태국의 장립종쌀이 톤당 330달러 선에서 1,000달러까지 올랐고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쌀도 톤당 600달러에서 1,100달러로 급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은 쌀 수출국이었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 쌀의 관세화 수입 개방을 허용하면서 값싼 수입쌀로 국내 쌀 생산기반이 붕괴되었다. 쌀시장 개방 후 10여 년 동안 값싼 수입쌀을 연 2~300만 톤

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추이



사들여 서민들의 식량사정은 크게 나아졌다. 그러나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사정이 곤두박질친 것이다. 쌀값이 폭등하자 1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통령궁 앞에 모여 '아로요대통령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놀란 필리핀정부는 태국과 베트남에서 킬로그램 당 1달러를 주고 쌀을 수입하여 1/3 가격에 정부가 운영하는 쌀판매소에서 일인당 일정량만 빈민층에 판매했다. 쌀판매소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쌀을 사려고 아우성이 일어났다.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어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섰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정부대로 쌀 보조금이 전년도의 15배가 증가한 10억 달러를 넘으면서 국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듯 2008년의 곡물파동은 세계 30여 개국에서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 예멘, 아랍에메레이트, 모리타나, 수단,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등, 아시아 대륙에서는 필리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등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다. 식량폭동은 모로코와 예멘, 기니, 모리타니,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일어났다. 러시아는 6개월 동안 우유, 빵, 달걀, 식용기름의 가격을 동결했다. 태국은 식량 공급가격을 동결했고, 인도는 일부 쌀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모로코에서는 식량폭동 혐의로 34명이 투옥되었다. 카메룬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24명이 죽고 1천5백 명이 부상당했다. 예멘에서는 폭동으로 12명이 사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만 명 이상이 시위를 벌였다.

세계 식량수급이 불안해 지자 2007년에 인도가 처음으로 밀과 밀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였고, 뒤를 이어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파키스탄, 유럽연합, 호주가 밀과 보리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수출 금지를 선언했다. 2년간 극심한 가뭄을 겪은 호주는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사료용 곡물의 수출을 제한했고, 유럽연합은 곡물의 수입관세를 폐지했다. 파키스탄은 곡물 수출세를 받고, 세르비아는 밀과 옥수수의 수출을 금지시

켰고, 브라질은 밀에 수출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는 밀과 밀가루의 수출을 금지시켰고, 최저 생산자가격을 인상해 주는 한편 수입관세도 철폐했다. 중국은 84개 곡물품목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취소했고, 57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물량을 제한하고 수출세를 부과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을 중단하거나 수출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유일하게 미국만은 곡물의 수출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은 2008년의 곡물파동에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임이 확실하다. 옥수수를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하여 세계 곡물가격을 2배 이상 폭등시켜 미국 농민의 수입을 높이고 곡물메이저들의 배를 불리는 1석2조의 효과를 낸 것이다.

2010/11년 기상이변

2007/2008년의 곡물파동은 다음해에 일어난 세계 금융대란으로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의한 세계적인 기상이변은 다시 식량위기를 몰고 왔다. 2009년 9월부터 반년이상 비 한 방울 구경 못한 운남성, 귀주성, 사천성 등 중국 서남부 지역 5개성은 100년 이래 최대의 가뭄으로 거의 재난 상태였다. 하천 500개, 저수지 310개가 고갈되었으며 피해면적은 한반도의 2배, 피해인구는 2천만 명에 달했다.

이어서 2010년 여름에 일어난 러시아의 가뭄과 대규모 산불로 국제 밀 가격이 200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랐고 러시아는 밀 수출 금지를 단행했다. 러시아 전체 곡물 파종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천330만 헥타르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

같은 해 지구 반대편에서는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다. 7월에는 파키스탄에 80년만의 최악의 홍수가 일어나 국토의 20%가 물에 잠

겼고 2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장을 찾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다른 자연재해 현장을 본 적은 있지만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그 피해는 엄청났다.

2010년 12월과 다음해 1월에는 건조한 대륙으로 알려진 호주 동북부에서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다. 퀸즈랜드에서만 70개 마을과 도시가 물에 잠겼고 20여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35명이 사망했다. 호주 동부 퀸즈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와 북부 타스매니아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엄청난 비가 온 것이다. 이것은 지구온난화로 높아진 해양온도와 '라니냐'현상이 맞물린 결과라고 한다. 그 피해가 너무 커 호주정부는 홍수세를 거둬들여 피해민들을 지원했다. 호주의 밀 경작도 엄청난 피해를 입어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 튀니지와 이집트였다. 이들 국가들은 그들의 주식인 밀을 주로 러시아와 호주에서 수입하여 먹었으나 이들 나라로부터의 밀수입이 막혀버린 것이다.

2011년 1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23년 철권통치를 하던 벤 아리 대통령이 굶주림과 학정에 성난 민중들의 유혈 시위에 밀려 국외로 탈출했다. 정변의 발단은 굶주리고 공권력의 폭력에 시달린 한 가난한 노점상 청년의 분신자살로 국민들이 봉기했고, 빵을 달라며 외치는 반정부 시위대에 경관이 발포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

했다. 소위 말하는 '자스민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자스민은 튀니지의 나라꽃이다. 튀니지의 자스민혁명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주변 아랍 국가들의 젊은이들을 자극했다.

이집트는 그 오랜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세계에서 빵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이다. 바게트의 나라 프랑스인들이 하루 평균 130그램의 빵을 먹는데 이집트인들은 무려 400그램을 먹는다. 이집트의 빵은 '아이쉬(aysh)'라 하는데 통밀 반죽을 화덕에 구워낸 것이다. 이 납작하고 둥글며 속이 빈 빵을 아침에는 뜯어서 치즈를 발라먹고, 점심에는 샌드위치처럼 채소를 끼워먹고, 저녁에는 양고기를 싸서 먹는다. 2008년 아이쉬를 굽는 상점들이 파업하자 정부는 긴급조치로 군대를 동원해 빵을 굽게 했다. 아랍어로 아이쉬는 '생명'이란 뜻이다. 이집트인들의 생명줄인 이 빵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밀가루를 제공하는 국영 빵집이 동네마다 있고, 8천만 인구의 반에 가까운 빈곤층 사람들이 민간 빵집보다 훨씬 값이 싼 이들 국영빵집에 매일 아침마다 줄을 서 빵을 산다.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는 이집트의 아이쉬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집트에서 빵은 식량이기 전에 통치자와 국민이 맺은 일종의 계약이다. 통치자가 권력을 갖는 대신 국민들에게 빵만큼은 안정적

으로 공급해야하는..."

이 계약이 깨질 때 이집트인들은 분노한다. 1977년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외자를 유치하려고 IMF가 주문한대로 밀가루 보조금을 없애려했다. 빵 값이 급등하게 되자 도시마다 폭동이 일어나, 800여명이 목숨을 잃고 보조금은 유지됐다.

4년 뒤 사다트가 암살되고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이 출범했다. 30년 장기집권을 견디던 이집트인들이 다시 폭발한 것은 2008년 곡물파동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부족해진 시점이다. 국영빵집에서 아이쉬를 사려면 너덧 시간 줄을 서야 했고. 1인당 20개로 구매량도 제한 됐다.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은 정부가 군대예산을 돌려 밀가루를 더 수입한 뒤에야 화를 풀었다.

2011년 1월, 3주째 계속된 카이로 반정부 시위대는 "아이쉬(빵), 호레야(자유), 카라마 인산나야(인권)"를 외쳤다. 이번에도 빵이 원인이 된 것이다. 지난 4~5년 동안 식료품값이 거의 두배로 뛰었다. 러시아의 가뭄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2010년 7월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집트의 연간 밀 수요는 1,300만 톤인데 자급율이 46%밖에 안돼 700만 톤의 밀을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해 먹었던 것이다. 이 수입선이 막히자 이집트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8월부터 이집트 신문의 머리기사는 빵 값으로 일관했다. 관영 알아흐람은 "아이쉬 가격은 변함없다"는 제목아래 정부가 프랑스와

24만 톤 밀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 통제가 덜한 민영 알 쇼루크는 "러시아 밀을 프랑스 밀로 대체하는 비용이 최대 12억 달러나 된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집트 정부는 겨울에 밀을 수확하는 아르헨티나 밀을 수입하려고 남미공동시장과 급히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아르헨티나도 라니냐의 영향을 받아 작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호주도 100년만의 대홍수로 밀을 사올 수 없었다.

이제 기댈 곳은 미국밖에 없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고 이집트의 오랜 식량 원조국이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버냉키 의장이 경기부양을 위한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미국의 경기부양책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져 투자자들은 달러보다 현물 투자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집트가 밀을 구하지 못해 동분서주할 때 투기자금들이 앞다퉈 곡물시장으로 달려들었고 밀 값은 가파르게 올랐던 것이다.

그해 이집트의 식료품값은 평균 20%이상 폭등했다. 아이쉬도 민간 빵집에서는 가격이 25%나 올랐다. 비싼 밀가루를 사오느라 재정압박에 시달리던 이집트 정부는 고품질빵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국영빵집 아이쉬 가격을 올리려다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다.

이집트의 반정부시위는 나날이 격화되었다. 1월 17일과 18일에는 튀니지혁명의 영향을 받아 3명이 분신자살했고, 25일에는 대규

모 시위로 4명이 사망했다. 25일 이집트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했고 28일에는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 군 탱크가 진입했다. 2월 1일 100만명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2일에는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2월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이집트 최고군사위원회가 열렸다. 무바라크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9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일부 권력을 술라이만 부통령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연설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 카이로 해방광장에 집결한 수십만 시위 군중들은 무바라크의 퇴진을 계속 요구했다. 11일도 해방광장에는 수십만의 군중들이 무바라크의 사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했다. 알렉산드리아, 수이스 등 도시들에서도 수많은 시위자들이 거리에 나섰고, 이집트 전국에서 시위는 재차 고조에 달했다. 이날 술라이만 부통령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무바라크 대통령이 그 직무를 사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랍텔레비전 방송은 무바라크와 그 가족들이 이날 이집트의 시나이반도에 있는 샤롬 엘 셔이크로 떠났다고 방송했다. 이로써 거의 100만에 달하는 민중들이 18일간 시위하며 요구한 무바라크 정권의 퇴진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제사회도 무바라크의 퇴진에 빠른 반응을 보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집트 국민들의 광범위한 이익에 부합되는 이 힘든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무바라크의 퇴진은 민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집트의 정변은 주변 아랍국가들의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무바라크 정권 퇴진 다음날인 2월 12일 알제리와 예멘에서도 수천 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는 야당 세력들의 호소로 중심광장에 약 2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10여 년 동안 정권을 지켜온 부테플리카 대통령에 대한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일어났다. 예멘의 수도 나사에서도 학생들의 주도에 부응한 시민 수천 명이 항의시위를 벌여 20년 이상 장기집권하고 있는 살레 대

2011년 2월 11일 이집트 카이로의 해방광장

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2월 말에는 리비아사태가 내전양상으로 번졌고 시리아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식량부족과 독재정권의 부패정치에 저항하는 시민 봉기가 북아프리카와 아랍지역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계속되는 기상이변

2011년 가을, 텍사스 주 등 미국 서남부 축산 집산지에 대규모 가뭄이 발생해 축산 농가들이 기르던 소를 모두 팔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지역을 강타한 가뭄 때문에 목초지가 황폐해지면서 소 사료인 건초 값이 1톤당 80달러에서 200달러로 폭등했다. 여름 내내 비만 기다리던 소 주인들이 가을을 맞아 비싼 사료 가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자 3년 이하 연령의 소까지 끌고 경매소로 몰려간 것이다.

축산물 이외에 미국의 최대 수출 곡물인 옥수수 · 밀 · 땅콩도 이상기후로 큰 타격을 입었다. 2011년 봄에는 미시시피 강 일대의 곡창지대에서 홍수로 360만 에이커(약 1만 4,569㎢)에 달하는 경작지가 사라졌다. 여름엔 혹서와 가뭄이 겹치더니 초가을인 9월부터 서리가 내렸다. 11월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옥수수 작황은 지난 3년 이래 최악이다. 11월 초 미국 정부는 올해 옥수수 예상 수확량을 7월의 발표(3억 3,700만 톤)보다 2,700만 톤 하향 조정했다.

땅콩 수확량도 지난해보다 13% 줄어들 것으로 봤다. 땅콩 가격은 1톤당 450달러에서 1,200달러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땅콩버터 제조업체인 크라프트, 스머커 등은 제품 가격을 30~40%나 올렸다. 미국의 쌀 생산량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국 이외의 곡창지대에서도 마찬가지다.

태국에서는 2011년 7월 이후 대규모 홍수로 전체 농경지의 12.5%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사정들로 인해 세계적인 '푸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계 식량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거나 심지어 이상기후로 생산이 줄어드는 반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육류(소 · 돼지)와 가금류(닭 등) 소비가 각각 2배, 4배로 늘었다. 이로 인한 사료용 옥수수의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수요는 급증하는데 식량의 생산은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에 의하면 세계 평균기온은 2030년경 1980/1999년 평균기온보다 0.4~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1세기말에는 1.1~6.4℃ 상승한다. 해수면은 열팽창과 육지빙하의 손실로 18~59cm 상승할 것이다. 현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385ppm에서 세계가 적극적으로 감

축노력을 하면 21세기말에는 550ppm으로 증가하여 1.1℃의 기온 상승이 일어나지만,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마구 쓰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970ppm까지 될 수 있고 지구 기온은 최고 6.4℃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온도는 0.74℃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최근의 기상이변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계속 된다면 엘리뇨 현상, 라니뇨현상 등으로 대규모 태풍과 해일, 집중 호우와 지독한 가뭄이 더욱 심해져 인류가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의 보고(IPCC, 2007)에 의하면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550ppm일 때 지구평균온도가 2℃ 증가하는데 현재 농도는 이미 385ppm을 넘었다고 한다. 만약 현재 추세대로 온실기체가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21세기말에는 지구평균기온이 3.5℃ 증가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지구상의 생물종 40~70%가 멸종하며, 해수면이 넘쳐 수천만의 이주민이 발생하고, 아프리카에서는 2억 5천만 명이 물부족 사태를 겪게 된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급속히 녹아내리고 있다. 2007년까지 남극과 북극에서 녹아버린 빙하는 100만 제곱마일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50년 전에 있던 빙하의 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양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져 남태평양의 일부 섬들은 이미 물에 잠기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식량생산에 미

치는 가장 심각한 피해는 해양에 접한 경작지의 유실과 염분에 의한 농지의 감소이다. 2030년이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대부분 녹아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며 남북극지역의 영토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상의 육지는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고, 그만큼 해안가와 강 하류의 비옥한 농지들이 없어지게 된다.

지구온난화는 시베리아와 캐나다북부의 식량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벼의 생육기간을 단축시켜 수확량을 낮춘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벼의 생산성은 약 1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맥류와 각종 과일, 그리고 호냉성 채소의 재배적지가 북상하게 된다. 프랑스의 포도밭이 사라지고, 한국의 고랭지 배추 재배가 타격을 입게 된다. 해수의 온도 상승은 어족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기존의 어장들은 없어지거나 위치를 바꾸게 된다. 이미 동해안의 명태잡이가 사라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2080년에는 세계의 곡물생산량이 지금보다 0.6~0.9%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지역별로 생산량 증감에 차이를 보이는데, 북반부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곡물생산은 2.7~9.0% 증가하나 개발도상국들에서는 3.3~7.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의 곡물생산은 오히려 5.2~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곡물생산은 2.5~7.8% 감소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3.9~7.5% 감소한다. 특히 남아시아 지역의 곡물생산은 크게 낮아져 18.2%~22.1% 감소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동안 세계의 인구는 지금보다 2배가량 증가하며, 그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의 인구 증가에 기인한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식량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시절 미국부통령을 지낸 엘 고어(Albert Gore)의 '불편한 진실'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재앙에 대한 세계인의 경각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이 공로로 엘 고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과 공동으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온실효과를 내는 이산화탄소(CO_2)를 비롯한 6종류(메탄, 이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의 온실기체 배출을 규제받는다. 교토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 3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유럽연합 15개국이 8% 감축하고, 미국은 7%, 캐나다, 헝가리, 일본, 폴란드

는 6% 감축목표를 세웠다. 탄소배출이 비교적 낮은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였으며, 러시아, 일본, 캐나다가 불참을 공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들인 미국, 중국, 인도 등이 구속력 있는 감축체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교토의정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만을 감축대상으로 하는 의미 없는 체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인류의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첫 시발점이 되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게 된 것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한다. 이를 위해 유럽기후거래소(ECX)를 비롯한 탄소배출권거래소 10여개가 설립되었다.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현재 1,263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핀란드는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하였으며 이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도 탄소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클린에너지법'이 2011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탄소세 부과대상 기업은

2012년 7월부터 탄소배출 톤당 23호주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은 탄소세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2012년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다. 14일간 진행된 코펜하겐 총회에는 세계 105개국 정상과 192개국 대표 등 약 2만 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국 정상들은 '유의'하기로 하고 폐막했다. 이 협정에는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 내로 제한하고, 선진국은 2010년 1월 말까지 2020년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개도국은 2010년 1월 말까지 실행방안을 담은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국내의 자체적 측정 · 보고 · 평가를 거쳐 2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선진국은 2010~2012년 총 300억 달러를 개도국에 긴급 지원하고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정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2010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정하는 데 실패했고, 구속력 있는 감축안 마련도 다음 총회로 미뤄져 코펜하겐 총회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94개국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연장과 202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함으로서 자칫 법적 진공상태가 되어 유엔이 주도해 왔던 기후변화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게 되었고 향후 기후변화 협상의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식차이는 아직 대단히 크다.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200년 이상 내뿜어 왔던 탄소배출의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해 경제발전을 막으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남아공 등 신흥 개도국들과 OECD 개도국인 한국, 멕시코 등이 방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미 세계 총 배출량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빠진 기후변화 협약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중국이 89.5억 톤으로 27.1%, 미국이 52.5억 톤으로 15.9%, 인도가 18.4억 톤으로 5.6%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반회의 직후 캐나다는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했다. 피터 켄트 캐나다 환경부장관은 교토의정서 탈퇴 배경에 대해 "교토의정서를

세계 온실가스 배출비중 (2010년 기준)

순위	국명	배출비중 %
1	중국	27.1
2	미국	15.9
3	인도	5.6
4	러시아	5.3
5	일본	3.5
6	독일	2.5
7	한국	1.8
8	캐나다	1.6
9	영국	1.5
10	인도네시아	1.4

지키려면 캐나다는 가구당 1,600달러, 총 136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아 온실가스의 증가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온실가스 제어가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기여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어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이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20년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0%나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해수면의 상승으로 물에 잠긴 땅이 많아 세계지도가 바뀌고 있다. 홍수와 가뭄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의 수억 명 인구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이들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 주요 탄소배출국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더반 기후변화 총회 행사장에서
녹색기후기금 지불을 요구하는 한국의 (재)환경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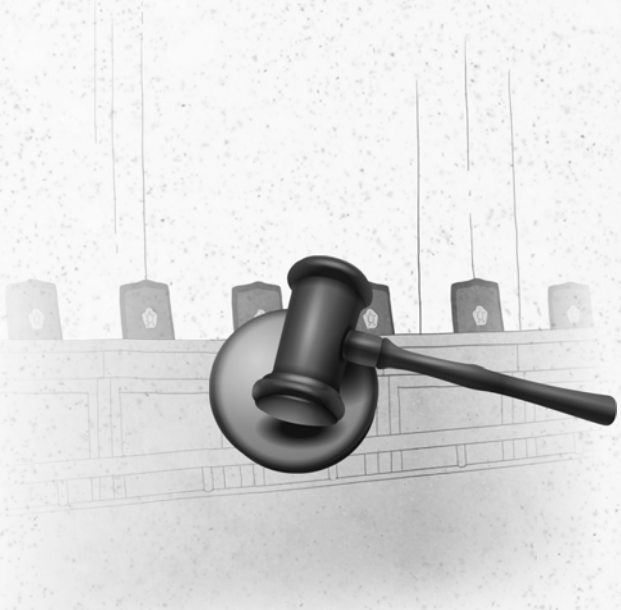
2015년

V. 뚱보세(稅) 청문회

1차 청문회

2차 청문회

비만세(稅)



1차 청문회

현관문이 신경질적으로 덜컹거리며 열렸다. 그녀는 현관문이 좁은 듯 빠져나오면서 씨근덕거렸다.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그녀의 절구통 같은 목에 걸려있는 호박목걸이가 굵게 주름 잡힌 목살과 함께 비둔하게 출렁거렸다. 3월의 비교적 쌀쌀한 날씨에도 그녀는 짧은 팔 블라우스에 무릎을 겨우 덮는 넓게 퍼진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두꺼운 피하지방은 이미 주위 온도에 둔감하게 만들었고 여름철에는 견딜 수 없는 불쾌감에 시달리게 했다.

"망할 놈들, 비만세라니, 아니 국회가 그렇게 할일이 없나? 그렇잖아도 짜증나는데, 정말 미치게 만드네."

그녀는 투덜거리며 집 앞에 세워 놓은 그녀의 캐딜락으로 뒤뚱거리며 걸어갔다. 그녀의 복부는 드럼통 둘레를 능가하는 정도였고 수박만한 가슴은 차라리 돌부처의 받침대에 흘러내린 옷자락처럼 그녀의 뱃살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는 운전석 의자를 한껏 뒤로 밀쳐놓은 그녀의 차에 몸을 밀어 넣듯 올라탔다. 코끼리 다리만한 그녀의 한쪽 다리를 힘들게 들어 마저 올려놓으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미친놈들, 뚱뚱한 것도 참기 어려운데 세금까지 내라니, 공산당 같은 놈들, 오늘 혼을 내 줄 거야."

오브리언여사는 이 나라의 소비자 단체 거물급 인사이다. 여성단체와 비정부단체(NGO)를 대표하는 입심이 세기로 유명한 인물이다.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뚱보세 법안 상정에 대한 그녀의 반대 의견을 진술하러 가는 길이다. 그녀는 의사당 계단을 힘차게 올라갔다. 사타구니에서는 벌써 비벼댄 살이 짓물러 쓰라렸으나 오늘은 상관할 겨를이 없다.

그녀가 들어오자 청문회장은 그녀의 몸무게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았다. 거침없이 독설을 뿜어대기로 유명한 이 여자가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해댈는지 모두들 숨을 죽이고 보려는 눈치이다.

"오브리언여사, 잘 오셨습니다. 진술자 자리에 앉으시지요."

위원장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점잖게 입을 열었다. 오브리언여사는 그녀의 한 아름이 넘는 엉덩이를 팔걸이의자에 쑤셔 넣으면서 위원장을 쏘아보았다.

"오브리언여사님, 비만세 징수에 대한 여사님의 의견을 진술하여 주십시오. 진술 내용은 녹취되며 속기사들에 의하여 기록 보관됩니다,"

위원장은 약간 떨리는 그러나 근엄한 어조로 말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몸무게가 세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은 식량을 구할 수 있는 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찌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살찌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살을 떼어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징수하다니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과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요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인권과 개인적 자유가 보장되는 이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다소 과체중 그룹에 속하는데, 보십시오, 제가 누구에게 불편을 준적도 없고 이 몸매를 이용해서 돈을 번적도 없는데 비만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녀는 가쁜 숨을 진정하려는 듯 앞에 놓인 생수병을 들어 잔에 따라 벌컥 마시고는 말을 이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의 식성을 그대로 이어 받아 햄버거, 소시지, 프라이드치킨, 아이스크림과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바쁘셨지만 냉장고에는 늘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우유와 콜라, 과일 주스를 물처럼 먹고 자랐습니다. 더구나 여성은 결혼하여 아기를 낳으면 몸이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어느새 체중이 100kg을 넘었고 아이들을 보느라 주로 집에 있었고 자동차, 세탁기 등 모든 기계들이 몸을 편하게 만들어 주니 어느새 체중이 150kg을 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주로 먹는 우유나 고기 음식을 남들처럼 즐겨 먹었고, 위장이 튼튼하고 건강하니 식당에서도 주는 대로 먹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체중이 200kg을 넘어 다소 불편을 느끼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준 적 없고 저의 사회적인 활동을 지장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비만세를 내라고 한다면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당장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일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은 반대편 책상에서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 사무엘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가 개인적인 불평등이나 불이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의 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요 우리 사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이 문제를 인식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만의 만연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비만의 원인과 그 예방법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그동안 수백억불의 연구비를 투자했으며 비만을 억제하기 위한 식사지침을 만들어 전 국민에게 교육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 모든 노력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우리는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 전 국민의 50%에 달했던 비만 인구수가 이제 70%를 넘었습니다. 체중이 150kg이 넘는 중증 비만환자가 전체 국민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릴 것 없이 온 국민이 비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연된 비만은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병, 고혈압, 암, 당뇨병 등 이 모든 질병들이 비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20년전 전체 GNP의 6%에 달하던 성인병에 의한 국민 의료비가 현재 10%를 넘었습니다. 비만은 이제 국민병이며 이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전쟁이나 테러는 국부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지만 비만은 전체 국민을 위험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획기적인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 말에 오브리언여사는 발끈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은 약간 상기된 얼굴로 오브리언여사를 보며 다소 주저하는 태도로 발언을 허락하였다.

"감사합니다. 도무지 정부는 이제껏 무엇을 했습니까? 비만의 원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지만 우리가 늘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아야한다는 것과 슈퍼나 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종 식품들은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좋은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신문과 TV에서는 영양에 좋은 각종 음식과 음료를 사먹으라고 끊임없이 선전하며 우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같이 비만을 조장하는 장사꾼들에게 세금을 먹여야지 어찌 그걸 사 먹고 살이 찐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 상업주의의 피해자인 비만인들에게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은 오브리언여사의 옆에 앉아 있는 골드리치 상공부장관에게 시선을 돌렸다. 둥글 넙적한 얼굴에 훨씬 넘어간 대머리를 금테 안경으로 부분 포장한 사무엘 장관은 오브리언 여사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한 무게를 느끼게 하는 인물이다. 그의 배는 엉덩이보다 두

배 정도는 앞으로 나왔고 배꼽 밑에서 한참 내려간 곳에 겨우 묶여 있는 허리띠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골드리치장관은 선 듯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주위를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식품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오브리언여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나라이며, 모든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그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상거래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제품에는 상세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 식품의 경우 일회 섭취량에 들어 있는 열량과 필수 영양소의 양을 외부포장에 표시하는 영양소 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 정보에 따라 자기에게 필요한 식품을 필요한 양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년전 어떤 소비자가 자기의 비만증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햄버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이 식품을 계속적으로 먹으면 비만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재판 결과 원고는 패소하였고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사실은 상식인데 자신의 지나친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햄버거를 계속 과식하고 나서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

른 사람의 탓을 하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법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골드리치 장관은 개기름이 흐르는 이마와 턱밑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면서 상기된 얼굴로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오브리언여사의 비만세 반대 입장은 찬성합니다. 만약 비만세가 부과되면 산업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며 경제가 위축되어 사회적 불안이 조성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산업 규모는 GNP의 12%로서 제조업 분야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만세가 부과되면 식품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식품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품산업과 연관되는 기계공업, 포장산업, 물류수송업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는 지대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제까지 이 나라의 선진 식사법을 모방하여 우리 식품을 사다먹는 많은 나라들의 구매의욕을 상실하게 함으로서 무역수지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가의 산업진흥과 경제발전을 책임진 담당자로서 비만세의 부과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은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비서들과 열심히 의논하고 있는 농림부 장관에게 시선이 박힌다.

"밀러장관님, 국가의 식량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짧은 머리에 네모난 살찐 얼굴과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밀러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림부는 전통적으로 국민에게 충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에 몰두해 왔으며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일세기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식량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식량 증산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농업의 기계화와 생산기술의 발달로 농업 생산성은 크게 증가하였고 먹고 남은 식량을 세계 시장에 팔아 나라살림에 크게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 저장 가공 기술의 발달로 양질의 식품을 대량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다 만들어 놓은 음식을 사와서 녹이거나 데워 먹는 일에 익숙해져 이제 부엌일을 하는 주부가 거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 우리나라처럼 먹을 것이 풍족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추구해온 꿈이 이루어 진 것이지요. 이와 같이 훌륭한 식량공급 체계에서 우리 국민은 지금 가장 풍요롭고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세기 전에 비해 오늘날 사람들의 체중이 조금 더 나간다고 하여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인

간이 추구하는 잘 먹고 편한 생활에서 오는 자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비만이 보편화된 것이며 이러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밀러장관은 주위를 둘러보며 앞에 놓인 물잔을 들어 입을 적신 후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축산을 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켰고 낙농산업과 육가공산업이 발달하여 전 세계에 양질의 축산식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 옥수수, 콩 등 세계 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곡물의 반 이상을 우리나라가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고 있으며 우리의 식사패턴을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인의 영양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위치를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비만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밀러장관은 가까스로 흥분을 진정시키며 말을 맺었다.

"여러분의 증언을 잘 들었습니다. 국민 보건적 측면에서의 견해와 식량생산 산업분야의 의견이 크게 상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

체나 NGO의 의견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쉽게 결론에 도달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제 2차 회의에서는 학계와 사회단체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청취하기로 하고 오늘 1차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은 권위 있게 나무방망이를 세 번 두들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2차 청문회

3월 12일 오전 10시, 국회 청문회장은 다소 요란스러웠다. 지난번 청문회에 대한 신문 기사가 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지 오늘은 TV 카메라맨들이 분주히 취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브리언 여사는 여전히 그 무거운 체구를 이끌고 일찍 청문회장에 나와 있었다.

위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친애하는 청문회 증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난 화요일의 1차 청문회에 이어 오늘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의과대학 교수이시고 유명한 인체생리학자이신 투루먼 박사님으로부터 비만의 원인과 방지법에 대한 견해를 듣겠습니다. 트루먼교수님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중요한 청문회에 본인을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트루먼교수는 갸름한 얼굴에 걸려있는 두터운 검은색 뿔테안경을

치켜 올리면서 입을 열었다.

"비만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수행되었고 이제 분자수준에서의 메카니즘 규명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초기 이론은 지방세포설인데 어린 시절에 영양을 과잉섭취하면 체내에 지방세포의 수가 많아지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크기가 커져 비만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들 지방세포는 다른 세포와는 달리 그 크기가 무한정 커질 수 있으므로 현재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비만환자들의 몸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옆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시절에 영양조절을 잘하여 지방세포 수가 많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면 평생 병적으로 살이 찌는 상태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학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꽤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호르몬설이 나옵니다. 실제로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는 갑상선항진 환자들은 먹는 양에 비하여 살이 찌지 않고 심할 경우에는 너무 몸이 말라서 병적인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20세기 말에 인간 게놈프로젝트가 완결되면서 인간의 유전자 서열을 완전히 해독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비만인자를 결정하는 유전자 배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배열을 확인했다 해서 비만을 당장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조작으로 비만이 방지된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직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이미 비만에

걸린 사람을 유전자 조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견해로는 각 개인의 식욕을 스스로 절제해서 열량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 섭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만을 방지하고 치료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먹은 만큼 또는 필요 이상의 열량이 섭취된 만큼 살이 찌는 겁니다. 먹는 양을 줄이지 않고 약이나 다이어트식품으로 비만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자칫 건강을 해치고 심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합니다."

트루먼교수의 증언으로 장내는 잠시 침울한 분위기에 빠져 들었다. 위원장은 분위기 전환이라도 하려는 듯 단정한 단발머리에 가는 검은테 안경을 쓴 미모의 여자교수 우드펙박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베타대학 식품영양학과의 우드펙교수는 영양학의 권위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만세라고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밝히자니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인간 영양학은 원래 19세기말부터 시작된 동물영양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가축에게 사료를 먹여 빨리 잘 크면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동물영양학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식품의 영양가를 평

가해왔습니다. 분석적 연역법으로 동물실험을 통해 많은 필수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타민이나 필수아미노산, 미네랄 등을 규명하여 인류의 영양향상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비타민을 발견하여 이들의 생산을 산업화함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일세기 전만하여도 흔한 질병이었던 괴혈병, 각기병, 야맹증, 피부병 등이 이제는 거의 퇴치되었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영양이 좋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사람들은 미량성분의 부족이나 영양 결핍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는 영양의 과잉과 부족이 공존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일부 집단의 영양 과잉으로 비만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나 갑자기 영양 섭취를 줄이면 곧 영양 결핍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비만세의 부과 보다는 다이어트 식품의 확대 공급, 미량성분 결핍증의 퇴치 등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드펙교수는 그 특유의 자신 만만한 얼굴 표정으로 상공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눈치를 살핀 후 청중을 둘러본다. 사실 그녀는 농림부와 상공부의 연구비로 많은 연구업적을 내고 있다.

이때 트루먼 교수가 급하게 발언에 뛰어 들었다.

"위원장님, 지금 우드펙교수의 증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

겨 있습니다."

트루먼교수는 그의 메모지를 보면서 말을 이었다.

"현대 영양학이 가축영양학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바로 이 나라를 오늘의 뚱보나라로 만든 원인입니다. 축산이 추구하는 것은 적은 사료를 먹여서 빨리 크고 살이 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발전한 영양학이 인간을 가축처럼 살찌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동물에게 먹여보아 동물이 잘 자라고 빨리 크면 좋은 음식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되고 흡수가 많이 되는 것을 좋은 음식으로 많이 먹기를 권장해 온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밀가루, 설탕, 크림, 버터, 식용유 등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고 소화가 되지 않는 섬유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곡류, 채소, 두류 등은 저급 식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추어 식품가공 산업은 원료에서 섬유소와 같은 저급 성분을 제거하고 영양 농도가 높은 버터나 치즈같은 정제 농축된 식품을 만들어 공급해 왔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 먹는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입니다. 결국 조금만 먹어도 열량이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는 반면 배속은 차지 않으니 더 먹게 되고, 대부분 흡수되어 대장까지 내려가는 양이 적으므로 변비현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대장암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변비에 시달리고 대장암이 만연하는 것은 순전히 음식을 잘못 가공하여 먹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현대 영양학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영양부족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에 우드펙교수는 다시 칼을 빼어들지 않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단호하게 응수한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투루먼교수의 지적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결론입니다. 비록 오늘의 영양학이 동물영양학에서 출발하였으나 그동안 많은 동물실험과 인체실험을 통하여 인간에게 적합한 영양이론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물론 한동안 섬유소의 중요성을 간과한 나머지 변비나 대장암의 위험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이미 영양학 분야에서 인식하고 섬유소의 섭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추출한 섬유소를 다시 첨가한 제품이나 수용성섬유소를 함유한 드링크제품을 다이어트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최소한 얼마이상을 먹어야 한다는 영양권장량의 개념을 고쳐 10년 전부터 상한선을 정하여 얼마이상은 먹지 말라는 식으로 영양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만의 문제는 영양학의 잘못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식습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80년대부터 실시한 국민 건강교육을 위한 식사지침에서 지방질에서 오는 열량 섭취를 총 열량의 30% 이하로 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

기와 크림과 튀김으로 만들어진 우리음식에서 지방에너지를 30%이하로 낮추기는 쉽지 않으며 그렇게 낮추면 맛이 없어 팔리지 않는 식품이 됩니다."

이 말에 위원장은 무척 흥미 있다는 표정으로 토론에 불을 지핀다.

"마침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인류학자 오메가대학의 미첼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미첼 교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반백의 머리에 영국신사를 연상하게 하는 노교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비만의 문제는 서양의 오랜 역사를 통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영양학의 역사적 오류도 그 요인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방사회가 지녀온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입니다. 중세의 아름다운 벽화들을 보십시오. 아기 천사들의 통통하게 살찐 얼굴과 팔다리, 풍요를 상징하는 여인의 풍만한 몸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미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여인들은 젖가슴이 커야했고 엉덩이와 하체가 풍만해야 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남자들의 사랑을 특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많아

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양사회가 지녀온 미적 기준에 맞춰 인간은 선별 육종된 것입니다. 한번 동양사회와 비교해 보십시오.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는 여성의 가슴이 작고 아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단단히 묶을 수 있는 의상을 입었지요. 서양의 다 드러낸 의상과는 큰 대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육종되었다고 봅니다."

미첼교수는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그의 심미적 사고를 정리하는 듯 보였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동서양이 가지고 있는 자연관에 대한 차이입니다. 서양은 성경 창세기에서 보듯이 세상의 만물을 인간이 정복하여 활용하고 관리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동양인들은 함께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이나 호주의 원주민을 거의 사멸시킨 후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원주미들을 포용하며 교역의 대상으로 함께 살아왔지요. 식품의 선택에서도 서양은 적극적으로 가축을 도살하여 그들의 고기를 취해 철저하게 가공하여 먹은 반면 동양인들은 주로 식물성 식품을 채집하여 크게 변질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먹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오늘날 인류의 구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사회는 소수 특정

집단이 독점하여 과잉영양을 취하고 있으며 동양사회는 많은 민족들이 공존하는 과밀한 환경 속에서 다소 부족하게 식량을 나눠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지구촌시대로 변해가고 있으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내는 다시 잠시 숙연해 졌다. 위원장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표정으로 로빈훗의원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제 로빈훗의원의 의견을 들읍시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빈훗의원은 자연보호 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본 비만세 법안 상정을 제안한 분이십니다."

젊고 경쾌하게 날씬하고 유난히 빛나는 눈을 가진 로빈훗의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방청객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한시대의 가치관과 미덕이 다음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사회가 이기적인 욕망과 본능적인 욕구를 무절제하게 충족시켜온 지난날의 과오로 인하여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공룡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숫자보다 10배나 많은 소와 돼지와 닭을 키워 도살하여 그 젖과 살과 피로 인간은 견딜 수 없을 정

도로 살이 쪄버린 것입니다. 그 많은 가축을 비육하기 위하여 작은 우리에 가둬두고 먹이고 살만 찌게 한 것처럼 인간도 스스로 도시의 아파트와 자동차 속에 앉아 무섭게 살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문화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지속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문제를 인식해 왔고 이것을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비인간적인 오늘의 축산 방식을 지적하였고 동물성 식품에 편중되어 각가지 성인병으로 고통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홍보하였으며 혀끝의 맛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음식조리방법으로 영양불균형이 발생하고 지나친 과식으로 전 국민이 비만이라는 국가병을 앓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실패하였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 가치관, 미덕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생명활동을 존귀하고 보호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생명체에게도 최소한의 자유와 존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굶어죽고 있는데 지나치게 먹고 살을 빼기 위해 약을 먹고 비생산적인 운동으로 땀을 빼는 것이 유행이라면 신은 그 사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비만은 죄악이라는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살이 찌고 배가 나온 것을 비인간적이고 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까지 많은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으나 전혀 효과가 없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만세 징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이 나라의 기본이념인 자유 평등 호혜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비만세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로빈훗의원의 단호한 발언으로 장래는 다소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위원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이때 대머리에 호인처럼 보이는 노동부장관이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노동부를 맡고 있는 라슨 장관께서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비만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로빈훗의원의 발언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비만세의 필요성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전체국민의 70%가 비만인 현재의 상황은 이 나라 노동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등학생 중에 100미터를 20초 이내에 뛸 수 있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며 30% 이상이 100미터를 다 뛰지 못하고 중도에서 주저앉습니다. 우리 국민의 노동체력은 이미 세계 최하위이며 노동생산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기업이 기계화 자동화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초체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30%에 달하는 중증 비만환자들은 이미 노동시장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비만이 이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이 나라 산업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로빈훗의원의 비만세 제안에 동의합니다. 국민의 식습관이나 보건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한 예는 역사적으로 적지 않게 있습니다. 15세기 한국의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국민이 쇠고기를 좋아하여 소를 지나치게 도살하므로 이를 금하고 위반자는 무거운 벌금을 내도록하였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하여 국회의 결의로 담배 값을 두 배로 올려 팔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세 뿐만 아니라 비만을 일으키는 음식에 대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은 장내를 돌아보며 청문회의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을 감지한다.

"친애하는 여러 증인과 방청객 여러분, 장장 이틀에 걸친 청문회를 통하여 비만세 법안 상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을 들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다음 주에 열릴 사회복지분과위원회의 비만세 법안상정 소위의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청문회가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은 다시 권위 있게 나무방망이를 세 번 두들겼다.

비만세(稅)

2015년 3월 19일 국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비만세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비만의 만연을 막고 국민 보건의 퇴화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만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대중교통(택시, 버스, 철도, 항공, 선박 등)은 승객의 비만 정도에 따라 요금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3) 정부는 비만을 일으키는 고열량 가공식품에 대하여 중과세할 수 있다.

후기: 국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위원 15명중 체중이 100kg을 초과하는 위원은 한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비만이 의원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평소 체중관리를 잘 하였으며 선거와 의정활동에 바빠서 살이 찔 겨를이 없다고 한다.

2030년

VI. 식량전쟁

미국과 유럽의 2030년

중국의 2030년

식량무기화의 종말

미국과 유럽의 2030년

2030년 새해 첫날의 뉴욕 거리는 우울하다 못해 어둡기까지 했다. 서기 2000년, 21세기의 시작을 알리던 밀레니움 행사의 흥분과 화려함은 간데없고 거리는 을씨년스런 찬바람만 몰아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가에는 연일 계속되는 군중집회에서 버려진 쓰레기와 낙엽들이 어지럽게 굴러다니고 있다. 여기저기 모퉁이마다 웅크리고 누워 자는 노숙자들이 마치 1970년대 암스테르담 거리를 메웠던 히피족들의 몰골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다. 수천억대의 투기자금을 굴리는 기부자들이 흘리는 빵부스러기로는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유럽 역시 차가운 2030년 새해를 맞는다. 유럽연합이 붕괴된 벨기에 브뤼셀은 불 꺼진 건물들로 무겁게 쳐져 있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이예크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에 입각한 자유방임원칙을 신봉했던 미국

은 서브프라임 대출을 조장하여 집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놓고는 은행들이 파산하자 서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금융회사들은 파산했으나 회사 관계자들은 막대한 돈을 챙겨 투기자금으로 세계를 헤집고 다녔다. 이들은 주로 곡물시장에 투자하여 곡물가격을 폭등시키고 엄청난 부를 챙겼다.

자본주의4.0을 외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부문화의 확산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미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의 잘못된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부자들의 기부행위는 늘 있어왔던 것이고 수탈이 지나칠수록 기부행위는 더 크게 보도되어 가난한 자들을 달래 왔던 것이다. 국민의 박탈감과 고통은 자연적으로 사회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2020년 대선에서는 사회주의 색채가 뚜렷해진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등 외국에 주둔하던 미군이 대부분 철수하게 된다.

2011년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1%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시위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들의 결속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가장 먼저 스마트몹 정치혁명이 일어난 곳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에 이어 남부 유럽이었다. 2015년 그리스를 필두로 하여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정치혁명에

가까운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그리스 정치 3대 가문인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가문들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 인력은 줄이지 않은 채 측근과 이들의 가족 친척 수천 명을 정부 관료로 새로 채용하는 관행으로 극심한 재정 압박을 자초했다. 더구나 이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엄청난 빚을 져가며 전국민 무상교육 등 화려한 복지정책을 펴온 그리스의 말로는 예상된 것이었다. 2011년 경제파국을 맞자 과도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으나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2013년 그리스 신자유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는 대승을 거두고 고율의 누진 재산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는 경제혁명을 이루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부자들의 재산과 부동산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혜 받은 소수만이 부를 누리고 유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대다수의 민중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탈리아의 최고 갑부이며 언론매체를 장악하고 있던 베룰루스 코니 총리가 사퇴하고 권력이 중도우파에서 중도 녹색 데이지당으로 이전하면서 그리스와 유사한 변화를 맞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맞은 남부 유럽국가들은 2015년 유럽연합

을 탈퇴한다. 남부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국가부채를 북부 유럽국가들이 더 이상 지탱해 줄 수 없었다. 이렇게 금이 간 유럽연합은 2020년 마침내 붕괴되고 만다. 유럽의 각 나라에서는 급진 개혁세력들이 국가 부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 논쟁이 사회를 시끄럽게 한다. 마치 1929년 대공황 이후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운동으로 나치당이 나타날 때와 같은 양상이 전개된다.

중국의 2030년

한편 홍콩과 상하이의 2030년 새해 풍경은 뉴욕과는 대조적이었다. 구룡반도에서 건너다보이는 홍콩섬은 2030년을 알리는 고층건물의 네온사인으로 물들어져 있다. 침사추이 해퐁로드와 스타의 거리 해변에는 신년을 맞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상하이 포동지역의 빌딩숲은 이미 뉴욕을 능가했으며 창강 강변에는 불야성을 이룬 조명과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들은 폭죽을 터트리고 콜라와 맥주를 마시며 가는 해를 회상하며 더 풍요한 오는 해를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미래학자들의 우려와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발전과 풍요를 이어갔다. 공산주의 권력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다. 1972년 마오쩌둥의 사망이후 덩샤오핑 주도의 개혁 개방노선이 시작되었으나 일부 강경파의 공격으로 좌절의 위기에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1989년 천

안문사태 이후 중국은 장쩌민의 주도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더욱 전진했다. 공산주의식 계획경제의 경직된 사상에서 벗어나 개혁 개방 노선으로 매진했다. 2000년 장쩌민은 3개 대표노선, "선진 생산력, 선진 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천명했다. 여기서 핵심은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에 있다. 당이 대표해야할 계급이 기존의 노동자 농민에서 기업인과 자본가, 지식인들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노동자와 농민의 당이 아님을 공식화한 것이다..

중국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9.6%의 고속 성장을 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52년의 679억 위안에서 2010년 39조 7,983억 위안(5조 8,786억 달러)으로 586배 늘었다. 1인당 GDP로는 119위안에서 2만 9,748위안(약 4,000달러)으로 늘어난 것이다. 무역규모는 1978년 수출 97억 달러, 수입 109억 달러(총 208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수출 1조 5,779억 달러, 수입 1조 3,948억 달러(총 2조 9,727억 달러)로 늘었다. 중국의 GDP는 2010년 2분기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5%에서 2010년 9.5%로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빈부, 도농, 지역 격차의 확대와 환경오염, 범죄, 부패 등의 사회문제가 격화되었다. 2007년 후진타오는 당대

회에서 '과학적 발전관'을 주창하고, 양적발전보다 인간 중심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환경파괴를 줄이고 의료, 연금 등 사회복지 혜택을 늘려 부의 불균등 분배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에 항의하는 지식층의 움직임은 계속되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경제성장과 생활이 윤택해 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회 혼란을 원치 않았다. 사회주의식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중국 공산당 초기부터 내려오는 최고 고위층의 청렴과 부단한 부패척결 노력이 거대 중국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2020년 중국은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했고,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산업발전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이다. 중국은 인도와 함께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인의 식습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육류소비량은 2006년의 1인당 년 간 30킬로그램에서 60킬로그램으로 2배 증가했고 우유소비량도 2배 증가했다. 사료곡물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중국은 2020년 7천만 톤의 옥수수를 주로 미국에서 수입한다. 옥수수 총 국제 교역량 1억 톤 중 미국이 반을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이 수출하는 옥수수도 모자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도 수입해야 했다. 중국의 옥수수 자급률은 이제 60% 미만

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료 단백질 급원인 콩의 수입도 크게 늘어 년 5천 5백만 톤 이상을 수입한다. 콩의 국제 교역량 8천만 톤의 80%에 해당하는 양이다. 중국의 콩 자급률은 이미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0년까지 쌀을 수출하던 중국이 2015년부터 쌀과 밀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막대한 곡물수입으로 세계 곡물가격은 2010년도에 비해 평균 30%이상 올랐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으로 모자라는 식량을 언제든지 사올 수 있었고, 한국과 일본과 같은 절대 곡물수입국들은 중국의 작황에 따라 곡물값이 요동치는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

식량무기화의 종말

더반 기후변화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020년 11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재임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했다. 미국이 2015년 교토의정서에 가입함으로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큰 전기를 맞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지구온난화의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구 평균기온은 21세기에 들어와 1도 상승했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85ppm에서 450ppm으로 높아졌다. 교토의정서 협약 이후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감소에 노력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회복 불능의 파국으로 간다는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

제까지 소극적이었던 국민 대부분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서 미 의회는 서둘러 교토의정서에 조인하였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컸다. 석탄과 화석연료를 쓰는 대부분의 화력발전소는 폐쇄되고 원자력발전소와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소로 대체되었다. 자동차와 휘발유의 세금을 대폭 인상했다.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큰 메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수를 2030년까지 반으로 줄이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스턴 기후협약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서기 200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계 모든 나라가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 약속된 감축수준을 성실히 이행하며 개발도상국들은 1990년도 배출수준으로 낮추는 것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낮추지 못할 경우 식량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식량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래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 왔으나 중국의 경우는 심각했다.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이미 미국의 2배를 넘었으며 이것을 1990년 수준으로 낮추려면 사

실상 산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았다. 옥수수와 콩의 세계 최대수출국인 미국이 환경문제를 빌미로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 중국은 엄청난 식량파동을 겪게 되고 정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2020년 보스턴 기후협약회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 가는 초강대국의 입지를 살리기 위해 지구 온난화 방지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 서방 선진국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보스턴 기후변화회의에서 천명한 미국의 구상을 공식화하려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00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미국의 보스턴구상을 상정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제 미국은 캐나다, 호주 및 유럽 국가들과 연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식량수출을 제한한다고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까지 식량의 상당부분을 외국의 수입식량에 의존하던 중국, 인도, 한국 등 신흥 공업국들은 자국의 식량생산을 늘이기에 총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을 포기하고 비교우위 경제이론에 따라 세계 분업화에 열심히 나섰던 나라들이 재앙에 직면해서야 식량주권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의 뒤늦은 깨우침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2025년을 전후로 아시아지역은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사막화는 신강위구르자치구를 넘어 감숙성과 내몽고자치구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신강위구르자치구와 내몽고자치구는 사막화가 너무 심해 중국정부의 식량 지원이 없이는 생존이 어려워짐에 따라 독립운동으로 시끄러웠던 사회가 다소 안정되기도 했다. 그만큼 중국의 식량사정은 어려워 졌다. 운남, 사천성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지역과 하북, 산동성의 동북지역에서 대규모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일어나면서 중국의 7년 흉년이 2020년대 하반기를 강타했다. 중국의 산업화로 벌어들인 재화의 상당부분이 세계 전역에서 식량을 사들이는데 사용되었다. 중국의 대량 곡물구매로 세계 식량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서방의 곡물 메이저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2030년 미국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했다. 보스턴 기후협약회의에서 공언한대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식량수출을 제한하는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해야할 시점에 와 있었다. 중국은 식량구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 팽창을 늦출 수 없었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도에 비해 2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30%를 점하고 있었다. 세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2030년 2월 미국은 중국에 곡물수출을 금

지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해 중국 서북부의 사막화는 더욱 크게 퍼졌고 산동반도를 포함한 화북지방에도 큰 가뭄이 발생해 아사자가 속출했다. 양쯔강 이남에는 홍수로 수백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식량 수출제한은 중국인들을 크게 자극했다. 연일 반미데모가 북경을 비롯한 중국 주요도시에서 일어났다.

지구의 종말은 어이없이도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된다. 반미데모에 흥분한 몇몇 중국 병사들이 미국을 향해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했다. 레이더로 감지한 미국의 핵방어체계는 날아오는 중국의 핵탄두를 태평양 상공에서 폭파시킨다. 그러나 미리 컴퓨터로 입력된 미국의 전략명령은 중국의 주요도시를 겨냥한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시킨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의 자동발사 시스템이 작동되어 미국의 주요도시에 입력된 대로 핵탄두가 날아간다. 중국과 미국의 핵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Ⅶ. 타고르의 예언

2030년 출애굽기

한국의 세계 비전

2030년 출애굽기

경기도 수원근교에 위치한 한국바이오종자회사 김태균 박사의 연구실에는 오늘밤도 불이 밝혀져 있다. 500평 남짓의 조립식 2층 가건물이 이 회사의 중앙연구소이다. 2층 왼편 끝방에서 김박사는 지난 7년간 그가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자료들을 최종 정리하고 있다. 김박사는 북한 김일성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북한과학원 식물유전자연구실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020년 남북한 통일을 계기로 3년여를 전전하다가 이곳 한국바이오종자회사에 입사하였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김일성대학 생물학과 교수로 계시던 아버지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다.

"유전자 사슬을 보면 내가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캡슐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야. 캡슐 안에는 비행기 조정석보다 더 복잡한 유전자 사슬들이 늘어서 있고 DNA 이중나선에 박혀 있는 A(아데닌), T(티아민), G(구아닌), C(시토신) 버튼을 누르면 우주선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회전하고 확장하고 축소되는 우주곡예를 신나

게 한단 말이야."

아버지는 생물학자이면서도 역사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셨다. 우리 민족의 분단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언젠가는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세계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아버지는 특히 한단고기(桓檀古記)를 즐겨 읽으셨다. 기원전 7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이족(東夷族, 동방의 활을 잘 쓰는 민족)의 역사에서 앞으로 한민족이 이룰 세계적인 비전을 자주 말씀하셨다. 그러던 아버지가 2015년 장성택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관계로 숙청되어 평안북도 용등탄광에 강제 수용되었다가 운명하셨다. 아버지는 유전자 꾸러미속에 들어있는 자체 제어와 확장의 메카니즘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셨다.

김태균 박사가 이곳 종자회사에서 연구한 내용도 식물 유전자의 DNA 복제과정에서 환경인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온도, 습도, 염도 등 환경인자가 특정 DNA 복제에 영향을 주는 기전을 이해하면 냉해나 가뭄이나 바닷물의 피해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종자를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존의 유전자재조합 방법은 다른 종 또는 미생물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잘라내어 식물 유전자에 접합시키는 방법이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식물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내냉성, 내한성 잠재능력을 최대한 증폭 발현시키는 방법

을 연구한 것이다. 그의 실험실 한쪽에 설치된 특수 환경조절 재배실에는 밀, 벼, 옥수수, 콩의 작은 싹들이 포트마다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2030년 8월 한국바이오종자회사 회의실에는 고영선 회장을 비롯한 회사간부들이 김태균 박사의 연구결과를 보고 받기위해 모여 앉았다. 고회장은 1997년 IMF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종자기업 4개 회사가 외국에 팔려 나갈 때 고집스럽게도 회사를 지킨 분이다. 이제 90을 바라보는 노인이나 정정하고 수려한 모습이 도인의 경지에 든 사람 같았다. 그동안 쓰러져가는 한국의 종자산업을 다시 살려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로 키웠으나 크게 소문을 내지 않고 검소하게 연구 위주의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다.

김태균 박사는 스크린에 "자체발현 내냉성 식물 종자개발"이라는 주제를 띄워놓고 보고를 시작했다.

"오늘 회장님을 비롯해 여러 임원님들께서 저의 연구결과를 듣기 위해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7년동안 식물의 DNA 복제과정에서 특정 유전인자가 환경인자에 의해서 어떻게 증폭되는지에 관하여 연구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인자의 종류에 따라 각각 특유의 효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냉성, 즉 식물의 정상적인 생육 온도보다 4~5도

낮은 온도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신품종을 만드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식물이 냉해를 받는 것은 성장점이 생육한계온도보다 낮은 온도에 처할 경우 괴사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저온 괴사온도가 크게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밀과 보리는 서리를 맞으면서도 자라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실파는 영하 10도에서도 그 생장점이 괴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파의 DNA360지점이 특이적으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식물체는 이 부의를 가지고 있는데 냉해를 쉽게 받는 식물은 이 부위의 증폭활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의 증폭활성은 TX6라는 효소에 의하여 제어되고 이 효소는 DNA856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새로 개발한 내냉성 밀과 옥수수 종자는 DNA856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생육한계 온도보다 4~5도 낮은 조건에서 생육하고 수확할 수 있는 종자들입니다. 이 정도의 내냉성이면 시베리아와 캐나다북부 초원지대에서 밀과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가뭄에 견디는 내한성 작물, 바닷물의 피해를 견딜 수 있는 내염성 작물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개발이사 이영옥 박사가 입을 열었다.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DNA856지점에서 만들어진

TX6효소가 생장점의 저온 괴사를 막는 기능이외에 다른 생체기능은 없을까요?"

"네, 여러 번의 실험에서 TX6효소와 DNA360의 기능, 그리고 DNA856의 기능 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들 부위의 생체기능은 식물의 냉해에 관여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모든 생물체는 최소한 10억 개의 염기쌍을 유전체 게놈에 가지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게놈 크기와 인간의 게놈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염기쌍들이 특정 생체 기능과 특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명체는 미생물이나 곤충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유전체 속에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되고, 곤충이 되고, 식물이 되고, 인간이 되는 것은 생명체 공통의 유전체 중에 극히 일부가 변형되고 발현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십억 개의 기본 기능 중에 한두 가지 기능을 발견하고 제어하거나 확장할 뿐입니다."

"김박사님, 대단히 획기적인 발견이고 전혀 새로운 이론입니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자에 의해 발표된 것이 있습니까? 또 이 내용을 김박사님께서 논문으로 이미 발표하셨는지요? 이미 논문으로 발표된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요?"

박영준 기술부사장이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질문한다.

"아직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이론은 저희 아버님이 김일성대학에서 일생동안 연구해온 내용으로 제가 이곳 연구소에서 적용실험을 한 것입니다. 실험의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기춘 사장은 흡족한 얼굴로 결론을 내린다.

"대단히 훌륭한 연구입니다. 우리 회사가 이와 같이 획기적인 연구 개발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아마도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을 식량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특허출원하여 기존의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능가하는 신기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기술은 유전자 변형기술이 아니라 유전자제어기술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계의 농업을 지배해온 다국적 거대 종자회사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신기술을 우리 회사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몬산토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종자회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때 고영선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기술을 우리 회사만을 위해 특허를 내는 것을 반대합니

다. 지금 들어보니 이 기술은 유전자의 기본 기능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제어기술로 거의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종자를 만들고 그 특허권으로 세계 농민의 고혈을 뽑아먹는 그런 일을 우리 회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으로 노예처럼 묶여있는 세계의 농민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우리 회사가 해낸 것을 참으로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태균 박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세계 비전

2030년 11월 15일 스웨덴 카롤린스카의학연구소는 한국의 김태균 박사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또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한국바이오종자회사의 고영선 회장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미국과 중국의 핵전쟁을 치룬 암울한 세계에서 한 가닥 희망의 등불을 보았다는 게 노벨위원회의 평화상 선정 이유였다.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반세기 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기록적인 경제성장으로 일본 다음으로 부유해진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학생데모와 국회의 난투극으로 심심찮게 뉴스를 제공하던 나라가 아니었다. 동양에서 가장 먼저 서구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 자본주의의 몰락에 새로운 세계 비전을 제공한 진정한 선진국 한국을 보게 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2012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권력을 잡기위한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 없이 패거리 정당정치를 하던 구시대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없애고 200가지가 넘는 면책특권을 폐지할 것을 약속한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하게 된다. 이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고 사안에 따라 서로 협력하는 의원연대를 만들었다. 이 새로운 정치 실험에 성공한 정치인들은 2016년 총선에는 더욱 확대되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의원 세비와 의원특권을 없애는 법률안을 통과시킨다. 이제 국회의원은 거짓말하는 특권층, 범법자가 면책특권으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희롱하는 자리가 아니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다. 자비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봉사자로서 자건거 타고 다니며 동네 구석구석의 일을 챙기는 좋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국회로 모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도 같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국토를 제 것처럼 팔아먹는 지자체의 부정부패가 사라졌다. 이러한 한국의 민주주의 성공은 2020년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을 때 북한 주민을 그대로 포용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서로 더불어 사는 방식을 터득한 한국민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북한 자치단체 지원 특별법을 만든다. 북한의 지방 자치단체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투자를 활성화 하되, 남한의 자본이 북한의 토지와 부동산을 매

입하는 것을 제한했다. 남한의 산업기술과 경영능력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투철한 공동체의식을 만나 결합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한국의 통일을 위한 준비는 그동안 착실히 진행되었다. 특히 통일 후 한반도 식량문제는 치밀하게 연구되었다. 2008년의 세계곡물파동을 계기로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식량의 반이상, 곡물 수요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던 취약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자급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세계적인 식량부족시대에 대비했다. 식량의 낭비를 줄이고 신토불이의 환경 친화적이며 건강한 식습관을 교육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위해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농업소득보장제를 실시했다.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하여 기초사료의 일정부분을 자체 생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서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치밀한 미래예측에 근거한 정부의 식량자급 계획과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한국을 농업선진국으로 만들었다. 식량자급률을 매년 1% 높이는 계획을 세워 2030년에는 식량자급률 70%, 곡물자급률 50%를 달성했다. 그 밖에 종자산업의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 결과 오늘의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2030년 12월 1일 영국의 더타임스지는 아래와 같은 사설을 실었다.

"동방의 작은 은둔의 나라, 냉전의 주변에서 열강들의 대리전을 치루고 철저히 파괴되고 분단된 나라, 한국이 세계의 최빈국에서 반세기만에 세계 9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것을 보고 세계는 놀랐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세계는 한국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다. 동양이 서양에 알려지던 19세기말 한국은 정쟁을 일삼아온 정치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국권을 일본에 빼앗겼고 한국의 모든 것이 일본이나 중국의 것으로 세계에 알려졌던 것이다. 찬란했던 천년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존재 없는 난민으로 비쳐진 것이다. 동북아 국가형성기(BC3000년)의 엘리트로 활을 잘 쓰는 도덕국가 동이족으로 동방문명의 기초를 놓은 민족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동북아를 호령하던 고구려가 패망한 후 동이족의 역사는 대부분 중국에 편입되고 한반도에는 그 뿌리만 남아 배달민족의 한을 키우고 있었다. 중국의 고문헌에서 동이족은 예를 숭상하는 선진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열도에 선진문화를 전파해온 민족이다. 이 민족의 저력이 한국전쟁 이후 역동적으로 발휘된 것이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탁월한 외교가로 열강들의 각축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견고히 했으며 대한해협에 평화선(Peace line)을

선포하고 한국 수역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등 국권의 확립에 큰 업적을 남겼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경제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산업발전의 기틀을 놓았고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패배주의에 빠진 한국인의 의식을 개혁하여 자립자조 정신을 키웠다. 중화학 공업에 집중 투자하여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선두위치를 넘보게 되었고 포항제철, 삼성, 현대, LG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되었다. 국민소득은 2만 달러가 넘었고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사들여 단군이래 최고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 물결과 함께 한국은 심한 성장통을 겪는 가운데 자유와 종북(從北)이 혼동되는 혼란기를 맞게 된다. 일부 좌경화된 교사들에 의해 한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해치는 편향된 역사교육이 만연하여 젊은이들의 애국심은 퇴락하고 개인주의와 왜곡된 민족주의로 치닫게 되었다. 사회는 가진자와 가난한자,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되고 이것은 정치판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권력쟁탈을 위한 후안무치의 정치행태가 일반화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들의 말바꾸기가 거듭되었다. 외환은행을 국제투기세력에 불법으로 팔아넘겨 엄청난 국부를 잃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금융감독을 맡은 자들은 불량 저축은행들과 한패가 되어 가난한 서민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을 분탕

질해 먹어도 속수무책이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연루되어 있었다. 보스정치에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은 상실되 머릿수만 채우고 개인적인 이권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게 되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는 정당정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민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여당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표심의 향방을 감지한 정치판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여당은 재창당을, 야당은 대통합을 한다고 부산을 떨었으나 이미 깨어진 그릇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는 꼴이었다. 2012년 4월 총선은 한국의 정치판을 새로 짜는 일대 변혁이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치 신인들이 대거 당선된 것이다. 그들이 내건 첫 번째 공약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포함한 200여 가지의 특권을 없애는 것이었다. 아무 제약없이 부풀려진 국회의원의 월급을 없애고 명예직으로 하는 국회개혁안이 전국민의 호응을 받았다. 이런 국회개혁안을 들고 나온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하면서 한국의 국회는 선진화 되었다. 정당은 없어지고 국가의 중요 이슈가 있을 때 사안에 따라 서로 연대하는 새로운 SNS 선진국회가 만들어 졌다. 국회개혁 이후 바닥수준에 있던 한국의 국가 청렴도가 OECD 상위그룹으로 개선 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 2020년 북한을 받아들여 온 세계가 흠모하는 선진

통일한국을 건설하였다.

한국의 세계 비전은 5천년전 건국신화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弘益人間 理化世界)야 말로 자본주의의 종말에 서있는 오늘의 세계가 취해야할 새로운 가치관이다. 이번에 한국바이오종자회사가 '자체발현 내냉성 식물 종자개발' 기술을 세계에 공여한 것은 홍익인간을 국시로 삼아온 배달민족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Rabindranath Tagore)는 진정한 예언자였다. 1929년 타고르는 그의 시 '동방의 등불'에서 아래와 같이 노래하고 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는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장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나뉘지 않은 곳

그윽한 진실 가운데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쉼 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청명한 흐름이

굳어진 타성의 모래펄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 나아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전당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저자 이철호(李哲鎬)

1945년 8월 18일 해방과 동시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서울 장충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ROTC 포병장교로 예편했다. 1970년 덴마크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6년간 유학하여 덴마크왕립수의농과대학에서 식품저장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MIT 공과대학에서 4년간 연구원으로 있다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 초빙되었다. 2010년 30년간의 교수생활을 끝내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앞으로 밀어닥칠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알리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교육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국민훈장 석류장, 홍조근정훈장, 미국식품공학회(IFT) Fellow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저서로는 음식오케스트라, 식품위생사건백서, 한국식품학입문 등 20여권을 저술하였으며, 27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문하에는 193명의 식품학 석사와 24명의 박사를 배출하였으며, 20여명이 국내외 대학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